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2008년 9·10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2008년 9·10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Review

9

1주차

| 09.01-09.07 |

1. 대내정세 — 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4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2주차

| 09.08-09.14 |

1. 대내정세 — 26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36
가. 북·미 관계
나. 북·중 관계
다. 북·러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3주차

| 09.15-09.21 |

1. 대내정세 — 4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49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4주차

| 09.22-09.28 |

1. 대내정세 — 58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68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5주차

| 09.29-10.05 |

1. 대내정세 — 8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98
가. 북·미 관계
나. 북·중 관계
다. 북·러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21

3. 대남정세 — 38

3. 대남정세 — 53

3. 대남정세 — 74

3. 대남정세 — 104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0

1주차

| 10.06-10.12 |

1. 대내정세 — 108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주차

| 10.13-10.19 |

1. 대내정세 — 130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37

-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45

3. 대남정세 — 125

3주차

| 10.20-10.26 |

1. 대내정세 — 150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61

-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65

4주차

| 10.27-11.02 |

1. 대내정세 — 170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80

-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87

제2권 제5호 · 2008
월간 **북한동향**

인 쇄 2008년 11월
발 행 2008년 11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실
편집간사 권혜진 연구원

등 록 제2-02361호(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대차인쇄 두일디자인 2285-0936

<비매품>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9.1-9.7

9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뇌졸중 가능성(9/9, AP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권수립 60주년 기념행사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뇌졸중(stroke)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AP 통신 등이 미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9일 보도
 - 익명을 요구한 이 정보당국자는 “김 위원장에게 건강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아마도 뇌졸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은 최근 2주 이내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

- 김정일, 9·9절행사 불참…의혹 증폭(9/9,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은 정권 수립 60주년을 앞두고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대규모의 군사퍼레이드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과거와는 달리 오후에 정규군이 아닌 노동적위대와 평양시민들만의 열병식을 갖는 방식으로 축소했고 평양 시내 퍼레이드도 열리지 않았음.
 - 조선중앙TV는 오후 8시 정규 뉴스 시간에 이어 9시부터 열병식을 녹화중계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열병식에선 김영춘 인민군 총참모장이 열병보고를 했으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단상에 모습을 드러냄.
 - ※ 김정일 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이 8월 14일 보도한 제1319군부대 방문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최근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치료를 위해 프랑스와 독일 등의 의료진이 방북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김 위원장은 2007년 5월 초순 심근경색 증세 때문에 독일 심장재단 의료진으로부터 막힌 동맥 1개를 뚫어주는 심장 바이패스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소 심장병과 당뇨 등 지병으로 체력 저하 등 노화 증세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 “8월에 쓰러져” 첩보(9/9, 9/6, 조선일보)
 -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8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월 22일(건강

악화로) 쓰러졌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면서 “본부(외교부)에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첩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힘. 이 관계자는 이 첩보를 중국 측 소식통으로부터 입수, 자세한 사실을 확인 중이며 북한 내부 상황을 지켜 보고 있다고 언급

나. 정치 관련

● 北 5대 기관, 반미 대결전 최후승리 이룩할 것(9/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등 5대 주요 기관들은 9일 “미제의 침략책동에 대처해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며 적들이 감히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선군혁명의 폭풍우 속에서 다진 위력한 잠재력을 총동원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반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이룩하겠다”고 강조
- 당중앙위와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은 9일 연명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9·9절 축하문에서 김 위원장의 ‘선군영도’로 “공화국(북한)의 최고 이익과 민족의 생존권,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전쟁 억제력이 마련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이어 축하문은 “내외 분열주의 세력들의 반공화국, 반통일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 강토 위에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겠다”고 덧붙임.

● 9·9절 이례적으로 오전 행사 없이 진행(9/9, 연합)

- 북한이 9일 정권 수립 60주년을 맞아 준비한 행사가 당초 예상과 달리 오전에 열리지 않은 가운데 오후부터 행사 개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오전에는 열병식 등 준비된 행사를 치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오후부터 모종의 행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음.
- ※ 북한은 종래 유사 행사 때는 오전에 열병식과 퍼레이드, 오후에 무도회와 횃불행진을 벌였다는 점에서 이번 동향은 이례적임.
- 이에 따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조선중앙TV 등 언론 매체들도 9·9절 관련 대규모 행사에 관한 것을 이날 오후 5시 현재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음.

● 北, 정권 수립 60돌 행사로 ‘들썩’(9/7, 조선중앙방송)

- 북한 정권 수립 60돌(9.9)을 맞아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 전역에서 ‘경축 분위기’가 고조, 고(故)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 업적’을 선전하기 위한 각종 전시회와 공연, 경축모임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북한과 친교를 맺고 있는 외국의 축하사절들도 속속 평양에 도착
-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공관 가운데 베트남(2일), 팔레스타인(4일), 쿠바(5일) 대사관 등도 잇따라 북한 고위 인사들을 초청해 ‘축하 연회’를 개최
- 외국의 축하 사절로는 중국 국제우호연락회 대표단, 멕시코 노동당대표단, 에니케 로만 에르난데스 쿠바 제(諸)인민간 친선협회 제1부위원장, 키르기스스탄 대외친선협회연맹위원장, 파키스탄 자력갱생연구협회 서기장,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을 도왔다는 중국인 장올화 가족, 석명손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축하단, 남승우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재일본 조선인 축하단 등이 5~6일 평양에 각각 도착

● 北, ‘인천상륙작전 재현 행사’ 비난(9/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한국 해병대가 9월 9일 인천 월미도에서 인천상륙작전 재현 행사를 가진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번 행사는 “엄중한 민족 반역행위”라고 6일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해병대의 이번 행사에 “대형 수송함과 상륙함, 수십대의 상륙장갑차와 비행기, 많은 병력이 동원”되는 만큼 “실제상 상륙작전”이라고 주장

● 北김영남, 남북대화 재개는 남측의 태도에 달려(9/5, 연합)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는 남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남측에서 “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하르트무트 코쉬크 독일 하원의원이 5일 밝힘.
- 코쉬크 의원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5일 자신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남북 화해 노력을 후퇴시켰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

언, 평양을 방문 중인 코쉬크 의원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장은 남측에서 우선적으로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또 남측이 그런 의지를 보이면 남북 간 화해 실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물론 통일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언

● 北 인권문제 제기는 반공화국 소동(9/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남한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미국의 반공화국(반북) ‘인권’ 공세와 공조를 같이”하면서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 수행에서 돌격대로 나서고 있다”고 비난
- 통신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남한 정부 대표가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은 “동족 사이에 적대감과 불신을 고취하고 북남관계를 대결어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인 정치도발”이라고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존치를 들어 “오늘날 인권문제가 실지 존재하는 곳은 남조선”이라고 덧붙임.

● 北, 내달 또 당세포비서대회 개최(제204호, 오늘의 북한소식; 9/4, 연합)

- 북한은 식량난에 따른 민심이반을 막기 위해 노동당 말단 책임자들 대부분이 참석하는 ‘전국 당세포비서대회’를 10월 개최할 예정이라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4일 보도
- 오늘의 북한소식 제204호를 통해 이번 대회에 세포비서 1만여 명이 참석한 다면서 14년만에 열린 작년 당세포비서대회의 7천여 명을 넘어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북한이 이 집회를 갖는 것은 “식량사정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히고 “조직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세포비서들의 역할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당원을 중심으로 일반 주민들을 통제하거나 설득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덧붙임.
- ※ 북한은 2007년 10월 평양에서 당세포비서대회를 열고 당원과 근로자들을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토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 강화를 당부

● 北조평통, 여간첩 사건은 날조 모략극(9/3,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3일 담화를 내고 여간첩 원정

화 사건에 대해 “자료를 가공, 날조한 완전한 모략극”이라고 주장

- 대변인은 원정화와 관련해 “문제의 ‘여간첩’으로 말하면 우리 국가와 인민 앞에 죄를 짓고 도망친 범죄자이며 돈과 변태, 협잡에 미친 인간추물”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그가 북한에서 중학교를 나와 사기와 절도로 “법적 제재”를 받고 “오래 전에 불법 월경해 남조선(남한)으로 도주했다”고 주장
- 또 원정화의 계부 김모씨에 대해서도 “이붓애비(계부)라는 자 역시 공화국(북한)에 있을 때 일정한 직업이 없이 무려 수십 번이나 직장을 옮기며 여기 저기 떠돌아다닌 무직 건달자로서 조국과 인민을 등지고 도망간 인간쓰레기”라고 주장
- 대변인은 남한 당국에서 발표한 원정화의 활동 자료도 “엉터리 없는 날조”라며 “여간첩이 탐지해냈다고 하는 ‘정보’와 ‘군사기밀’이란 남조선에서 인터넷(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료들”이라고 주장

● 北, 정권 수립 60년 “일심단결” 강조(9/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북한 정권 수립 60돌(9.9)을 앞두고 “우리 공화국(북)의 역사는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쳐온 역사”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단결을 거듭 강조, 신문은 또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지 않은 단결, 실무적인 담합은 오래 갈 수 없다”며 고 김일성 주석이 제시했다는 주체사상과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 지도적 지침”으로 받들 것을 주문
- 이어 신문은 “선군의 기치 높이 전진해온 지난 10여 년간은 영도자(김정일)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과 혁명 대오의 일심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철통 같이 다져지고 그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긍지 높은 연대기였다”고 자평

● 北, 이란 로켓발사 옹호(9/3,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3일 이란의 로켓 발사에 대해 미국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은 이란의 “자주적인 권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비난

● **선군혁명 대중운동 독려(9/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9.9)을 앞두고 “조선(북한)에서 선군혁명 총진군의 거세찬 열풍이 일어 번지고 있다”며 이는 “선군사상의 기치밑에…강성대국의 높은 영마루(정상)를 점령하기 위한 선군시대의 전 인민적 대진군 운동”이라고 언급
- 통신은 2일 ‘선군혁명 총진군은 선군시대의 전인민적 대진군 운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또 “혁명과 건설이 승리적으로 전진하려면 강력한 군사적 힘이 마련돼야 한다”며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는 선군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혁명적 진군운동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강조
- ※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 10년을 맞았던 2005년 2월 ‘선군혁명 총진군 대회’를 개최했었음.

● **北, 美서먼호 격침일 맞아 ‘반미’ 강조(9/2,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조선중앙방송은 ‘침략선 서먼호를 격침시킨 조선민족의 기개’라는 방송프롤로그를 통해 “미제는 자기의 침략적 본성을 버리지 않고 오늘도 전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공화국(북한)에 대한 침략전쟁 책동에 미쳐 날뛰고 있다”며 “미제 침략자들은 서먼호 사건에서 교훈을 찾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남한)에서 저들의 침략 무력을 걷어 가지고 지체 없이 물러가야 한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청진 시장서 단속원과 여성들 또 마찰(제206호, 오늘의 북한소식; 9/9, 연합)**

- 북한의 함북 청진시장에서 단속원과 장사를 하던 여성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으며,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식량이 공급될 때까지 단속을 느슨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9일 보도
- 이에 따라 청진시 당국은 8월 26일 긴급 소집된 도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이 사건을 보고한 뒤 각 구역 보안서와 시장관리소에 “10월 배급을 줄 때까지 단속을 세게 하지 말라”는 구두지시를 내렸다고 소식지는 보도
- 소식지는 한편 함북 회령시와 청진시 등에서 ‘비사회주의그루빠(그룹) 검

열'이 시작됐다면서 “중국에 도강한 세대와 남조선에 내려간 가족이 있는 세대 등은 이유 불문하고 다른 지역으로 집단이주시킬 예정”이라고 알려짐.

● 노동신문, 국방공업 발전 최우선(9/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북한 정권 수립 60돌을 맞아 “군민(軍民) 단결”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
- 신문은 “나라의 전도는 그 어떤 자연부원(부존자원)이나 경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정치적 기반(기반), 당과 군대와 인민의 단결의 공고성에 의해 좌우된다”며 “자기 영도자를 중심으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힘, 정신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군민단결’을 거듭 강조

● 北총리, 경제강국 건설 가장 중요한 과업(9/9, 조선중앙TV)

- 김영일 내각 총리는 8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해 우리나라를 21세기의 사회주의 경제강국으로, 인민들이 부러운 것이 없이 잘 사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건설하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
- 조선중앙TV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권 수립 60주년(9.9) 경축 중앙보고대회 보고에서 “우리 당은 …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길 웅대한 목표를 제시했다”며 이렇게 강조한 뒤 “우리는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 부문을 발전시키고 나라의 전반적 경제건설을 정상화, 활성화하며 농업혁명,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식량문제, 인민소비품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겠다”고 촉구
- 김 총리는 남북관계와 관련,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 높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세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만 강조
- 행사장에는 최태복·김중린 당중앙위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춘·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김격식 군총참모장, 광범기 내각 부총리,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등이 참석

● 노동신문, 우리는 살아남았다고 자랑(9/8, 노동신문)

- “한 나라가 당할 수 있는 온갖 풍상고초를, 한 국가의 생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최악의 시련을 다 이겨낸 우리에게 이제 더는 무서운 것이란 없게 되었다.” 노동신문은 북한 정권 수립 60돌(9.9)을 하루 앞둔 8일자 3면 전면에 실은 ‘무궁변영하라 김일성 조선이여!’라는 ‘정론’에서 지난 기간 북한의 원수들이 “별의별 도발과 악착한 봉쇄와 제재를 가하며 우리 제도의 안전과 인민의 생존을 끊임없이 위협”했으나 북한은 살아남았다고 주장

● 글로벌 인사이트, 北국가위협도 하향 조정(9/6, 미국의 소리 방송)

- 세계적인 민간 시장예측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가 북한의 국가위협도를 하향조정함으로써 국가위협등급이 올라가게 되었음.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6일 “미국에 본부를 둔 글로벌 인사이트는 4일 북한의 중기국가위협 등급(Medium-term Sovereign Risk Rating)을 85점에서 80점으로 조정했다”고 밝힘.

- 글로벌 인사이트의 덴 라이언 조사국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 GDP의 5% 미만으로, 과거 10%를 웃돌았던 때보다 크게 줄었다”며 “대외적자가 줄면 빚을 갚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위협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 “지난해 북핵 6자회담에서 ‘2·13합의’가 이뤄졌을 때부터 북한의 국가위협도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왔다”며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핵 신고서 제출, 이에 상응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금 해제 검토 등 북한의 외부 세계와의 관계 개선에 큰 진전이 있어 조정을 확정했다”고 강조

※ 국가위협도는 한 나라가 돈을 빌렸을 때 되갚지 않을 위험을 계산해 등급화 한 것으로 글로벌 인사이트는 0~40점은 투자 등급, 45~65점은 투기 등급, 70~100점은 채무불이행 등급으로 분류

● 美 대북 지원식량, 4차분 北에 도착(9/5, 미국의 소리 방송)

- 미국이 북한에 1년간 지원키로 한 식량 50만t가운데 4차 지원분인 옥수수 2만4천500t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5일 보도
- 3만7천270t의 밀이 지난 6월 29일 북한에 첫 도착한 이후 8월 4일과 20일

각각 2만4천t의 옥수수과 3만2천500t의 옥수수에 이어 최근 4차분이 도착함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제공한 식량은 총 11만8천270t으로 집계됨.

● 북한에서도 청바지 생산(9/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자본주의의 퇴폐적 생활 풍조'라며 주민들의 착용을 금지한 청바지가 내년부터 북한 내에서 스웨덴 기업의 위탁으로 생산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

● 평양 도심 모란봉에서 양봉(8월호, 조선)

- '조선' 8월호에 따르면 평양 한복판인 모란봉 꽃밭에 인근 공장·기업소들이 저마다 꿀 채취를 위해 벌통을 설치하여 꿀을 채취한다고 소개, 여기서 생산된 벌꿀은 꽃 종류에 따라 '왕벌젓꿀', '삼지구엽초꿀' 등의 상표를 달고 판매

● 자강도 강계돼지공장 준공(9/4,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시찰했던 자강도의 강계돼지공장이 3일 박도춘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최기룡 도 인민위원장, 김인남 도 농촌경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업식을 가졌다고 조선중앙방송이 4일 보도

● 北, 대계도 간석지 3개 방조제 복구 완료(9/4, 조선중앙방송)

- 1997년 북한의 서해안 일대를 휩쓴 해일로 크게 파손됐던 평안북도 '대계도 간석지'의 4개 방조제 중 3개의 복구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짐. 조선중앙방송은 4일 "1호 방조제가 강한 해일에도 끄떡없이 만년대계로 훌륭히 완공"됐다면서 "앞으로 3호 방조제와 간석지 내부망 공사를 다그쳐 끝내고 많은 면적의 부침땅을 얻어낼 수 있게 됐다"고 보도

● 北 '9·9절' 맞아 상품공급 주력(9/3, 조선중앙방송; 조선신보)

- 북한이 정권 수립(9.9) 60주년을 맞아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에 주력, 조선중앙방송은 3일 남포시 "여러 상업봉사단위들에서"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 정상화에 주력해 "매대들이 흥성거리고 있다"고 보도, 또 시에서는 해안도시의 특성에 맞게 수산물 공급사업의 정상화도 추진하고 있고

김장용 야채공급을 비롯해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

- 조선신보도 3일 '9·9 앞둔 평양'이라는 평양발 르포 기사를 통해 운동화 생산 전문공장인 평양시 만경대구역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된 새로운 형태의 운동화가 정권 수립 60주년에 즈음해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다고 소개

● 北, 쌀값 재앙등 단속 강화(제203호, 오늘의 북한소식; 9/3, 연합)

- 북한에서 내림세였던 쌀값이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하자 함경남도 함흥시에서는 쌀 kg당 북한돈 2천700원 이상에 거래될 경우 단속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3일 보도
- 오늘의 북한소식 제203호는 “함흥시에서는 시장에서 쌀 kg당 2천700원이 넘어가면 즉각 회수함과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면서 “시장관리소 소장과 시 인민위원회 가격과(課) 부원, 구역 당 간부들이 일부 장사꾼들이 쌀값을 올린다는 제보에 따라 시장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
- 한편 북한 노동당은 최근 “간부들의 생활품조가 남조선식을 많이 본따고 있다”고 보고 간부들을 대상으로 불법 녹화물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식지는 보도

● 北, '비사회주의적'이라며 개인수공업자 단속(9/1, 연합)

- 평안남도 강서군 보안 당국이 8월 1일부터 주민들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개인 수공업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일 보도
- 평남 강서군은 '모조품 생산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 전역에서 개인 수공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 중 하나라고 소식지는 설명, 이번 단속에선 특히 하루 품삯을 4천 원씩 주고 15명의 노동자를 고용해 국영 공장에서 불법으로 자재를 빼돌려 모조품을 생산해 온 강서군민 최용철 씨가 주요 타깃이 됐다고 소식지는 보도

라. 사회·문화 관련

- **집 떠났던 北주민들 추수기 맞아 귀향(9/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집을 떠났던 주민들이 추수기를 맞아 식량배급을 받기 위해 귀향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버나드 코클린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중국사무소장의 말을 인용 보도

- **정권 수립 60주년 기념주화 발행(9/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정권 수립 60주년을 맞아 금화와 은화 두 종류의 기념주화를 발행,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6일 ‘공화국 창건 60돌 맞으며 기념주화를 발행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정령을 발표하고 “기념주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돌’은 금화와 은화로 발행할 것”이라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

- **北, 정권 수립 60돌 각종 행사 개최(9/5, 9/4, 9/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정권 수립 60돌(9.9)을 맞아 ‘김일성화(花)·김정일화’ 전시회가 5일 평양시내 ‘김일성화 김정일화 전시관’에서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개막식에는 최태복 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강능수 문화상 등이 참석
 - 5일 김일성경기장에서는 ‘60돌 경축’ 체육경기가, 조선우표전시관에서는 우표전시회가 각각 개최
 - 4일 전국산업미술전람회가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같은날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는 북한 내외에서 발행된 2만9천100여 종 3만300여 권의 도서와 잡지가 전시된 국가도서전람회가 개막됐고, 김일성 부자의 업적을 선전하는 영화들을 평양과 각 지방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상영순간(旬間)’ 개막식도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열렸다고 통신은 보도, 또 주체사상탑광장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정권 수립 60돌 경축모임도 개최
 - 3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는 평양시 근로자들의 예술소조 종합공연이 진행됐고, 김일성 주석의 동상이 있는 만수대 언덕에서는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도 열렸다고 중앙통신이 보도

- 北, 시인 등 '애국열사릉' 안치(9/5,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최고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김철 등의 유해를 남한의 국립묘지 격인 애국열사릉에 안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 통신은 김철 외에 최하택 만수대창작사 유화창작단장, 오탈용 조선기록과 학영화촬영소 연출가, 리학범 만수대예술단장, 최학수 4.15문화창작단 작가 등도 함께 안치됐다고 보도

- 北여자 탁구계, '차세대 기대주' 김정(9/4, 조선신보)

- 北축구해설가, 남북전 격전 예상(9/4, 조선신보)

- 北, 백두산 천지에 화산관측소 설치(9/3, 조선중앙TV)

- '대황소상' 씨름대회 곧 개최(9/3, 조선중앙TV)
 - 북한관 전국 천하장사 씨름대회인 제6회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대회가 오는 13~17일 추석을 맞아 평양시 룡라도 씨름경기장에서 열린다고 조선중앙TV가 3일 보도

- 北소학교서 컴퓨터, 영어 정규수업 시작(9/3, 조선신보)
 - 북한 전역의 소학교(초등학교)에서 컴퓨터와 영어 과목이 3학년부터 정규 과목으로 개설돼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감. 조선신보는 3일 "(북한) 전국의 소학교들에서 컴퓨터, 영어과목에 대한 수업이 1일 일제히 진행됐다"며 "올해부터 조선(북)에서는 컴퓨터와 영어를 소학교 단계의 정규과목으로 정하고, 3학년부터 배우게 된다"고 소개

- 평양국제탁구대회, 北 남녀 단체 우승(9/1, 조선중앙통신)

- 北에서도 건강보조식품 인기(9/1,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각종 한약재와 산삼, 벌꿀 등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보조식품이 근로자들에게 호평받고 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北입장 재확인한 韓·美·中·日 대표회동(9/7, 연합)**
 -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북핵 6자회담 4개국 수석대표들이 5~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연쇄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해결에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강경 자세로 돌아선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한 채 끝이 남.
 - 한국과 미국, 일본 수석대표가 5일 베이징에 집결함으로써 중국을 포함한 4개국이 잇따라 회동했지만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6일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던 북한 측과의 회동은 결국 무산

- **정부 당국자, 北핵시설 봉인제거관련 정보 無(9/6, 연합)**
 - 정부 당국자는 6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붙여놓은 봉인을 제거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보도한 것과 관련, “그런 정보가 없다”고 언급, 외교 당국자는 “북한이 봉인을 제거하는 등 추가 조치에 들어갔다는 정보는 아직 접하지 못했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핵시설 복구 움직임이 보다 분명해진 것”이라고 해석
 -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 “북한이 이미 핵시설 복구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통보한 만큼 하루 이틀만에 물러서진 않을 것”이라며 “얼마동안은 그런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전망

- **北, '검증 사찰' 수용하지 않을 것(9/6, 조선신보)**
 - 북한은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을 위해 미국이 '국제적 기준'을 내세워 요구하고 있는 “사찰”을 받을 의무도 없고 이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6일 주장
 - 조선신보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8.26)의 ‘핵시설 복구 고려’ 성명 이후 북한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에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공표한 것만큼 조선(북) 정부는 검증문제에서 국내여론과 배치

되는 안일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여론에 대해 “인민들은 오히려 미국의 검증요구를 자주권 침해행위로 단정하고 핵억제력을 놓고 미국과 흥정하는 일은 없다고 확인하는 나라의 위용에 긍지와 자부를 느끼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북한)인민들은 처음부터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 밝힌 두번째 대응 조치(핵시설 원상복구 고려)에 주목”했고 “조선이 6자합의 이행과정을 되돌리게 될 (두번째) 대응조치에 대해 부득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미국이 6자구도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강도적 요구를 내세기 때문”이라고 강조, 북한의 불만은 테러지원국 해제가 미뤄지고 있는 것보다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체계에 있음을 시사
- 신문은 이어 미국은 북한에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검증”을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북한은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했고 IAEA 회원국도 아니라고 지적
- 특히 9·19공동성명 직후 “미국이 …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NPT에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어서 “조선에 대해 … 담보협정에 따르는 사찰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특별사찰’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
- 신문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연다”는 것은 북한의 공식화된 목표이고, 2012년의 전망은 “선군노선에 의해 경제건설의 안정과 평화적인 조건을 보장하는 군사적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는 논리로 설명된다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 노력은 단순히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나 경제적 지원” 차원이 아닌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조건보장”과 “환경조성”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

● IAEA, 北 핵시설 핵심장비 제거(9/4, 연합)

-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이전에 핵시설의 ‘핵심’ 장비들을 이미 제거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3일 발표, IAEA는 보고서를 통해 IAEA 감시요원들이 핵 연료봉 등 중요 장비들의 제거 과정과 보관 상태를 지켜봤다면서 일부 물질들은 아직도 감시 하에 있다고 설명
- IAEA 이사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원자로의 ‘사

용 후 연료봉(폐연료봉) 중 절반 이상이 인출된 뒤 IAEA 요원의 점검을 거쳐 수조에 보관돼 있다면서 “이들 연료봉들과 원자로에 남아 있는 연료봉들 모두 IAEA의 감시하에 있다”고 밝혀 북한이 원자로를 원래 가동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

나. 북·미 관계

● 북·미 ‘영변 외 시료채취’ 놓고 막판 협상 중(9/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과 미국은 현재 영변 이외 핵시설에서 시료채취 문제를 놓고 막바지 협상 타결을 시도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직 미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5일 보도

● 北, 핵시설 복구방침 美에 사전통보(9/4, 연합)

- 북한은 불능화가 진행되던 핵시설에 대한 복구작업을 개시하겠다고 미국 측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4일 확인, 정부 고위당국자는 비공식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2일 영변 현장에 머물고 있는 미국요원들에게 핵시설에 대한 복구작업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구두로 통보했다”고 소개한 뒤 “우리도 당일 늦게 미국측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발표
- 이 당국자는 핵시설 복구 개시의 판단 근거와 관련, “불능화 작업시에 제거해 창고에 보관했던 장비들을 옮겨서 현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됐다”고 설명하고 “냉각탑 폭파 이후 그동안 잔해가 그대로 있었는데 그 잔해들을 청소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소개

● 美하원 아태 소위원장, 3일 개성공단 방문(9/2, 연합)

- 방한 중인 애니 팔레오마베가 미국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3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 정부 당국자는 2일 “팔레오마베가 소위원장 측이 방한 기간 개성공단 방문을 희망, 정부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방문 신청서를 접수시켰고 북측이 동의서를 발급했다”고 발표
- 팔레오마베가 소위원장은 3일 오전 방북, 개성공단에서 공장들을 돌아보고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귀환할 예정

다. 북·중 관계

- 자칭린, 北대사관서 북한 건국 60주년 축하(9/8, 신화통신)
 -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북한 건국 60주년 기념일(9.9절)을 하루 앞둔 8일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경축 행사에 참석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 자칭린 주석의 경축 행사 참석에 앞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연명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내각 총리에게 공동으로 축전을 보냄.

- 중, 북한 정권 60돌 기념 연회 개최(9/6, 조선중앙방송)
 -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조(북)우호협회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최진수 중국 주재 북한 대사, 리진화(李金華)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 부주석, 류홍차이(劉洪才)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정권 60돌을 기념하는 연회를 개최

- 中기상국, 北에 설비 기증(9/4, 조선중앙통신)
 - 중국 기상국에서 북한에 설비를 기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통신은 “세계기상기구(WMO)의 긴급 자연재해 협조계획과 자원적 협조계획에 따라 조선 기상수문국에 중국 기상국에서 설비들을 기증했다”고 보도

- 중국, 북한행 단체 관광 허용(9/3, 연합)
 - 중국 정부가 북한행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로 함. 중국 국가관광국은 2일 북한을 방문 허가 지역으로 승인했다고 발표
 - 북한으로 가는 단체 관광은 “양국이 세부 내용을 협상하고 공식 합의에 서명한 뒤 적절한 시점”에 시작된다고 국가관광국은 설명
 - 강철수 북한 조선관광총국 부국장은 중국을 관광객을 유치하는 중요한 국가로 간주하고 있으며, 관광 촉진과 인력 훈련같은 분야에서 중국이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라. 북·러 관계

- 러시아-北 철도연결사업, 10월 3일 개시(9/8, 연합뉴스)
 - 러시아철도공사(OAO, 러시아인 레일웨이스)가 오는 10월 3일 북한-러시아 간 철도현대화사업을 개시
 - 이 사업은 한반도와의 철도 연결을 위해 러시아측 접경 52km 구간의 철로 공사와 북한 측의 나진항에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이 9일 이메일을 통한 성명에서 밝힘.
- 러 투자사, 북한진출 위해 자동차 제공(9/2, 자유아시아방송; 8/25, 러시아의 소리방송)
 - 최근 러시아 자동차회사 아프토바즈가 북한에 라다 승용차 850대를 공급키로 했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보도한 것은 러시아의 투자회사가 북한 진출을 위해 이 승용차를 무상제공키로 했다는 뜻인 것으로 알려짐.

마. 북·일 관계

- 北, 日 아소는 강경우파 대표인물이라며 경계심 표출(9/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일본의 차기 총리로 아소 다로(麻生太郎) 자민당 간사장이 유력시되고 있음을 밝히고 그에 대해 “강경우파세력의 대표적 인물”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냄.
 - 통신은 2007년 9월 아베 총리의 사임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후쿠다 총리가 사임하게 된 것은 잇따른 정책 실패와 국민들의 불신에 따른 지지율 하락, 차기 중의원 선거 승리 등 “앞으로 있게 될 정치적 고비들을 무난히 넘기려는 것”이 배경이라면서 “앞으로 일본에서 권력쟁탈을 위한 당파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
- 日 교도통신 사장 방북(9/6, 조선중앙방송)
 - 이시가와 사토시 사장을 단장으로 한 일본 교도통신사 대표단이 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北, 日에 납치문제 재조사 연기 통보(9/5, 연합)
 - 북한이 북일 관계 현안인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관련, 일본측에 조사위원회 설치를 연기한다고 통보했다고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이 5일 발표
 - 고무라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새로운 정권의 방침을 지켜보기 위해 설치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4일 받았다고 밝힘.
- 北, 日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표기’는 재침 선언(9/4,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4일 일본 방위성이 2008년판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넣기로 한 것은 “노골적인 재침 선언”이라고 규탄
- 日 후쿠다 사임, 논평 없이 보도(9/4,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4일 “일본 수상 후쿠다가 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식 사임을 발표했다”며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의 사임 소식을 별다른 논평 없이 짤막하게 보도

바. 기타 외교 관계

- 주북 쿠바 대사관, 9.9절 축하 연회 개최(9/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주재 호세 마누엘 갈레고 몬타노 쿠바 대사는 5일 대사관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박의춘 외무상, 리용남 무역상, 김용진 교육상, 김태중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등을 초청한 가운데 북한 정권 수립 60돌(9.9)을 축하하는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몽골친선 컴퓨터센터 개관(9/6, 조선중앙통신)
 - 몽골·조선(북한)친선컴퓨터센터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설립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몽골·조선친선컴퓨터센터 개관식은 몽골의 ‘유목민발전지지 즈·쌈부기금’, 국가대회의, 외무성, 몽골·조선친선협회 인사들, 몽골 주재 북한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29일 개최

● **김영남 독일연방의회 의원 만나 환담(9/5,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하르트무트 코쉬크 독일연방의회(하원) 의원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악단, 英공연 무기연기…신용경색 여파(9/4, 자유아시아방송)**

- 9월 중순 예정됐던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영국 공연이 재정 문제로 무기 연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 방송은 북한 당국이 관심을 보여온 이 악단의 미국 공연도 미국 내 정치 상황 때문에 2009년 중반까지는 성사되기 어렵다고 보도
-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영국 공연 무기 연기는 당초 72만 달러로 예상되는 재정을 후원키로 했던 영국의 기업이 신용경색 때문에 후원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임.

● **주북 베트남 대사 연회 개최(9/2, 조선중앙통신)**

- 레 반 크 북한 주재 베트남 대사가 2일 베트남 독립 63돌을 기념한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라오스 총리, 방북 마치고 출국(9/2, 조선중앙통신)**

- 부아손 부파방 라오스 총리가 2일 북한 방문을 마치고 평양을 떠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
- 공항에선 북한의 김영일 내각 총리와 리용남 무역상, 리경식 농업상, 김영일 외무성 부상 등이 부아손 총리 일행을 환송
- 김영일 총리의 초청으로 8월 30일 방북한 부아손 총리는 같은 날 김영일 총리와 회담을 갖고 ‘경제·무역·과학 및 기술협조공동위원회 창설 협정’을 맺음.
- 부아손 총리는 평양시 룡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열린 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하고 서해갑문, 3대혁명전시관, 만수대창작사, 평양지하철도, 평양 326전선공장 등을 둘러 봄.

● 北, 9.9절 기념 독일과 중국서 미술전람회 개최(9/2, 조선신보)

- 북한 내각의 문화성은 정권 수립 60주년(9.9)을 기념해 독일 베를린과 중국 베이징에서 미술전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조선신보가 2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베를린에서 북한 미술품들로 전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조선화와 유화, 판화, 포스터 등 150여 점이 전시됨.
- 베이징 전람회에도 북한의 유명 화가들이 그린 조선화와 유화 등 60여 점이 전시된다. “조선(북한)과 중국은 지난 시기에도 기념일을 계기로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 미술전람회를 진행해 왔다”고 신문은 설명

3 대남정세

● 당정, 10월 중 북한 식량지원 검토(9/7, 연합)

-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월 중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짐. 앞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9월 3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출범 10주년 기념 축사에서 “앞으로 인도주의적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식량지원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식량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하거나 직접 지원, 또는 차관 형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당정은 북한이 1년간 필요한 식량이 500만여t이나 2007년 생산량이 403만t에 그치는 등 해마다 100만t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
- 통일부는 WFP가 우리 정부에 2천만~6천만 달러 수준의 식량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WFP를 통한 경우 인건비를 포함해 행정비용이 15~20% 가량 들어 직접 지원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차관 형식 지원도 적잖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당정은 식량 지원이 이뤄질 경우 전임 정부에서 북한에 보내기로 약속한 옥수수 5만t과는 별도로 지원할 계획

● 北,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실형 비난(9/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

기진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북과의 관계 개선과 대화와 협력이라는 것이 한푼의 가치도 없는 빈말”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난

※ 서울중앙지법은 8월 27일 “북한은 상호 협력해야 할 공동체 민족인 동시에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의 노선을 바꾸지 않는 이중적 존재”라며 윤씨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 실형을 선고

● 정부, 北핵시설 복구 관계없이 식량지원(9/4, 통일부)

- 정부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복구 움직임과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발표,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영변 상황 악화와 관계없이 식량지원이 결정되느냐”는 질문에 “인도적 지원은 (북핵) 상황과 관계없이 한다”고 언급

● 올해 개성공단 南인력 6명 말라리아 발병(9/4, 통일부)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올들어 공단 현장에서 말라리아 환자 3명이 발생했고 작년 개성공단에서 근무한 뒤 복귀한 인력 중 3명이 잠복기를 거쳐 올해 발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

● 서해상 표류 北주민 인도...9월 들어 두 번째(9/3, 연합)

● 北, 남측 민간단체 식량지원은 받겠다고 의사 표시(9/2, 통일부)

- 북한이 남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식량 지원 제의를 모두 거절해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최근 남측 민간단체의 식량 지원은 받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2일 확인

-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북측이 남측 민간단체 한 곳에 식량 지원을 해준다면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며 “그동안 북측은 남측 민간단체의 식량 지원 제의에 대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었다”고 언급, 그러나 김 대변인은 “아직 북측이 일부 (남측) 단체에는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남측의 식량지원에 대한 북측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언급

- 6·15북측위, 南, 평양 방문길 차단 비난(9/2,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 대변인)
 - 북한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 대변인은 2일 이명박 정부가 “신(新)공안정국을 조성하고 각 계층의 평양 방문길을 차단하고 있으며 통일운동단체 성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
 - 대변인은 담화에서 윤기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파쇼적 폭거”라면서 이는 남한의 현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의지가 조금도 없는 반통일 집단”임을 보여준다고 주장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9.8-9.14

9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러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추석 전후 모습 안 드러내(9/15, 연합뉴스)
 - 와병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석을 전후한 15일 오후까지 공개활동을 했다는 북한 언론매체의 보도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가 32일째 실종된 상태
- 김정일, 中군의관 5명에게 수술받아(9/15,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8월 14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북한의 요청으로 중국 정부가 파견한 5명의 군의관들로부터 수술을 받았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4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교도통신은 익명의 중국 소식통들을 인용, 김 위원장이 중국 군의관들로부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단계에 있으나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는데 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도.
- 김정일, 금년 4월부터 가끔 의식 잃어(9/14, 마이니치신문)
 - 와병설이 나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8년 4월부터 가끔 집무 중 의식을 잃는 등 심각한 상태여서 당무 등 중요 사안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4일 보도, 신문은 북한의 내부 사정에 밝은 믿을 만한 중국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은 야간과 새벽에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5, 6월에는 지병이 상당히 악화돼 밤에 일할 수 없게 되고 판단력도 떨어져 북한이 6자회담 등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그의 병세와 관계가 있다고 신문은 보도
 - 김 위원장이 의식을 잃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 시작한 지난 4월은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방문을 앞두고 있던 시기로, 중국 차세대 지도자의 평양 방문을 어떻게든 성공시키기위해 김 위원장이 회담까지 2개월 동안 집무를 대폭 축소한 채 치료와 휴양에 중점을 뒀다고 신문은 밝힘. 이 관계자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2007년 여름부터 신장과 심장 등 복수의

장기에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병세가 서서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 2007년 4월 말 심장수술(9/13, 아사히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봄 독일인 의사로부터 심장수술을 받았다고 아사히신문이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서울발로 13일 보도
- 신문은 “심장수술과 이번 뇌질환으로 추정되는 질병과의 연관성은 불분명하다”며 “김 위원장이 2007년 4월 말 심장 혈관을 넓히는 수술을 받아 2주 정도의 회복기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이같은 사실은 수술을 집도한 독일인 의사로부터 한국측이 질환 상태를 문의해 극히 일부에게 보고됐으며 2007년 6월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은 “독일인 의사가 북한을 방문했지만 수술 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고 신문은 보도
-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상태와 관련, “외병인 것은 확실하지만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 **정부 관계자, 김정일 양치질할 수 있는 상태(9/12, 연합뉴스)**

- 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건강을 점차 회복해 양치질을 할 정도의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
- 이 관계자는 “일단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뇌혈종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우리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이 쓰러지고 2~3일 이후에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

● **해외 김정일 이복동생들, 5월이면 평양 방문(9/12, 자유아시아방송)**

- 해외공관에서 생활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녀 이복동생들이 “예년처럼” 지난 5월 같은 시기에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됨.
- 김 위원장의 이복 남동생인 김평일 폴란드 주재 대사가 지난 5월 중순부터 북한에서 머물다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 9.9절 직전인 지난 주말 귀임해 대사관저에서 9.9절 기념연회를 여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폴란드 외교소식통이 11일 보도, 연회에는 김 대사와 아들만 보였을 뿐 부인

과 딸은 참석하지 않음.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 김 위원장의 이복 여동생으로 김광섭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의 부인인 경진 씨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난 5월 남편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다고 보도
- 북한에는 김평일 대사 남매의 어머니인 김성애(84) 씨가 생존해 있어 이들의 정기적인 북한 귀환에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추정됨.

● **北유엔대표부, 김정일 와병설 ‘허튼 소리’(9/11,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뇌수술을 받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와병설에 대해 “허튼 소리”라고 일축, 이 관계자는 이어 본국에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사업하기 바빠서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말하고 “더 이상 묻지 말라”며 자리를 피함.
-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도 김 위원장의 와병설을 묻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대표부 건물을 빠져나감.

● **김영남, “문제없다” 이례적 언급(9/10, 교도통신)**

- 북한의 명목상 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0일 일본 교도(共同)통신 인터뷰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밝힘.
- 교도통신 측은 “이번 인터뷰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불거지기 전에 이미 북한 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예정됐던 것”이며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관한 언급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왔다고 밝힘.

● **김정남, 7월 말부터 평양 체류 중(9/10,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37)씨가 지난 7월 말부터 주거지인 중국 베이징을 떠나 평양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10일 “중국에 거주하던 김정남 씨가 7월 말 평양에 들어간 뒤 아직 체류하고 있다”며 “정남씨가 예전에도 평양을 들락거리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오래 머무는 경우는 드물다”고 언급
- 정남 씨는 베이징에 근거지를 두고 마카오, 유럽 등도 들락거리며 고 김일

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등에 평양을 방문해 왔으며, 체류기간은 길어야 1개월을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짐.

- 한 소식통은 또 “북한이 환자의 나이를 말해주면서 프랑스에서 심장외과 의사를 초청했다”며 “이들 의사는 현재도 평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

나. 정치 관련

● 北, 어떤 광풍 불어도 조국 지킬 것(9/15,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 속에 평양방송은 15일 “우리 인민들은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사회주의 조국을 끝까지 지키고 빛내어갈 것”이라고 강조

● 김정일 중심 ‘일심단결’ 강조(9/14, 노동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와병 중인 가운데 노동신문은 14일 ‘천만심장이 하나로 고동친다’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일심단결을 강조
- 정론은 정권 수립 60주년을 맞아 진행된 노농적위대 열병식에 대해 “그날의 환호성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김정일 장군님께 드린 최대의 경의였고 혁명의 수뇌부를 끝까지 따르려는 천만심장의 불같은 맹세의 합창”이었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 펼쳐갈 선군조선의 미래에 대한 힘있는 선언이었다”고 자평
- 신문은 “단결의 중심은 수령이고 수령의 위대성에 의해 단결의 위대성과 공고성이 결정된다”며 “김정일 동지, 사상과 영도력에 있어서나 덕망과 인품에 있어서나 이 세상 제일이신 그이를 단결의 중심에 모심으로써 이 땅에는 일심단결의 화원이 펼쳐질 수 있었다”고 김 위원장의 ‘위대성’을 강조

● 김정일 덕분에 값 높은 삶 누려(9/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공화국의 품 속에서 누리는 조선 인민의 값높은 삶’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북한 주민들이 “세기를 이어 값 높은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 신문은 북한의 식량배급제와 무상 교육·치료제 등을 언급한 뒤 “우리 인민은…자식을 공부시킬 걱정, 병이 나면 치료할 걱정을 모르고 살아왔다”면서 “지난 10여 년 간 것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강조
- 신문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우리 내부에 썩어빠진 부르주아 생활풍조를 들이밀려고 반동적인 사상문화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더욱 악랄하게 벌이고 있다”고 주장

● 北조평통, ‘국방개혁 2020’ 비난(9/12,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2일 ‘국방개혁 2020’ 발표 3주년을 맞아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난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미국산 무기구매지위 상승, 합동군사부 설치 등을 거론하면서 “무분별하고 도발적인 무력증강과 북침전쟁책동으로 북남관계는 더욱 격화되고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참예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 조평통은 “외세와 야합하여 침략적인 무력증강과 전쟁소동을 벌이면서 평화에 대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적대시하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대화’에 대해 떠드는 것 역시 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난
- 조평통은 이어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핵전쟁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는 이명박 패당의 범죄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에 대해 철저히 계산하고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

● 北, 南동포여러분, 北은 식량해결 투쟁중입니다(9/12, 평양방송)

- 북한의 대남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이 “남조선 동포 여러분”이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낯설지 않으나, 모두 북한체제 선전, 대남·대미 비난, 북한의 통일방안 선전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성이 덜한 북한 농민들의 가을 수확 분투를 소재로 한 이날 방송은 매우 이례적
- 평양방송은 “남조선 동포 여러분, 지금 공화국 북반부 안의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세계적인 식량위기와 관련해서 자체의 힘으로 알곡 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고 있다”고 소개

- 방송은 봄과 여름 내내 “애써 가꾼 낱알 한알도 허실함이 없이 말끔히 걷어 들이기 위한 가을걷이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것은 현 시기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며 평남 삼봉협동농장 농민들, 평양시 락랑구역 농기계작업소 근로자들의 추수준비 상황을 소개

● 北, 김정일의 ‘간고분투’ 집중 선전(9/12,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12일 ‘공화국 창건 60돌을 성대히 경축한 기세로 총돌격하자’ 제목의 사설에서 김 위원장이 “공화국 창건 60돌이 가지는 중대한 의미를 깊이 헤아리고…정초부터 끊임없이 현지지도 강행군 길을 이어가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강조
- 조선중앙방송도 12일 ‘낙원으로 가는 길’ 제목의 보도물에서 김 위원장이 1998년 1월 한겨울에 험난한 자강도 지역을 시찰했고, 이를 계기로 경제구호인 ‘강계정신’이 나온 사실을 강조하며 그때부터 10여년간의 시찰을 “인민과 함께 헤쳐온 강행군의 나날”이라고 찬양

● 9.9절 정권 창건 60주년 행사, 준비했던 인민군 열병식 생략 및 행사 축소 (9/9, 조선중앙TV)

- 9일 북한의 정권 창건 60주년 기념행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불참 탓인지 당초 예상보다 축소, 북한은 당초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었음. 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위성정보 등을 근거로 “북한이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언급했음.
- 북한은 그러나 이날 오전 인민군 열병식 등 준비했던 행사를 치르지 않고 오후에 정규군이 아닌 노동적위대, 붉은 청년 근위대와 평양시민들의 퍼레이드만 진행
 - ※ 정권 창건 50주년과 55주년 때는 오전에 군 열병식과 시민 퍼레이드, 오후에 무도회와 햇불행진을 진행
- 조선중앙TV는 오후 8시 정규뉴스 시간까지도 각국 정상의 축전 등만 소개한 채 퍼레이드와 김정일 위원장의 동정은 언급하지 않음. 중앙TV는 이후 오후 9시가 돼서야 노동적위대 등의 퍼레이드 사실만을 처음 보도했으며 이때도 김 위원장 동정 소식은 언급되지 않음. 조선중앙TV가 녹화방송으로 중계한 퍼레이드에서는 김영춘 인민군 총참모장이 열병보고를 했으며

단상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모습만 보였음.

※ 북한은 2007년 4월 군 창건 75주년 때는 오전에 인민군 열병식을 갖고 정오에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행사를 소개, 2005년 10월 노동당 창건 60주년에는 오후 3시에 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중앙TV를 통해 열병식 행사를 녹화 중계한 바 있음.

다. 경제 관련

● 노동신문, 추수 “영농전투” 독려(9/15, 노동신문)

-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신문은 15일 추수철을 맞아 “가을걷이 전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독려

● 北학술지, 식량수요 예측 정확성 강조(2008년 3호, 사회과학원 학보)

- ‘사회과학원 학보’ 2008년 3호에서 식량문제를 최단기간 해결하기 위해선 “식량수요에 대한 전망 타산(계산)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
- 학술지는 “현 시기 나라의 식량문제 해결이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이며 “식량문제 해결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지만 “식량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하여 과학적인 타산이나 목표도 없이 무작정 내밀어서는 오히려 나라의 전망적인 식량문제 해결에 혼란과 부정적 후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

● 北, 평양 국제상품전 개최(9/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국제 경제교류 차원에서 개최하는 제4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9월 22일 개막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25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전람회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덴마크, 독일, 스웨덴, 싱가포르, 영국, 인도네시아, 쿠바, 폴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 150여 개 기업체가 참가할 예정임.
- 전람회에는 각종 공작기계와 전기·전자설비, 운전(운수)기계,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일용품, 식료품 등이 출품되며 무역상담과 교류, 경제협력을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고 통신은 보도

※ 제3차 전람회는 2007년 10월 8~11일까지 16개국 150여 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

● 北, 9·9절 때 ‘명절상품’ 공급(9/11, 조선신보)

- 북한이 정권수립 60주년을 기해 술과 과자, 담요, 운동화 등 ‘명절상품’을 전 주민들에게 국정가격 판매 방식으로 “골고루” 공급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신문은 “명절상품은 직장·직위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에 골고루 공급됐다”면서 “전쟁노병들과 영예군인들,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해 바깥출입을 못하는 세대들, 직장일이 바쁜 세대들에 대해서도 송달봉사가 진행됐다”고 보도
- 특히 평양시의 경우 “상품은 각 동(洞)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및 공업품 상점에서 국정가격으로 판매됐다”며 “판매는 세대마다 식구수 등이 기입된 ‘우리가정 수첩’에 준해 이뤄졌다”고 소개, ‘우리가정 수첩’은 세대별로 어떤 상품이 언제, 어느 정도 공급됐는지를 기록한 장부임.

● 北, 외화별이용 송이버섯 밀매 단속 강화(제208호, 오늘의 북한소식; 9/10, 연합)

- 북한이 최근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송이버섯의 밀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10일 주장
- ‘오늘의 북한소식’ 제208호에서 노동당 중앙당은 “송이버섯을 비법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은 혁명자금을 뺏아내는 범죄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처해 혁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송이버섯을 비롯한 외화별이를 잘하여 쌀을 보장해야 한다”며 “송이버섯 단속과 관련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한다”는 방침을 하달

라. 군사 관련

● 北동창리에 새 미사일기지 건설(9/11, AP통신)

- 북한이 기존에 알려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기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이 향상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를 8년 전부터 평안북도 철산군 동

창리에 새로 건설했다고, 미국의 AP통신이 군사전문가를 인용해서 11일 보도, AP통신은 동창리 기지가 이동 가능한 발사대와, 탄도미사일이나 로켓을 지지할 수 있는 10층 높이의 타워로 구성돼 있으며, 인공위성의 발사도 가능하다고 보도

- 한편, 이상희 국방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 보고에서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와 관련, “잘 알고 있다”며 “현재 80%의 공사가 진척 중이며,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또 의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관리는 AP통신에 미 정보당국이 북한 새 미사일 기지의 존재 사실을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도

※ 북한은 현재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창리 기지의 존재는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음.

마. 사회·문화 관련

● 美단체, 北어린이 영양개선 사업 시작(9/15,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의료지원단체인 미국의 샘(SAM)복지재단이 북한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대체식품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
- 샘복지재단은 국경없는 의사회 등 국제지원단체들과 협력해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대체식품 ‘샘 뉴트리넛 페이스트(SAM Nutrinut Paste)’를 300명에게 3개월간 시범 보급
- 재단측은 사전 작업을 위해 8월 9일 관계자 4명이 황해도 지역을 방문, 2~6세 어린이 150여명의 건강 상태를 검진하고 대체식품을 우선 보급했으며, 몇차례 더 방북해 식품을 공급받은 어린이들의 영양개선 효과를 관찰한 뒤 구체적인 지원량과 기간 등을 정할 계획

● 北 ‘대항소상’ 씨름경기 개막(9/13, 조선중앙TV)

- 북한판 전국 천하장사 씨름대회인 제6회 ‘대항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가 추석을 맞아 13일(~17일까지) 평양시 룡라도 씨름경기장에서 개막됐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 **北주민 대부분 '김 건강 이상' 모르는 듯(9/13, 조선일보)**
 - 김 위원장이 지난 9·9절 행사에 불참한 사실은 9일 밤 조선중앙TV의 녹화 중계를 통해 북한 전역에 알려짐. 그러나 그 불참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 때문이라는 사실이나, 김 위원장의 몸 상태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보도되지 않는 등 철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음. 또 인터넷·전화 등 통신매체 접근이 쉽지 않은 북한 사회의 특성상 대부분 주민은 아직까지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제7차 전국농업근로자민족경기대회 개최(9/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 기념 제7차 전국농업근로자민족경기대회와 제5차 전국농업근로자농악무경연이 8일부터 1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800여 명의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평안북도가 종합 1등을 차지
- **정권 수립 60주년 경축 체육경기 폐막(9/12, 조선중앙통신)**
 - 정권 수립 60주년 경축 체육경기가 12일 평양 청춘거리 농구경기장에서 폐막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 폐막식에는 김중린 당 중앙위 비서와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 등이 참석
- **평양국제영화축전 17~26일 개최(9/12, 조선중앙TV)**
 - 제11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고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
 - 이 방송은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는 세계 40여 개 나라와 국제기구의 70여 개 단체에서 출품한 영화들이 상영된다”며 “축전에서는 장편예술영화와 기록 및 단편영화 경쟁, 특별상영, 통보상영을 하게 되고 조선영화 시사회도 있게 된다”고 보도
 - ※ 북한의 유일한 국제영화제인 평양국제영화축전은 1987년부터 2~3년 주기로 열리고 있으며 제10차 축전은 2006년 9월 개최되었음.
- **조선우표전시회 개최(9/11, 조선신보)**
 - 정권 수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조선우표전시회가 5일 조선우표전시관에서

개막해 12일까지 열린다고 조선신보가 소개

- 北방송, 2010년 남아공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남북전 무승부 보도(9/11, 조선중앙방송)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성 김, 北 핵시설 복구하면 중대한 실수(9/11, 연합)
 - 성 김 미 북핵담당특사(대사급) 내정자는 10일(미국시간) “미국은 북한의 핵불능화 프로세스가 다시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6자회담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언급
 - 성 김 내정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만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 이어 그는 “우리는 6자회담 당사국들과 평양의 리더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북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다”고 주장
 - 그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복구에 나선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영변 시설에서 일부 장비가 옮겨진 것 등은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심각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나. 북·중 관계

- 北·中 교역규모 올해 20억 불 돌파 전망(9/14, 중국 상무부 아주사)
 - 북·중 교역규모가 올해에도 큰 폭으로 증가해 20억 달러 수준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중국 상무부 아주사(亞州司)에서 발표한 2008년 1~7월 대(對) 아시아 교역통계에 따르면 2008년 7개월 간 북중 교역규모는 총 14억2천300만 달러로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3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대북한 수출은 10억100만 달러로 35.2% 증가했으며, 수입은 4억2천300만 달러로 24.3% 늘어남. 이런 추세라면 양국 교역규모는 2007년 약 19억8천만 달러에서 2008년에는 무난히 2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 올해 1~7월 중국의 대북 무역 흑자는 4억달러에서 5억7천800만 달러로 증가, 양국 간 무역역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다. 북·러 관계

● 러시아, 영해 침범 북한어부 19명 억류(9/15, 러시아연방보안국)

- 약천후로 러시아 영해를 침범한 북한 어부 19명이 러시아 당국에 억류돼 있다고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발표, 연방보안국에 따르면 북한인 18명이 승선한 스쿠너선은 키토브이(Kitovyi)만에, 북한 어부 1명이 탄 배는 볼쇼이 펠레스 섬 인근에 억류 중임.

※ 북한 어부들은 항해장비 없이 낚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다 종종 조난을 당하며, 올 들어서만 러시아 프리모르예 해상에서 구조된 북한인은 56명에 이름.

● 김정일, 와병 속 러 대통령 생일에 축전(9/14, 조선중앙통신)

● 北최태복·박의춘, 러 방문 예정(9/14, 자유아시아방송; 9/10, 러시아의 소리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 워싱턴의 북한문제 전문가를 인용, “이들은 빠르면 10월 중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 행사에서 북한 당국자가 당시 행사에 참석한 야코벤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에게 전달했다”고 보도
- 앞서 러시아의 소리방송도 9월 10일 알렉산드르 야코벤코 러시아 외교 차관이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마련한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 경축연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의춘 외무상과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이 10월과 11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

라. 북·일 관계

- 北, 日 해외군사작전 확대 움직임 비난(9/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미국 주도의 '반(反) 테러전' 참여를 구실로 한 일본의 해외군사작전 확대강화 움직임에 대해 "아시아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을 몰아오며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난

마. 기타 외교 관계

- 北, 방글라데시 대사에 신홍철 임명(9/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방글라데시 주재 신임 대사에 신홍철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영남, UNESCO 사무총장 면담(9/12,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고이치로 마츠우라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날 면담에는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배석했으며, 앞서 박의춘 외무상도 고이치로 사무총장을 면담. 지난 10일 방북한 UNESCO 사무총장은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일 귀국

3 대남정세

- 개성공단 누적생산액 4억 달러 돌파(9/15, 통일부)
 - 개성공단의 누적생산액이 4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생산을 개시한 2005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 6개월간 누적생산액은 4억1천만 달러이며, 수출액은 8천400만 달러에 달함.
 - 개성공단 생산액은 2005년 1천491만 달러에서 2006년 7천374만 달러로 급증한 데 이어 2007년에는 1억8천478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음.
 - 올해에도 1~7월 생산액이 1억4천만 달러를 기록, 2007년 같은 기간에 비

해 51% 증가, 이 기간 수출액은 2천400만 달러로 집계

※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는 8월 말 현재 3만2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20~30대 여성이 80%를 차지

※ 8월 말 현재 79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금년 말 40여개 공장이 추가로 완공되면 총 120여 개 업체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됨. 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측 근로자는 1천200여 명으로 집계

● 北과 '이산가족' 최우선 협의(9/14, 연합뉴스)

-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추석을 맞아 14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리는 실향민 합동경모제에 참석, 실향민들을 위로
- 그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 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남북 간 대화가 열리면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언급

● 北, 南에 '역사용어사전' 원고 전달(9/14, 통일신보)

-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지난 6월 남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남북 역사용어사전'의 원고를 남쪽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측에 전달했다고 통일신보가 14일 보도
- 조희승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장은 통일신보와 인터뷰에서 “사전에 오르게 될 역사용어는 900여개에 달한다”며 “역사연구소에서는 북과 남사이의 역사인식으로 볼 때 차이가 적은 시기에 해당하는 3권(이조 후반기~3.1인민봉기)부터 집필을 시작했다”고 소개
- ※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역사용어를 연구해 사전 형태로 펴내기로 2008년 합의

● 개성공단 기금 차주(借主) 현지법인으로 전환(9/11, 연합뉴스)

-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은 개성공단 초기 입주업체들의 숙원인 기금 차주(借主) 변경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 정부 소식통은 1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12일 서면으로 개최, 협력기금 차주 변경 문제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며 “차주 전환은 별도의 법규 개정없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로 가능하다”고 언급

- 개성 현지 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을 차주로 등록, 협력기금을 대출받은 초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그간 '모기업 부채비율 상승으로 회사 신용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차주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음.

※ 2007년 5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차주 전환의 법적인 장애물이 제거됨. 이 법률 제11조는 '정부는 개성공단 현지 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

- 정부는 공단 시범단지 분양 업체와 1차 분양 업체 등 총 28개 업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760억 원을 대출

9.15-9.21

9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 김정일 건강이상설은 나쁜 사람들의 꾀변(9/19, 북한 외무성)
 - 현학봉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우리나라 일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나쁜 사람들의 꾀변” 이라면서 “그런 소리 아무리 해봐야 놀라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일심단결은 깨지지 않는다”고 주장
 - 현 부국장은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지원 남북실무협약에 앞서 남한 기자들의 질문에 언성을 높이는 등 격한 반응을 보임. 현 부국장은 이어 10여 분간의 기초발언에서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유보, 북핵 검증체계 문제 등을 조목조목 반박
 - 현 부국장은 검증체계 구축에 대해 “미국은 합의되지도 않은 검증에 대해 국제적 기준이란 간판을 걸고 강도식 사찰방법을 적용하려 한다”며 “미국이 이라크에서도 대량살상무기를 찾는다고 사찰했지만 아무 것도 찾지 못하고 결국 전쟁만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남측은 조선반도가 제2의 이라크가 되리라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
 - 그는 불능화 중단에 대해서는 “무력화(불능화)는 중단됐고 지금 원상태로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지 않고 에네르기(에너지) 보상을 계속 끌고 있으니 부득이하게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
- 北김정일 활동, 조미대결 격화때 공개안돼(9/1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9절 기념 열병식에 불참한 데 따른 건강이상설에 대해 “과거에도 조미(북미) 대결이 격화되고 조선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최고영도자의 활동이 일정한 기간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고 부인하는 태도를 취함.
 - 조선신보는 한반도 긴장고조의 원인으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을 지적하고 “미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조선(북한)이 2년 전 선택을 보류한 대결노선으로 선회할 공산이 높다”며 “핵보유국으로서 자위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면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예측 불가능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

- 이 신문은 “지하 핵시험을 단행한 조선에는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며 “첫째는 미국의 정책전환을 촉구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는 ‘대화의 노선’이고, 둘째는 핵억제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으로 적대국의 강권과 전횡을 저지·파탄시키는 ‘대결의 노선’”이라고 언급

● 김정남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감(9/16, 조선일보)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37)이 지난 주말쯤 평양에서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출발한 것으로 16일 알려짐. 정부 소식통은 “김정남이 지난 9·9절(정권 창건일) 행사 참석을 위해 평양에 갔다가 지난 주말쯤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으로 나온 것으로 안다”고 언급

나. 정치 관련

● 北, 美금융위기 자본주의 취약성의 증거(9/21,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21일 “최근 미국에서 전례없는 금융위기가 휩쓸어 아비규환의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해 “투기와 협잡, 무질서와 혼란으로 얼룩진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李大통령 개성공단 발언 비난(9/21,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21일 ‘엉뚱한 훼방질’이라는 제목의 단평에서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시 노사갈등 발생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개성공업지구사업마저 파탄시키자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
- 신문은 “우리측 노동자 숙소문제를 꺼내자 대규모의 노동자 숙소를 만들면 ‘집단화에 따른 노사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느니 뭐니 하며 ‘노사분규가능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개성공업지구사업을 구실이 없어 깨지 못하는 자의 수작질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도 ‘무지를 드러낸 반통일적인 궤변’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개성공단 기숙사 관련 발언은 “북남협력 사업의 성격과 특수성도

모르는 반통일적 궤변”이라며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반대하는 극악한 반통일역적만이 내뿜을 수 있는 망언”이라고 주장하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극악한 반북대결광신자로서의 역도의 정체가 다시금 날낱이 드러났다”며 이 대통령을 “북남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주범”이라고 비난

● 南의 인권문제 제기 비난(9/20,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20일 “반공화국(반북) 인권소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강력 비난
- 방송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지적한 것 등을 “모략적인 반공화국 인권소동”이라고 비난하고 이는 “미국의 불순한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가담해 우리를 어찌 보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 北, “수령·인민 혼연일체” 단결 강조(9/17,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7일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를 강조하면서 “이런 단결을 이룩한 나라는 역사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붕괴되는 일이 없으며 언제나 승승장구하게 된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또 “우리 조국이 엄혹한 시련이 닥쳐 올 때마다 기적적으로 솟구쳐 올라 세계를 경탄시키는 위대한 승리와 역사적인 변혁을 이룩해 올 수 있게 한 최강의 무기가 바로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라며 “수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거듭 강조

● 김정일, 노동적위대 열병식 2007년 5월 구상(9/17, 민주조선; 조선신보)

- 북한이 정권수립 60주년(9.9)을 맞아 정규군을 배제한 채 민간무력인 ‘노동적위대’ 열병식을 진행한 것과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난해 5월 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민주조선이 17일 보도, 민주조선은 이날 ‘9·9절’ 기념행사를 결산하는 ‘김일성 조선은 무궁번영하리라’라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을 게재, 작년 5월 김 위원장이 정권 창건 60돌 경축 열병식을 민간무력의 열병식으로 진행하려는 구상을 피력한 일화를 소개했다고 조선신보 인터넷판이 보도

- 조선신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07년 5월 “주석님(김일성)께서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정세변화를 천리혜안의 예지로 통찰하시고 제때에 민간무력을 창건하시고 그 강화발전을 위해 바친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해 공화국 창건 60돌 경축 열병식을 민간무력의 열병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며 민주조선은 그 의도에 대해 “노동적위대를 몸소 무어(조직해)주시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켜 주신 주석님의 그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서”라고 소개

다. 경제 관련

● 北, 인구센서스 독려(9/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에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인구일제조사에 한 사람같이 성실히 참가하는 것은 숭고한 애국심과 공민적 의무의 발현”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인구일제조사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구일제조사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 조사항목은 성별, 나이, 세대주와의 관계, 민족별, 현재 다니는 학교, 최종졸업학교, 자격(기술자, 전문가), 직업(인민경제 부문과 직제직종), 결혼과 출생, 사망상태”라며 “이밖에도 살림집 형태와 면적, 먹는 물과 위생실 조건, 난방 조건과 취사용 연료도 들어있다”고 소개
- 노동신문은 인구센서스의 목적과 관련, “나라의 인구상태를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장악해 사회관리에 이바지하고 경제문화건설의 여러 분야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인구 및 사회경제적 자료를 얻으려는데 있다”고 강조
- 신문은 “유엔인구기금(UNFPA)은 1993년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한 제1차 인구일제조사에 이어 이번에 두번째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혀 이번 조사가 UNFPA의 협조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면서 “인구일제조사는 장기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그 진행에는 노력(노동력)과 물자들을 비롯해 재정적 투자가 많이 들게 된다”고 강조
- ※ 올해 북한의 인구주택총조사는 14만 명의 조사요원이 보름간 북한 전역의 모든 가구를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고 10명의 국제요원이 관찰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최종 결과는 자료분석 후 2009년 10월께 나올 전망

● 北, 감자농사 성과 발표회 개최(9/20,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감자 주산지인 량강도 대흥단군에서 9월 18, 19일 '전국 감자부문 과학기술성과 발표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0일 보도
- 방송은 북한 전역의 농업부문 책임자와 과학자, 기술자, 교사들이 감자육종, 종합적 기계화, 고·저지대 감자재배, 비료농약, 감자저장 가공 등 분과에 참여해 감자농사와 관련한 100여 건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리경식 북한 농업상이 토론에 참여하고 변영립 국가과학원장은 폐막사를 맡았다고 소개

● 北아리랑, 노동당 창당일까지 연장공연(9/2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8월 4일부터 9월 말까지로 예정했던 '아리랑' 공연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61돌 기념일까지 연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
-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둔 고려여행사의 사이먼 카크렐 지국장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공연 연장 통보를 받았으며 "2002년과 2005년에도 공연이 연장된 적이 있었는데, 창당 기념일까지 공연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언급
- 여행사측은 아울러 북한이 고 김일성 주석의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 4월 새로운 집단체조를 선보일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반 아리랑 공연 계획이 없다고 보도

● 北일부 군수공장, 노동자들에 미국산 밀 지급(9/18, 연합뉴스)

- 북한의 자강도는 지역내 군수공장 노동자들에게 미국이 지원한 밀을 포함해 10일분의 식량을 공급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오늘의 북한소식'에서 보도
- 소식지는 "이번에 배분한 식량의 절반은 입쌀이고, 나머지는 미국이 지원한 밀"이라고 설명하고 "그 동안 일절 배급을 주지 못하다가 8월 노동자들의 출근율이 현저히 떨어지자 제2경제위원회에서 부랴부랴 미국 지원 식량을 배급했다"고 소개
- 북한 내각의 석탄공업성도 함북 새별군에 있는 북부지구 탄광연합기업소 근로자들의 결근율이 높아지자 이들에게 미국이 지원한 밀을 공급키로 결정했다고 소식지는 보도

● 北국제신탁개발사, 대외거래 핵심 급부상(9/18, 조선신보)

- 창설 4년밖에 안된 조선국제신탁개발회사가 북한의 대외거래에 핵심으로 급부상, 조선신보는 18일 “다른 나라 기업과 무역거래, 신탁투자업무, 금융봉사 등을 진행하는 회사”인 조선국제신탁개발회사가 “착실한 사업방식으로 인해 국내 유관기업들 속에서 신용도가 오르고 외국기업과 사업거래의 폭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
- 이 회사는 2004년 4월 설립돼 수출입업무와 외국기업의 신탁투자, 금융서비스 등을 진행, 이 회사의 주요 수입품은 콩기름을 비롯한 식료품과 비료, 박막 등 영농물자로 북한내 수요가 큰 품목들임.
- 이 회사는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물자교류 시장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북한 기업과 농어촌에 ‘생산재’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신탁투자, 금융서비스도 이 회사 핵심사업 중의 하나임. 이로 미뤄볼 때 조선국제신탁개발회사는 외국자본을 받아 북한내 기업들에 투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중국의 베이징과 지린성, 홍콩 등에 있는 중국계 자본들과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北, 올해 추수 시작(9/18,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8일 “황해남도 안의 농촌들에서 벼가을(벼 추수)이 시작됐다”며 “신천군 새길협동농장에서 먼저 시작을 땀 데 이어 재령별과 연백별안의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도안의 농촌들에서 벼가을 전투에 진입했다”고 보도
- 방송은 “협동별마다에 직관선전판들과 힘있는 글밭들이 나붙고 방송선전차와 포전 방송설비들이 일제히 전개되어 농업 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고 있다”고 전언

라. 군사 관련

● 北, 호국훈련 강화 비난(9/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미국 해병대 1개 연대와 남한 해병대 2개 연대가 참여하는 연합해병대상륙훈련인 호국훈련이 오는 11월 열리는 데 대해 “외세와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려는 범죄적 책동이 얼마나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북침공격기도를 드러낸 위험한 해병대상륙훈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해마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해 벌여온 연합 전시증원연습,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서도 해병대병력이 투입되는 상륙훈련이 벌어졌지만 이번처럼 사단급의 연합해병대상륙훈련이 추진되기는 처음”이라고 지적

마. 사회·문화 관련

● 가을철 산불 예방 당부(9/18,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8일 ‘9~11월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을 맞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철저한 산불 예방을 당부, 중앙TV는 18일 오후 8시 정규 뉴스시간에 계도성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의 귀중한 재보인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공민적 의무”라며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한 사람 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고 강조

※ 북한은 3~5월을 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9~11월을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각각 지정해 산불예방사업을 벌임.

● 전국무도선수권대회 개막(9/18, 조선중앙통신)

- 제3차 ‘9월10일상’ 전국무도선수권대회가 18일 평양시내 태권도전당에서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역사이야기 ‘부루왕자’ 출간(9/18, 조선신보)

- 북한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단군의 태자 부루(夫妻)를 주인공으로 한 장편 역사이야기 ‘부루왕자(리규춘 지음)’를 펴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신문은 저자가 초기 고조선사를 연구해 관련 자료와 당시 생활상을 찾아냈으며 “장편사화 ‘부루왕자’는 단군의 아들 부루가 나라의 명줄인 종곡(씨앗으로 쓸 곡식)을 구하고 오랑캐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협에 처했을 때 결연히 앞장에 서서 원수들을 무찌르고 나라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모습에 대해 서술했다”고 소개

- 北, '동물 다양성 보호' 과학기술 발표회 개최(9/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7일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동물, 수산자원 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 발표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평양국제영화축전 개막(9/17, 평양방송)
 - 제11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17일 평양 국제영화회관에서 개막됐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9월 26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에는 세계 40여 개국에서 영화를 출품했으며, 장편예술영화와 기록 및 단편영화 경쟁, 특별상영과 북한 영화 시사회가 진행
 - 개막식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박관오 평양시 인민위원장, 백한수 문화성 부상 등이 참석
- 北 신기록 제조기 '소녀力士' 림정심(9/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역기(역도)경기관 청소년체육학교 학생으로 각종 경기에서 우승해 '소녀역사(力士)'로 불리는 림정심(15)이 다시 청소년 신기록을 세움.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9·19 외무성 대변인 성명
 - 얼마 전부터 핵시설 원상 복구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 바라지도 않고 우리대로 나가면 될 것이다.
- 北, IAEA에 핵시설 복구계획 미통보(9/20, 연합: 9/19, 조선중앙통신)
 -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아직까지 핵시설 재가동 계획을 알려오지 않았다고 비엔나의 외교소식통들이 19일(현지시간) 보도, 외교소식통들은 이어 IAEA가 영변 핵시설에 붙여놓은 봉인을 제거해달라는 북한측의 요청이 아직 없었다고 덧붙임.
 - 앞서 현학봉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19일 오전 판문점에서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복구 문제와 관련, “복구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나 같다”고 말한 데 이어 같은 날 외무성도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얼마전부터 영변 핵 시설들을 원상복구하고 있다”고 밝힘.

● **한미 6자 수석대표 21일 뉴욕서 회동(9/19, 연합)**

- 한국과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21일 오후 뉴욕에서 회동, 핵 검증 이행방안 등 현안에 대해 협의, 외교부 관계자는 19일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면서 “최근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복구를 본격화하는 북한의 동향과 핵 검증 방안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 **남북, 오늘 판문점서 6자 에너지실무협의를(9/19, 연합)**

- 남북한은 19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에서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지원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갖음. 북한측의 제안으로 이뤄지는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지난 7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맞춰 한·미·중·러 등 4개국이 10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중유 95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문제를 논의할 예정
- 이번 협의에는 우리측에서 황준국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북측에서는 현학봉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

나. 북·미 관계

● **北박길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행(9/18, 조선중앙통신)**

- 박길연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제6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18일 평양을 떠났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 촉구(9/1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7일 미국이 ‘북한 위협론’을 거론하며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평화보장체제가 수립되지 않은 것”과 관련된다며 미국에 대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

- 방송은 이날 '정세를 긴장시키는 것은 미국의 대조선 침략정책'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대화의 방법으로 저들의 목적을 이루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무력행사로 조선침략 야망을 실현하려는 것이 미 호전세력의 기도"라며 이 같은 전략에 입각해 미국은 "앞에서는 대화를 표방하고 뒤에서는 우리(북)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벌이며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같이 주장

다. 북·중 관계

● 인민일보 대표단 면담(9/18, 조선중앙통신)

- 노동당 김기남 비서와 김중린 비서는 18일 평양시내 만수대의사당에서 비서장 장덕수를 단장으로 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대표단과 류효련 부주석을 단장으로 한 중화전국부녀연합회 대표단을 각각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라. 북·일 관계

● 노동신문, '일에 식민지배 배상 요구'(9/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일본의 과거청산과 북·일 국교정상화를 골자로 한 '평양선언'(9.17) 6주년을 즈음해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
- 신문은 '과거청산을 떠난 일본의 앞날은 없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존엄과 자주적 권리와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이며, 일본의 재침 야망을 깨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첨예한 문제"라고 주장

● 北, "日, 평양선언 백지화"(9/17, 평양방송)

- 일본이 2002년 9월 17일 과거청산과 조속한 국교정상화를 골자로 발표한 북·일 평양선언을 "백지화" 하고 "반공화국(반북) 압살책동"에 열중하고 있다고 평양방송이 17일 비난
- 평양방송은 평양선언 6주년을 맞은 논평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앞으로도 일본이 계속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얻을 것이란 수치

스러운 파멸과 고립 배격뿐일 것”이라고 언급

- 평양방송은 북한이 평양선언의 이행을 위해 ‘납치문제’의 경우 “최대한의 인도적 성의”를 발휘했으나, 일본은 “평양선언 이행에서 기본이 되는 과거 청산 문제는 뒷자리에 미뤄놓고 본질상 다 해결된 납치문제를 들고 나와 반공화국 적대시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

마. 기타 외교 관계

● 北농민단체 대표단 베트남 방문(9/20, 조선중앙통신)

- 강창욱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중앙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농민 대표단이 베트남을 방문하기 위해 20일 평양을 떠났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네팔 정부 공보대표단 방문(9/20, 조선중앙통신)

● 北·라오스 ‘체육협조 양해문’ 조인(9/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내각의 체육지도위원회와 라오스 국가체육위원회가 18일 평양에서 ‘체육협조에 관한 양해문’을 조인,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북한측에서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이, 라오스 측에서는 방북 중인 푸통 생아킴 체육위원장이 참석해 양해문에 각각 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한과 라오스는 1974년 수교 후 경제 및 기술협조 협정(1974년), 항공 협정(1992년), 무역협정(1997년) 등을 체결했으며 지난 6월에는 북한 주 상성 인민보안상이 라오스를 방문해 통반 센가폰 라오스 내무장관과 사회안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 또 부아손 부파방 라오스 총리가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김영일 총리와 회담을 갖고 ‘경제·무역·과학 및 기술협조공동위원회 창설 협정’을 체결

● 유럽의회서 북한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9/17, 연합)

-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유럽의회 건물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

- EU의회 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인 글린 포드(영국) 의원과 야스 고론스키(이탈리아) 의원이 공동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북한 백호미술창작사 소속 화가들의 작품 약 40점이 전시됨.

※ 백호미술창작사는 만수대미술창작사와 함께 북한의 미술 창작활동을 이끄는 곳으로 특히 풍경화에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6일 오후(현지시각) 개막행사로 공식 막을 올린 이번 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계속됨.

3) 대남정세

● '10·4선언' 사업이행 하는데 14조3000억 원 비용 추산(9/18, 통일부)

-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10·4 선언의 합의 사업을 이행하려면 14조3000억여 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통일부가 18일 밝힘.

- 통일부는 또 자료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기반 조성, 경제협력 대가 등으로 재정과 민자를 합해 북한에 모두 3조 5000억 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밝혔음.

- 구체적으로 ▲식량 차관과 비료 무상 지원 등 인도적 지원 2조366억 원 ▲철도·도로 건설 차관, 개성공단 기반시설 등 경제 기반시설 조성 4,171억 원 ▲현대 포괄사업권(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대북 송금), 금강산 관광 비용,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등 민간기업 상거래 형식 10억3048만 달러(약 1조305억 원) 등임.

● 2008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 9.2%(9/18, 연합)

- 지난 7월까지 집행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올해 확보한 예산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18일 발간한 2007년도 통일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 올해 확보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1조2천745억여 원 중 지난 7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1천170억여 원으로 9.2%에 그침.

- 보고서는 저조한 예산집행의 이유를 “남북관계 경색의 영향”이라고 분석,

작년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은 66.7%로, 무상 남북협력사업 중 경제분야협력기반 조성 사업이 51.5%로 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음.

● **金통일, 민간 대규모 방북 허용 시사(9/18, 연합)**

-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8일 인도적 지원 뿐 아니라 사회문화교류 차원의 민간단체 대규모 방북도 허용할 방침을 시사
-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남북 민간교류와 관련, “금강산 사건 이후에 대규모의 대표단이 간다고 해서 국내 여론을 의식해 조금 연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한 데가 한두 군데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가시게 되면 웬만하면 허용을 할 것”이라고 밝힘.
- 김 장관은 이어 “지자체 교류는 허용을 한다”며 “북한이 고위 당국자간 접촉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고위인사 같은 경우는 여러 생각을 해보겠지만 다른 레벨의 교류에 있어서는 케이스를 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허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임.

● **전남 남북協, 평양에 제빵기계 지원(9/18, 연합)**

-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18일 오전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평양 발효콩 빵공장 설비기기 지원물자 환송식’을 개최, 이번 행사는 남북교류협의회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함께 최근 평양에 세운 발효콩 빵공장에서 사용할 제빵·제과기계를 북으로 보내기 위해 마련
- 발효콩 빵공장은 평양 만경대 인근에 총 6억 원을 들여 2층 규모로 세워지며 북측에 전달할 제빵·제과기계는 5t트럭 2대 분량으로 시가로는 5억5천만 원어치임.
- 협의회는 빵공장이 완공되면 11월까지 100여 명의 민간대표단을 평양에 보내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

● **강원대·평양과학기술대 교류협정 체결(9/18, 강원대)**

- 강원대는 북한에 세워지는 최초의 남북합작 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와 학술 및 실무교류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8일 발표, 평양과학기술대는 북한의 정보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사단법인인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 평양시 낙랑구역에 설립 중이며 내년에 개교할 예정

- 개성공단 中 小 “올해 생산액 51% 성장”(9/17,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는 17일 “남북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기존 업체들의 올해 생산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 성장했다”고 밝혔다.
 - 개성공단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성공단 내 한 업체가 조업중단을 하는 등의 문제는 개성공단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남북근로자 간 가치관 차이에서 기인한 사건”이라며 “소수의 부정적인 사례로 개성공단이 마치 문 닫는 것처럼 몰아 성공을 위해 피땀을 흘리고 있는 입주기업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언급

- 북한군 유해 판문점 통해 송환(9/17, 주한 유엔군 사령부)
 -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17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 유해 1구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발표

- 50만 달러 이하 대북투자, 보고서 제출 면제(9/17, 기획재정부)
 - 앞으로 북한에 50만 달러 이하 규모의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발표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9.22-9.28

9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언론 관계자, 김정일 와병설은 억측(9/23, 통일언론)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충한 조선기자동맹 부위원장은 2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우리 장군님(김정일)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수뇌부를 헐뜯고 비방하는 나쁜 여론”이라고 주장했다고 6·15 남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의 온라인 매체 ‘통일언론’이 보도
 - 조충한 부위원장은 개성에서 열린 6·15남측 언론본부 대표단과 북측 언론분과위 대표단 간 회담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심 가지지 마시라”며 김 위원장의 와병설을 일축, 그는 남측 언론 보도에 대해 “일일이 구태여 ‘사실이 아니다. 이렇다’ 고달프게 변명하고 말할 것도 없다”면서 “우린 정상적인 상태이다. (남측 언론에서) 억측에다 보태고 무슨 말을 하겠지만, 다 억측이다”라고 거듭 강조
- 北안경호, 남기관 건강이상설 유포…도발·불쾌(9/24, 연합)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안경호 서기국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최근 남쪽 기관이 언론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흘리는 게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이재규 부대변인은 안 서기국장이 23일 개성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장 회의에서 백낙청 남측위 상임대표를 만났을 때 이같이 말하고 “심지어 ‘작전계획 5029’로 (북한) 급변사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6·15정신에 입각하자는 것이 아니고 도발 아니냐.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고 24일 보도
- 김정일, 생모 사망일 맞아 화환 전달(9/2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이상설 속에서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22일 생모인 김정숙 사망 59주년을 맞아 대성산혁명열사릉 동상에 화환을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날 현지에서

열린 현화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음.

나. 정치 관련

● 한미 전쟁책동으로 한반도 긴장 팽팽(9/28,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11월 열리는 ‘호국훈련’에서의 한미합동상륙작전연습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의 북침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더욱더 팽팽해지고있다”고 28일 주장
- 민주조선은 “조성된 사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군의 기치따라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것이 정당했고 앞으로도 전쟁억제력을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런 것만큼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침략자들도 단매에 짓뭇개버릴 준비를 철저히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은 무력으로 우리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어리석은 기도를 버려야 한다”며 “만일 그들이 북침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지난 세기 50년대의 전쟁 때와는 비할 바 없는 강력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

● 北, 샤프 사령관 발언 비난(9/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월터 샤프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파견될 증원군의 신속 전개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미군의 남조선 영구강점을 노린 미제의 계획적이며 도발적인 책동”이라며 “우리에게는 정당방위를 위한 군사행동의 선택권이 있다”고 주장

● 김정일에 충성하는 혁명가 강조(9/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북한의 새 세대를 “강성대국 건설세대”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전 세대의 ‘혁명정신’을 계승할 것과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따르고 받드는 진짜배기 혁명가”가 될 것을 촉구
- 노동신문은 2면에 ‘전 세대처럼 살자’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을 싣고,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다”고 전제하고 “선대에 아무리 고귀한 피를 뿌

리며 혁명위업을 개척하였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전 세대의 혁명정신을 잇고 그것을 옹기 계승하지 못한다면, 날을 따라 고조되어야 할 혁명가의 정신력이 세월의 풍파 속에 쇠퇴하게 된다면 그 혁명은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강조

● 北, 한미 군사연습, 보고만 있지 않을 것(9/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대결과 전쟁으로 이어질 군사연습 소동의 위험성을 밝힌다’는 제목의 ‘군사논평원’ 글에서 한국과 미국이 크고 작은 합동 군사연습을 잇따라 벌이며 남한이 “전쟁연습의 난무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전쟁도발 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미국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동맹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강행하고 있는 모든 북침전쟁연습 소동”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평화적인 특대형 범죄행위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대결과 전쟁으로 온 민족이 다 사라지고 온 강토가 폐허로 된 다음에는 지금 떠들고 있는 상생과 공영은...이 세상에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 개성공단사업은 민족공동 재부 창조(9/27,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시 노사갈등 발생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거듭 비난하면서 개성공단사업은 “어느 일방의 이익이나 손해가 아니라 북과 남이 손잡고 민족공동의 재부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
- 신문은 개성공단사업이 “어느 일방의 이익이나 손해가 아니라 북과 남이 손잡고 민족공동의 재부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런 사업에도 남쪽에서와같이 이윤 추구만을 목적하는 기업관리방식을 적용하려 하는 것은 민족과 통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돈밖에 모르는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 통일신보는 이어 “기업체들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이 노동자들의 삶이고 민족의 통일사업”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

● **北농촌 추수 한창, 인력 총동원(9/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각지 농촌에서 벼 가을(추수)이 시작됐다”면서 “벼 가을에 제일 먼저 들어선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가을과 운반, 탈곡, 포장 등을 입체적으로 벌여 나갈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 밑에 시작부터 벼베기 실적을 올리며 일정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

● **北, 생필품 전시회 개최(9/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양에서 인민소비품(생필품) 전시회가 26일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전시회에는 경공업 공장과 중앙기관 산하 공장, 도별 지방산업 공장에서 출품한 천과 신발, 일용품, 식료품, 가구류 등이 전시됨
- 행사 기간에는 제품 품평회와 제조 기술을 주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예정돼 있다고 통신은 보도, 허태권 경공업성 부상은 개막사에서 “노동당의 뜻을 받들고 경공업부문의 공장·기업소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수많은 단위들이 소비품 생산에서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고 언급

● **北고려항공 전세 직항편, 싱가포르 첫 취항(9/26, 자유아시아방송)**

- 고려항공 특별 전세기가 9월 17일 사상 처음으로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서 싱가포르 관광객들을 태우고 이튿날 평양공항으로 돌아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싱가포르의 북한 전문여행사인 ‘유니버설 관광’을 인용해 보도
- 이번 북한 고려항공의 싱가포르 직항편은 북한과 싱가포르가 지난 7월 북한 정권 수립 60돌을 기념해 9, 10월 정기적으로 전세 직항기를 운항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며, 직항기는 10월 2일까지 모두 8차례 운행된다고 RFA는 보도

● **北 평양국제상품전 EU기업 참가 증가(9/25, 조선신보)**

-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는 유럽연합(EU) 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이 전람회에 참가한 EU 기업들은 2007년 가을철전람회 8개, 2008년 봄철전람회 17개에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린 2008년 가을철전람회엔 23개로 증가

- 평양시내 3대혁명전시관 새기술혁신관에서 열린 이번 전람회에는 북한 기업 40여개와 외국기업 및 참관단 110여개가 참가했음.
- 북한과 유럽 기업간 교량역할을 하는 유럽기업협회 회장인 나이젤 카위 대 동신용은행 총재는 EU기업의 참가가 증가하는 것은 “협회의 착실한 활동에 힘입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

● 北, 전력증산 위해 발전소 설비보수 주력(9/22, 9/25,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5일 압록강의 수풍발전소(평북 삭주군)가 설비 기술개조를 전력증산의 중요한 방안으로 설정해 1, 2호 발전기의 기계유압식 조속기(調速機, 기관의 회전속도를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는 제어장치)를 능률이 높은 숫자식(디지털식) 전기조속기로 개조하는 것 등을 통해 전력을 증산하고 있다고 보도
- 평양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평양화력발전소(평양시 락랑구역)는 지난 7월 1호 보일러 보수공사를 마친 데 이어 3호 보일러를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2일 보도
- 북한은 새로운 발전소 건설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예성강발전소를 비롯해 원산청년, 어랑천, 영원, 금야강, 백두산 선군청년, 금진강구창발전소 등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의 조기완공을 위해 내각 건재공업성 간부들을 현지에서 파견, 기술지도를 강화중임.

● 佛라파즈, 북한 시멘트공장 투자 확대(9/25, 자유아시아방송; 9/24, 조선중앙통신)

- 이집트 오라스콤사로부터 평양 인근의 상원시멘트공장 지분을 넘겨받은 프랑스 시멘트업체 라파즈사는 대북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라파즈의 클레어 매튜 공보담당이 25일 발표, 인터뷰에서 “라파즈는 북한 시멘트공장의 설비를 최신 것으로 바꾸고 기계와 시설투자도 더 늘릴 것”이며 “2010년까지(상원시멘트의) 연간 생산량을 300만t 이상으로 늘릴 것”이며, “라파즈는 북한의 시멘트공장 지분은 물론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석회석 산과 탄광의 채굴권도 함께 넘겨받았다”면서 “북한의 광물 생산과 전력 부분에 대한 투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
- 오라스콤은 2007년 7월 상원시멘트 지분 50%를 갖는 대신 1억1천5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으나 그 이후 전 세계에 있는 자사의 시멘트 계열사를 모두 라파즈에 넘김.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라파즈의 브루노 라퐁 사장과 오라스콤의 나세르 사위리스 사장을 면담함으로써 북한 당국이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간 지분인도·인수를 환영하는 입장을 시사함.

● **노동신문, 우리도 쿠바처럼(9/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자기의 힘으로 재난을 가시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의 신세를 지고 얽매여 눈치를 보며 사느니 좀 품이 들어도 제힘으로 일떠서는(일어서는) 것이 떳떳하고 옳은 행동"이라고 주장

● **北, 경제과제 달성 "총력투쟁" 촉구(9/23,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23일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제목의 사설에서 정권수립 60주년(9.9)을 계기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자랑찬 성과"가 마련됐다면서 연초 공동사설(신년사)에서 제시된 경제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강조
- 노동신문이 "지금이야말로 전체 인민이 전후 빈터 위에서 사회주의 강국으로 비약하던 천리마의 정신, 고난의 행군의 엄혹한 시련을 맞받아 헤치며 낙원의 길을 열던 대담한 공격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즐기찬 투쟁"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신문은 이어 "농업생산을 빨리 늘려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강성대국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며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가을걷이와 낱알 털기를 제때 끝낼 것과 내년도 농사준비를 실속있게 할 것을 강조
- 또 "강력한 군력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제일기둥"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강성대국 건설의 승리가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 北주민들, 美의 식량지원 인지(9/22,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방북했던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난주 미 의회측과 간담회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미국의 식량 지원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

라. 사회·문화 관련

● 北에도 주택거래 암시장 활발(9/28, 립진강)

- 북한에서 당국의 주택 무상공급 능력 부족으로 주택공급 체계가 무너지기에 따라 부동산 암시장이 가동 중이며, 주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통의 편리성, 시장과 거리는 물론 인근 주민 수준, 텃밭의 크기 등에 따른 가격홍정을 거쳐 사고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에 있는 탈북난민이나 월경자 등을 활용해 북한 내부소식을 전하는 격 월간지 '립진강'은 최근 발간한 통권 제3호에서 자사 기자인 리준(가명) 씨가 북한의 주택 암거래 실태를 잘 아는 북한 주민이라며 그의 설명을 통해 북한의 주택 암시장 실태를 상세히 소개
- 리 씨에 따르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 주택을 서로 교환하거나 직장 구내에 있는 살림집을 얻으면서 집을 팔려고 하는 경우 등에 주택의 '사용권'이 암거래 됨. 암시장에선 교통편리 정도, 장마당과 거리, 장사관련 편의성, 수도 및 전력 공급 상황 등이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주며 그 다음으로 건물의 노후 정도, 내부 구조, 텃밭의 크기, 주민 수준 등도 가격 결정 변수들 임. 이 때문에 북한돈 35만 원에 거래된 집이 1년 뒤엔 300만 원으로 폭등하기도 하는 등 매매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리기도 함.
- 다만 북한에서 이러한 주택거래 계약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날릴 위험이 있는 구매자는 시·군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집문서인 '국가주택이용허가증'에 기재된 집주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을 비롯해 뒷탈이 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킴. 이렇게 위법한 거래를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한 복잡한 매매 절차를 대행할 필요성과 함께 주택 매물 정보시장의 필요성에서 도시경영과나 보안서(경찰서), 재판소 직원과 연줄이 있는 '집테크'라고 불리는 일종의 부동산 중개인도 존재

● **北선박, 불가리아 해역서 침몰(9/27, 러시아 교통부)**

- 북한 선박 한 척이 불가리아 해역에서 침몰했다고 러시아 교통부가 27일 밝힘. 교통부는 “침몰한 선박에는 러시아 명칭이 붙어있지만 러시아 소속이 아니라 북한 선적”이라면서 “승무원들도 러시아인들이 아니다”라고 밝힘.
- 이 선박에는 12명의 우크라이나인과 1명의 러시아인 등 13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침몰한 선박은 톨스토이호로, 이 선박은 북한 인공기를 달고 지난 21일 출항해 에게해의 터키 항구로 항해하던 중으로 사고 당시 해역에는 폭풍우가 몰아침.

● **北김책공대 개교 60주년 기념행사 개최(9/27, 조선중앙방송)**

- 북한 이공계열 종합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 개교 60주년을 기념한 보고회가 26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보도
- 보고회에서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대학의 교직원·학생들에게 보내는 당 축하문을 통해 이 대학이 “과학기술교육의 최고 전당으로, 과학기술 핵심 골간 육성의 원종장으로 강화 발전돼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면서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
- 보고회에는 김영일 내각 총리와 리광호 당중앙위 부장, 김용진 교육상, 변영립 국가과학원장 등 고위 당·정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최 비서의 축하문 전달에 이어 홍서헌 총장의 기념보고가 이어짐.

● **평양국제영화축전 폐막...중영화 '집결호' 최우수상(9/26, 조선중앙통신)**

- 제11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중국영화 '집결호'(集結號:Assembly)를 최우수영화로 선정하고 26일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폐막, 축전에서는 '집결호'가 최우수영화상을 비롯해 연출상과 기술상 등 3관왕을 차지했으며 영국영화 '어톤먼트'(Atonement)가 촬영상과 미술상을, 이란영화 '주선'은 문학상을 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중앙동물원, 관객친화형으로 탈바꿈(9/26, 조선중앙통신)**

- 평양에 있는 북한 최고의 동물원인 중앙동물원이 관람객들에게 다가가는 '관람친화형'으로 탈바꿈, 그동안 이 동물원에서 사육되며 관람객에게 공

개된 동물들은 작은 공간 속에서 철조망에 갇힌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넓은 공간 속에서 야생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보도

● 北, “군인 굶는다” 애국미 헌납운동(218호, 오늘의 북한소식; 9/26, 연합)

-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 최근엔 행정관청이 “군인들이 굶는다”며 ‘애국미’ 바치기를 적극 독려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주장
- ‘오늘의 북한소식(218호)’에서 평안남도 평성시당이 애국미 바치기를 위한 사업 추진을 결의한 뒤 각 구역당 회의를 통해 “만약 세끼를 먹었다면 두끼만 먹고 한끼 식량을 바치도록 하면 된다”며 각 책임자가 직접 쌀 마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식량을 걷기로 했다고 보도

● 北 보건의료 ‘메카’ 평양의대 60돌(9/26, 조선중앙방송)

- 북한 보건의료의 ‘메카’인 평양의학대학이 창립 60돌을 맞아 25일 평양시 내 청년중앙회관에서 기념보고회를 가졌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보고회에서 최태복 노동당 비서는 교직원과 학생에 보내는 노동당 축하문을 통해 평양의대가 “우리나라(북한) 보건기술 인재양성의 원종장으로, 주체의학 교육의 믿음직한 종합적 기지로 강화 발전되어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했다고 평가

※ 평양시 중구역에 있는 이 대학은 1946년 10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 의학부로 발족했다가 1948년 9월 28일 평양의학대학으로 독립해 의학부, 약학부, 위생학부 등 3개 학부를 설치, 1960년에는 남한의 한의대에 해당하는 고려의학부도 신설, 1948년 10월 김일성종합대 부속병원이 평양의대병원으로 개편됐으나 평양의학대학과 별도로 운영되다가 1979년 1월 통합되면서 평양의대는 학생 교육과 환자치료, 질병예방, 과학연구 등 북한의 보건의료 전반을 이끌어가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함.

● WFP, 北에 지원한 中분유 조사(9/25,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이 2007년 1월 북한에 지원한 중국산 탈지분유 300t이 영양과자, 국수 등으로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등에게 공급된 것으로 확인돼 WFP가 현지조사에 들어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

WFP는 북한에 지원한 유제품이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중국의 22개 업체에서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지만 멜라민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북한에 중국산 탈지분유 가공품이 남아 있는지를 조사 중임.

- 그러나 폴 리슬리 대변인은 “중국산 탈지분유 300t은 이미 WFP가 북한 주민에게 제공하는 식품으로 모두 가공 처리됐다”면서 “남아있는 가공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해야 하는데 이게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보도

● 학위수여제 수립 60주년 보고회(9/25, 조선중앙통신)

- 국가학위학직 수여제도 수립 60주년 보고회가 2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행사에는 광범기 내각 부총리와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

● 정권 수립 60주년 전국의학과학토론회 개최(9/25, 조선중앙통신)

- 정권 수립 60주년 전국의학과학토론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다고 중앙통신이 보도, 이번 토론회는 외과, 내과, 고려의학, 약학, 위생방역학, 기초의학 등의 분과로 나뉘어 열렸으며 370여건의 의학과학논문이 발표됨.

● 평양연극영화대학, 특수촬영학과 신설(9/25, 조선신보)

- 북한 연극·영화인 산실인 평양연극영화대학이 최근 화상기교학과, 영화음향학과, 영상가공학과 등을 신설해 특수촬영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WFP 평양사무소장 10월 교체(9/25, 미국의소리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은 장 피에르 드 마저리 평양사무소장을 10월 토빈 듀씨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5일 보도, 덴마크 출신의 듀씨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후 바그다드사무소장으로 2천 700만명의 이라크 국민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WFP 사상 최대의 긴급 구호 활동을 지휘했었고, 최근까지 WFP 로마 본부에서 국가별 계획과 식량배급 문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관리국장을 지냄.

- WFP 평양사무소장은 평양 외에도 청진, 함흥, 해주, 혜산, 원산 등의 현장 사무소를 총괄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北, 재투입 핵물질은 '사용후 연료봉'(9/28, 연합)**
 - 북한은 영변 재처리시설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핵물질이 사용후 연료봉임을 분명히 했던 것으로 28일 알려짐.
 - 북한은 9월 24일 영변에 머물고 있는 IAEA 검증팀에게 '일주일 내 재처리 시설에 핵물질을 투입하겠다'고 통보했지만 핵물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었음. 북한이 핵시설을 복구하기 시작한 지 한달도 안돼 사용후 연료봉을 재처리시설에 투입, 재가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안전점검과 테스트 등에만 수 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당장 재가동에 들어가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해 왔음.
- **힐, 30일 방한...한미 북핵수석회의 개최(9/28, 연합)**
 -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을 앞두고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30일 개최됨.
 - 힐 차관보는 30일 방한, 30일 저녁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방북에 앞서 검증체계 구축에 대해 북한을 설득할 방법을 사전조율할 것으로 28일 알려짐. 힐 차관보는 10월 1일이나 2일께 방북할 예정
- **北,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대응조치(9/28, 연합)**
 - 북한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27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합의 사항을 어긴 상황에서 최근 우리는 부득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힘.

- 박 부상은 “그동안 우리는 6자합의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핵 시설의 무력화가 다각 단계에서 추진되었고, 핵신고서도 제출됐으며 핵 시설의 폐기 단계에서 하게 될 조치들까지 앞당겨 취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어떤 합의에도 없는 국제적 기준의 사찰과 같은 부당한 요구들을 들고 나오면서 인위적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
- 그는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가 테러지원국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 선언하고도 검증 문제를 이유로 명단 삭제를 연기한 것은 그 명단이라는 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테러와 관련된 명단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검증은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 단계에서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라고 주장
- 또 “최근 북남 관계가 6·15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정권이 출현하여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역사적 북남 선언들이 남조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 정부를 겨냥하여 비난

● IAEA사무총장, 對北 제재보다는 협상 필요(9/27, 연합뉴스)

- 북한이 핵불능화 선언을 뒤집고 핵시설 재가동을 위협하면서 일부에서 대북(對北)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제재 일변도보다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모하메드 엘바라데이(IAEA) 사무총장이 26일 지적, 그는 “외교는 휘젓기만 하면 녹는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다”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고,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언급
- 엘바라데이 총장은 이어 “(당근과 채찍 중) 한가지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면서 특히 제재만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

● 北 핵시설 재가동하면 지원 중단(9/25, 외교부)

-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24일 “북한의 핵 재처리 시설 가동은 2006년 10월 핵 실험 이후와 2007년 2·13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는 유효하다”고 언급
- 유 장관의 이 발언은 북한이 핵 재처리 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경우 현재 ‘휴면(休眠) 상태에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적용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임. 북한이 핵 실험한 직후인 2006년 10월 14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모든 유엔회원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금융자산 동결 ▲민군(民軍) 이종 용도 물품과 사치품의 수출 금지 ▲WMD 관련 북한 관계자들에 대한 입국 거부 등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北, 영변 핵봉인 제거(9/22, 로이터 통신)

-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가동 중단을 감시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설치해놓은 봉인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짐. 모하메드 엘바라데이(ElBaradei) IAEA 사무총장은 2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IAEA 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이 오늘 아침(22일) IAEA의 사찰관들에게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에서 핵 물질과 관련 없는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며 봉인과 감시 장비 제거를 요구했다”며 “북한이 불능화가 진행되던 시기에 제거됐던 일부 장비들을 원상 복구시킨 것을 사찰관들이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로이터는 IAEA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고위 외교관을 인용해, “핵 봉인이 이미 제거됐다”고 말했다고 보도

나. 북·미 관계

● 美, 對北 중유 공급 중단 아직 고려 안해(9/26, 로이터 통신)

-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북한의 핵프로그램 재가동 움직임과 관련, 대북 중유 공급 중단 같은 조치들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라이스 장관은 로이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단계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국무부가 전언

다. 북·중 관계

● 北, 中창건 59돌 기념 연회(9/27, 조선중앙방송)

- 중국 창건 59돌을 맞아 북한의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북중 친선협회 중앙위원회가 26일 평양 청류관에서 기념 연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보도

- 연회에는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대사와 전 주북 대사인 우둥허(武東和) 중·북 우호협회 회장, 방북 중인 중·북 친선 흥성농장대표단, 중·북 친선의료단 등이 초대됐고, 북한 측에서는 북·중 친선협회 중앙위원장이 최창식 보진상과 김진범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함.
- 참석자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건강을 축원하며 “조(북)·중 친선의 끊임없는 강화 발전을 위해 잔을 들었다”고 방송은 보도

라. 북·러 관계

- 北라진-러 하산 철도현대화 공사 10월 3일 시작(9/24, 러시아의 소리방송)
 - 북한의 라진항과 러시아의 하산역을 잇는 철도구간의 현대화 공사가 10월 3일 시작된다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이 24일 보도
 - 방송은 “조선(북)의 라진항과 러시아 국경지역인 연해변강의 하산역 사이의 철도구간 현대화가 10월 3일에 시작”되며 “쌍방은 하산-라진 철도구간 현대화와 라진항 부두건설, 하부구조(인프라) 운영을 내포하고 있는 하산-라진계획을 공동으로 실행하기로 합의하고 합영기업을 창설했다”고 보도
 - 방송은 “이 계획실행의 첫 단계에서 8만대까지의 짐함(컨테이너), 즉 한국과 유럽 사이의 짐함수송의 10~15%를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수송할 수 있다”며 “라진-하산 철도구간 현대화와 부두건설계획에 대한 투자액은 1억4천만유로에 달한다”고 덧붙임.

마. 북·일 관계

- 北·日, 유엔총회장서 한바탕 설전(9/27, 연합)
 - 북한과 일본이 27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유엔총회장에서 한바탕 설전을 벌임.
 - 박 부상은 총회 연설에서 “조일 관계 문제가 반세기 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기본 원인은 일본이 희대형 범죄로 얼룩진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지 않는데 있다”며 “아시아 나라들을 강점하고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

- 살한 침략역사를 미화하고 있고, 오늘도 조선의 신성한 영토를 강탈하려고 하고 있는 유일한 전망국인 일본은 절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을 정면으로 공박
- 기조연설이 끝나자 일본측 대표인 기로 코데라 일본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발언권을 얻어 “북한 대표의 발언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은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과거를 직시하고 있다”고 반박, 2차 대전 후 수차례 사과와 참회를 표명했으며 과거사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고 주장
 - 그러자 박덕훈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가 나서 “일본 대표의 발언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꾸려는 것”이라며 “평양선언 이후 북한은 진정성과 관대함을 가지고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실종 일본인 조사를 해 5명의 일본인과 그 가족을 돌려 보냈으며, 최근에도 실종 일본인 조사에 동의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 범죄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적절히 보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일본 대표는 참회한다고 하면서 과거사를 왜곡하고 있고 2007년 3월 당시 일본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공박

● 日, 대북 제재 6개월 연장 방침(9/27, NHK)

- 일본 정부가 9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6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고 NHK가 27일 보도
- 이는 북한 핵 문제 및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데 따른 것임.
-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따른 대응 조치로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품목 수입 금지, 모든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을 담은 독자적인 대북 경제 제재를 부과, 2006년 10월 처음 부과된 대북 제재 연장은 이번이 4번째가 됨.

바. 기타 외교 관계

● 北, 케냐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9/28,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케냐 공화국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8일 보도
-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중인 박길연 외무성 부상과 케냐의 모시스 웨탕굴라 외교장관은 9월 26일 양국 외교관계 설정에 대한 코뮈니케에 서명
- 조선중앙방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는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적, 국제법, 1961년에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과 1963년에 체결된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부합되게 본 공동 코뮈니케를 서명한 날부터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다”고 양국간에 체결된 코뮈니케 내용을 소개

● 北·쿠바, 경제교류 의정서 체결(9/26,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쿠바가 26일 경제교류와 관련한 두 건의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보도
-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쿠바 정부사이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회 제27차 회의 의정서와 2009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가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밝힘.
-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리용남 무역상이, 쿠바측에서 호세 마누엘 몬타노 북한 주재 대사가 각각 참석했으며 이들은 의정서에 직접 서명

● 北김영남, 베트남 軍대표단 면담(9/25,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레 반 중 총정 치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베트남 군 대표단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 상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일 동지와 농 득 마잉 동지의 깊은 관심 속에 조선과 베트남 사이의 친선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될 것”이라고 언급
- 베트남 대표단은 이날 만남에 앞서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

궁전을 참배하고 대성산혁명열사릉에 헌화했으며 방북기간 만경대와 주체사상탑, 개선문, 평양지하철도, 푸에블로호 등을 둘러보고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관람

3 대남정세

● 北, 군사 실무회담 개최 제의(9/26, 국방부)

- 북한이 25일 군사실무회담을 전격 제의하고, 우리측이 이에 응할 태세여서 조만간 남북 간 군사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임.
- 북한측의 군사실무회담 제안은 특히 최근 북측이 서해 상공에서 비행활동을 대폭 늘려 우리 군 당국도 대응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북한측은 평소 하루 5~6회 정도 공군기가 휴전선 부근까지 남하했다가 되돌아가곤 하던 것을 2주 전부터는 하루 20회 정도로 부쩍 늘린 것으로 전해짐.
-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25일 오전 남북 군사통신 채널을 통해 ‘오는 30일 남북 군사 실무회담을 열어 지금까지 (남북 군 당국간)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함에 따라, 정부 관련 부처가 북측 제의의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고 26일 발표, 국방부는 10월 2~3일쯤 회담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통일부, 2개 단체 대규모 방북 승인(9/27, 통일부)

- 정부가 2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각각 100명 이상의 대규모 방북을 예정하고 있는 2개 민간 단체의 방북 신청을 26일 오후 승인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민간단체인 평화3000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인도적 지원 목적의 북한 방문을 승인했다”고 발표
- 111명의 방북단을 보내는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방북기간 평양 삼석구역 통일양묘장 착공행사를 참관하고 묘향산과 백두산을 관광할 예정, 또 평화3000은 120명 규모의 방북단을 보내 평양 두부공장과 콩우유공장 등 지원 사업장을 모니터링 할 예정

● **李대통령, 남북, 솔직한 대화로 공동발전해야(9/26, 이타르타스통신, 이즈베스티야, 러시아TV)**

-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남북은 상대를 어떻게 무력으로 포기시키느냐가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면서 아주 솔직한 대화를 통해 공히 발전해야 한다”고 언급, 이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는 지금 새로운 차원에 들어간 것 같다”고 진단한 뒤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가장 큰 관건은 북한의 핵을 어떻게 포기시키느냐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남북은 어떠한 협력을 해야 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할 절대적 이유가 있다”고 강조

● **15년간 국군포로 74명 탈북(9/27, 통일부)**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27일 통일부에서 입수한 ‘국군포로 탈북 귀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4~2008년 탈북해 귀환한 국군포로는 모두 74명으로 집계됨.
- 연도별로는 1990년대에는 연간 1~4명에 그쳤으나 2000년 9명, 2004년 14명, 2005년 11명, 2006년 7명, 2007년 4명 등으로 200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남.

● **개성공단·금강산 인명사고 389건(9/25, 연합뉴스)**

- 소방방재청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윤석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북한지역 인명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업 실시 이후 8월 말까지 개성공단과 금강산에서 각각 364건과 25건의 인명사고가 발생, 개성공단에서 6명, 금강산에서 15명의 한국인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 개성공단의 경우 지난 2004년 12건이었던 인명사고는 2005년 33건, 2006년 102건, 2007년 131건으로 꾸준히 늘어났고, 올해 8월말까지만 86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 이로 인한 한국과 북한측 사상자는 각각 223명과 141명이었으며, 사망자는 각각 6명과 9명이었음.
- 사고 유형별로는 산업재해가 30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통사고 43건, 형사사건 11건 등 순임.

●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정상선언 1주년 공동행사 무산(9/24, 연합뉴스)**

- 23일 개성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장 회의에서 남북정상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 개최 방안을 협의했으나 북측이 빠듯한 일정 등의 여러 어려움을 들어 공동행사가 무산돼 지난 8·15행사와 마찬가지로 남북이 각각 열기로 결정, 이에 따라 남측위는 9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념토론회를 열고 10월 4일에는 서울에서 '1004열차'를 타고 임진각에서 기념식을 갖는 프로그램을 준비, 남측위는 11월 중순 중국 선양(瀋陽)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 위원장회의를 개최할 계획

● 8월 개성 관광객 전월 대비 36% 감소(9/24, 연합)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의 영향 등으로 지난 8월 개성 관광객이 전월에 비해 35.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8월중 개성 관광객은 7천447명으로, 7월 1만1천607명에 비해 35.8% 줄어들었음. 7월에는 6월(1만2천161명) 보다 개성관광객이 4.5% 감소
- 대북 관광객 및 금강산 면회소 건설과 관련한 체류인력, 개성공단 방북인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북한 방문 총인원도 1만2천715명으로 7월에 비해 32.4% 감소, 2007년 7월에 비해서도 6.9% 줄어듦.
- 남북교역액은 1억6천276만6천 달러로 2007년 8월에 비해 6.1% 증가했으나 7월에 비해서는 9.9% 감소, 특히 대북 지원액은 518만9천 달러로 2007년 8월에 비해 86.3% 감소

● 北, 올해 NLL 침범 21차례(9/24, 연합)

- 2008년들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21차례 침범한 것으로 나타남. 국방부는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북한 선박의 서해 NLL 침범 횟수는 경비정에 의한 침범이 7회, 어선과 전마선(무동력선) 등에 의한 침범이 각각 8회, 6회라고 밝힘. 우리 군은 북한 선박의 NLL 침범에 대해 모두 '경고통신'으로 대응했다고 국방부는 설명

● 北관계자 “南 일방선언식”에 불만 표시(9/23, 연합)

-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의 이충복 부위원장은 남측 방북단과 간담회에서 남북관계와 관련,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속 이행해 나가겠다

는 남측의 입장 표명이 제일 중요하다”며 “두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남측의 근본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 이 부위원장은 9월 20일 방북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방북단 대표 6명과 22일 가진 간담회에서 또 “이명박 대통령을 후보 시절부터 지켜봐 왔는데, 남측 정부는 진심이 없다”며 “우리과 아무런 얘기도 없이 중요한 문제를 무슨 선언하듯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남측 관계자들이 23일 전언
- 이 부위원장은 거듭 “양측 수뇌(정상)가 합의한 대로만 하면 된다”며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키고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경찰청, 관리 친북 사이트는 모두 76개(9/23, 연합)

-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해외 친북사이트가 모두 76개,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범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 친북사이트 현황’에 따르면, 서버를 미국에 둔 친북사이트가 31개, 일본 19개, 중국 13개, 독일 4개, 기타 나라 9개 등임.
- 특히 일부 친북사이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북한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북센터·○○조선음악·○○대학교·○○은행·○○바둑·○○관광 등의 위장용 이름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남.
- 경찰청은 또 노무현 정부 출범(2003년 2월) 이후 지금까지 친북 관련 게시물이 게재된 포털 등에 대해 모두 6,377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권고했다고 밝힘. 연도별로는 2004년 1,010건, 2005년 1,238건, 2006년 1,388건, 2007년 1,434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모두 1,035건을 삭제 요청 또는 권고 조치함.

●李大통령, 남북간 기존합의 정신 존중(9/22, 연합)

-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선언,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그간의 모든 남북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 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에서 홍종길 부의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의 전면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북한은 남북 상생·공영을 위해 즉각 대화에 나

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

● 통일부 차관, 대북 자재 지원 10월 중순까지 관망(9/22, 연합뉴스)

-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22일 북한 핵시설 불능화 중단 및 원상복구 착수에 따른 대북 상응조치 이행에 대해 “10월 중순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힘. 홍 차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현 상황에서는 대북 에너지·자재 지원 문제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소개한 뒤 “자재 생산이 10월 중순이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두고 봐야겠다”고 답변
- 정부는 현재 불능화에 대한 상응조치 차원에서 북에 제공기로 합의한 설비·자재 중 미제공분인 자동용접강관 3천t 중 1천500t의 생산을 마쳤고 다음 달 중순까지 나머지 1천500t을 생산할 예정임.
- 홍 차관은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 “이미 밝힌 바 대로 인도적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원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시기, 규모, 방식에 관해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답변
- 또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대북 재정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정부 출범 때 이야기했고, 납북자의 가족들을 위한 재정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고 소개
- 그는 또 작년 남북정상회담 합의(10·4선언) 이행에 14조 원이 들어간다는 통일부의 내부 추정 결과에 대해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북한 당국과 만나 협의를 통해 사업범위, 사업기간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숫자는 추정치이고 개략치에 불과하다”고 언급

● KBS, 7년간 남북방송교류에 189억 원 투자(9/28, 연합뉴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28일 “KBS가 지난 2000년 이후 7년간 남북방송교류사업에 총 188억8천200만 원을 투자했다”고 밝힘.
- 최 의원이 이날 KBS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남북방송교류사업 현황’에 따르면 KBS는 남북방송교류사업에 2000년 44억7천600만 원, 2001년 46억5천만 원, 2002년 46억1천200만 원, 2003년 23억5천만 원, 2004년 6억6천만 원, 2005년 이후 21억3천400만 원 등을 사용

- 특히 남북방송교류사업 투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집중됨.. 전체 188억8천200만 원 가운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 투입된 금액은 72.7%에 해당하는 137억3천800만 원이었으며 참여정부 시절에는 51억4천400만 원에 그침.
- 세부 투자항목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 한해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 및 특별기획 등 2건에 18억4천700만 원의 제작비용과 함께 TV 2만 대(25억6천900만 원), 취재용 차량 3대(6천만 원) 등을 현지 제작비 개념으로 사용했고, 2001년에는 5건의 특집 프로그램 기획 등에 46억5천만 원을 투입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9.29-10.5

9월
5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러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51일만에 축구관람(10/4, 조선중앙통신)
 - 와병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62주년을 맞아 김일성종합대학팀과 평양철도대학팀 간 축구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8월 14일 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이후 51일만임.
 -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리재일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과 관계부문 일꾼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관람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관람 일시와 장소는 언급하지 않음.
 -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의 대학생들을 높은 실력과 튼튼한 체력을 갖춘 쓸모있는 인재로 키우는 것은 주체혁명 위업 완성과 부강조국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며 대학의 교육교양과 체육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고 통신은 소개
- 北, 김정일 공개활동 반복 보도(10/4, 조선중앙통신; 10/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 조선중앙통신이 4일 오후 10시 25분 ‘건강이상설’ 속에 잠적해 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축구경기 관람 소식을 처음 보도한 이후 북한 매체들은 5일 오전, 이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
 - 조선중앙방송은 5일 첫 뉴스 시간인 오전 6시 김 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62주년을 계기로 열린 대학생 축구경기를 관람한 소식을 전한 데 이어 정규 뉴스 시간인 오전 7시와 10시에 이를 다시 송출, 평양방송도 첫 뉴스 시간인 오전 7시 경기관람 소식을 보도한 이후 오전 8시와 10시에 각각 반복 보도
 - 방송들은 중앙통신의 4일 보도내용과 마찬가지로 관람 일시와 장소 등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으나 “김정일 장군님을 한 자리에 모시고 경기를 보게 된 참가자들의 가슴기쁨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하여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고 보도

- 위성으로 중계하는 조선중앙TV는 일요일인 5일 오전 9시 13분께 김 위원장의 경기관람 소식을 전했으나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내보내지는 않은 채 아나운서 멘트로만 관련 소식을 내보내는 데 그침.

● 北, 김정일 삼복철 시찰 ‘피로’ 부각(10/2, 노동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이상설 속에 2일로 49일째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신문이 이날 ‘인민이여 천만년 잊지 말자!’라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을 통해 김 위원장의 7~8월 현지지도 등 공개활동을 “하늘이 놀라고 삼복이 머리숙인”, “초인간적” 행보, “현신의 영웅신화” 등으로 치장하며 집중 부각시킴.
-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올해 정초 “눈보라 강행군”으로 현지지도의 첫 걸음을 뗀 후 “한 여름의 무더위를 헤치며 삼복철 강행군”을 단행했다면서 “7월과 8월의 60여 일간” 시찰한 단위는 30여 개이고, 초복부터 말복까지 20여 일간 시찰 거리는 1만여 리가 된다고 소개
- 신문은 말미에 “원수들은 조선이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또한 조선이 번영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온갖 부닥치는 난관을 이겨내고 더 높이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내달려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강행군 발걸음에 보폭을 맞춰” 강행군을 하자고 주민들에게 호소

나. 정치 관련

● 北, 10·4 한돌 ‘이행’ 위한 ‘연대’ 주장(10/4, 민주조선; 노동신문)

- 민주조선은 ‘한해동안의 사태와 그 교훈’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1년이 되도록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은 진척되지 못하고 북남관계는 과거로 후퇴했으며 관계개선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급속도로 진전되던 10·4선언의 이행과정은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된 후 완전히 정지됐다고 주장
- 노동신문도 ‘북남 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역

사적인 북남선언들을 무시하고 그 이행을 거부하는 반민족적 책동으로 북남대화들이 중단되고 협력사업들에 차단봉이 내려졌으며 북남관계는 6·15 이후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고 언급

- 민주조선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이행’ 요구에 이명박 정부가 ‘과거 모든 남북간 합의 정신의 존중과 이행’으로 답하는 데 대해 “10·4선언을 지난날의 북남 합의문건들과 한 데 뒤섞어 논의하지는 소리도 하고 전면적 대화도 들고 나왔지만 그것은 여론을 호도해 북남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을 모면하려는 오그랑수(꼼수)”라고 주장

● 北 양형섭, 10·4선언은 북남관계발전 행동지침(10/3, 조선중앙통신)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해 북남관계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의 공동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포괄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며 실천강령”이라고 강조
- 양 부위원장은 3일 평양에서 열린 ‘2007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보고회 보고를 통해 “10·4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확대 발전시키며 다방면적인 협력사업도 적극 벌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언급
- 그는 이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통하여 이룩한 훌륭한 결실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를 공고히 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역설한 뒤 “6·15민족공동위원회를 확대 강화하며 북·남·해외의 3자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을 주장
- 또 이날 단군릉 앞에서는 북한의 강철원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부회장이 개천절 기념행사 보고자로 나서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면서 그 성과를 말살하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
- 개천절 기념행사에서는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오익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강련학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군제’가 진행

● 北교육성, 南 역사교과서 개악이라고 비난(10/3, 교육성 대변인)

- 북한 교육성 대변인은 최근 남한 보수진영에서 제기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개편 주장에 대해 “역사교과서 내용을 친미, 반공적인 방향으로 개악”하려는 것이라고 비난
- 교육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역사교과서 개편 방향이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왜곡하거나 삭제하고 우리(북한)의 존엄 높은 사회주의 제도를 악랄하게 비방 중상하며 우리에게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개악 책동은 정의와 진리에 대한 난폭한 유린, 역사와 진실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6·15 이후 남조선(남한)에서 높아진 자주, 민주, 통일기운을 거세 말살하려는 불순한 범죄적 기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비난

● 北, “일심단결” 사상교육에 당력 총동원(10/3,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 속에서 북한이 전역의 당조직을 동원해 “일심단결”을 강조하는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3일 보도, 방송은 “각지 당조직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선군혁명의 위력한 무기인 일심단결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여 나가고 있다”고 보도
- 방송은 평양시와 자강도, 평안남도 당조직들이 이같은 사상교육에 앞장서고 있으며, 황해북도에서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올해 공동시설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
- 평양방송도 김 위원장의 ‘조선노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라는 논문 발표 18주년을 맞아 “장군님(김정일)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을 영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당 건설의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현명하게 이끌어 오시었다”고 찬양

● 北, ‘10·4선언’ 기념 토론회 개최(10/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일 평양에서 10·4 선언 발표 1주년을 기념하는 연구토론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토론회에는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김원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을 비롯해 사회단체 책임일꾼과 평양 시내 근로자들이 참

가했으며, 김영대 위원장, 태형철 사회과학원장,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장, 로성실 여맹 중앙위원장이 각각 토론했다고 통신은 보도

- 토론자들은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6·15공동선언에서 제시된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고수하고 구현해 나가기 위한 진로를 밝힌 실천적 공동문건"이며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강령적 지침"이라고 강조
- 이들은 또 10·4선언이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평화선언"이라는 데 대해 해설하고 "선언을 이행하는 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에 대해 언급"했으며, 10·4선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탁월한 사상과 영도의 빛나는 구현이며 그 고귀한 결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

● 北, 김정일 건강이 곧 강성대국(9/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월 30일 '혁명가의 한생은 애국현신의 한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장군님(김정일)께서 잠깐 외국방문의 길을 떠나시어도 분초를 계산하며 시시각각 장군님을 기다리는 우리 군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은 곧 조국이고 민족이고 강성대국이다"라고 언급, 신문은 이어 "한 순간을 살아도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에 살고, 앞으 나서나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우리 군대, 우리 인민이다"라고 주장

● 北, 10·4선언 외면 땀 파국위기 못 벗어나(9/29,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조선중앙방송은 29일 10·4선언 채택 1주년을 앞두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그 이행을 계속 외면한다면 북남관계는 오늘의 파국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 방송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이행은 시대의 요구"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6·15공동선언의 가치 높여 10·4선언을 성과적으로 이행해 조국통일 위업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엄중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고 언급

- 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새 세기 조국통일의 지름길을 밝혀주는 이정표”, “민족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통일강령”이라고 지적하며 “현 시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은 애국과 매국을 가르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

● **北매체, 이상희 국방 집중 비난(9/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이상희 국방장관의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언행을 일일이 들며 남한의 군이 “이명박 정권의 반공화국(반북) 대결정책 실현의 맨 앞장”에 서 있다고 맹비난, 노동신문은 이상희 장관의 이름 없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로만 지칭해 이 장관을 집중 공격
- 신문은 이 장관이 장관에 임명된 후 주한미군사령관을 방문한 사실부터 국회 답변에서 햇볕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발언이나 북한을 “실제적인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것 등을 모두 지적하면서 “동족과의 대결과 전쟁을 선동하는 망발”, “화약 냄새가 물씬물씬 풍기는 대결 망언” 등으로 격하게 비난

● **노동신문, 자위적 국방력 더 강화할 것(9/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반공화국(반북) 선제공격 기도”이고 이는 “6자회담 합의사항을 뒤집어 얹는 배신행위”라고 비난, 노동신문은 ‘무모한 선불질 기도를 버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최근 육군 병력 4천200여 명을 태평양 지역에 추가로 배치키로 했고 미 해군의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했다고 주장
- 신문은 또 미국이 “대조선(대북) 선제타격 책동에 광분할수록 그것은 전쟁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굳게 해줄 뿐”이라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선불질을 하려는 미제의 범죄적 기도가 명백해진 이상 우리는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 예성강발전소 준공식 개최(10/3, 조선중앙TV)

- 황해북도 예성강 청년1호발전소 준공식이 3일 김영일 내각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 이 발전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올해 첫 현지시찰 및 공개활동(1월6일 보도) 장소로, 김 위원장은 당시 예성강발전소가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하게 될 나라의 귀중한 재부”라면서 “연관된 부문에서 적극 도와주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제때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음.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와병설 속의 김 위원장은 발전소 준공을 축하해 건설자와 기술자들에게 “감사”를 보냈으며, 이날 준공식에서 감사가 전달됨.

● FAO, 北 수확량 현지조사 내주 재개(10/3,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이르면 내주 중반부터 북한의 올해 농작물 수확량을 현지 조사하고 이모작 곡물량도 추정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
- FAO는 1995년부터 해마다 북한 현지에서 작황과 식량 공급조사를 벌였으나 2004년 북한이 조사단 방북을 거부, 조사를 못하다가 이번에 북한과 협의를 거쳐 4년만에 조사를 재개, FAO의 존 오테오 조정관은 “FAO와 세계 식량계획(WFP) 등의 농업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황해북도와 평안남도를 비롯한 6개 지역을 방문해 해당지역 관리와 협동농장 책임자를 만나 수확 중이거나 재배 중인 곡물을 직접 점검한다”고 설명
-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올해 수확량, 올 겨울과 내년 봄 이모작 곡물량, 식량 지원을 포함한 곡물수입 필요량 등을 산출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올해는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가 없는데다 계속 이어지는 좋은 날씨와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으로 기대

● 北, 대외관계 개선으로 경제활성화될 것(10/2, 평양방송)

- 북한내 외국계 합작 금융기관인 대동신용은행(DCB)의 나이젤 카위 총재는 북한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대외관계 개선 움직임 등을 볼 때 “앞으로 조

선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평양방송이 2일 보도

- 그는 또 “조선은 막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다른 나라들과 관계도 점점 폭이 넓게, 좋게 진척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반드시 개선되리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하고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서 다음 해에는 더 많은 회사들이 조선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작은 힘이나마 조선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임.

● 베네룩스 기업들 방북…대북 투자 추진(9/30, 연합)

- ‘베네룩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의 기업들이 30일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 대북 투자를 적극 추진, 3국 기업인과 중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대표단 10여 명은 9월 30일 오전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 4박 5일간 북한의 정보기술(IT) 연구를 주도하는 ‘조선컴퓨터센터(KCC)’와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제작센터 등을 둘러보며 투자 가능성을 타진
- ‘베네룩스 3국 상공회의소’는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앞두고 29일 베이징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북한의 산업 발전상을 비롯해 투자처로서의 장·단점 등을 투자자들에게 설명
- 방북단을 이끄는 국제정보기술자문회사 GPI 컨설턴시의 폴 치아 대표는 설명회에서 “북한의 IT 분야 종사자들은 기술 수준이 높고 애니메이션, 기업행정 응용프로그램, 웹사이트 제작 등으로 분야별로도 전문화돼 있다”면서 “북한은 유럽 기업들의 역외시장 및 아웃소싱 시장으로서 큰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

※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북한과 수교를 맺고 독일, 영국, 스웨덴, 체코, 폴란드 등이 평양에 상주 대사관을 두고 있음.

라. 군사 관련

● 北, 국군 건군 60주년 화력시범 비난(10/2,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일 국군이 건군 60주년을 기념해 9월 26일 경기도 포천에서 벌인 지상·공중 합동 화력시범에 대해 “북침을 위한 모험적인 불장난”이라고 비난, 신문은 특히 이번 화력시범이 10년만에 부활된 점을 들어 이명박

정부가 “우리(북한) 군대와 인민을 자극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악화” 시키려 하고 있다고 언급

● 군사실무회담 조기종결…냉각기 지속될 듯(10/2, 연합)

- 남북 군사당국이 8개월 여만에 만났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헤어져 남북간 관계에 냉각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남북은 2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군 당국간 합의사항 이행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원론적인 입장차만 확인하고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못함.
- 특히 이번 회담은 군사회담으로는 지난 1월 25일 이후 8개월 여만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6자회담 차원의 대화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열린 당국간 회담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았지만 양측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결함. 더욱이 양측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다음번 회의 날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해 군사당국 간 접촉의 ‘추진력’을 얻는데도 실패함.
- 실제로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측 민간단체들이 북한을 비방하는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이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함. 특히 북측은 전단 살포 행위가 계속되면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에 엄청난 후과(나쁜 결과)가 있을 것이며, 개성과 금강산지구 내에 남측 인원의 체류가 불가할 수 있다며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짐.
- 이와 관련, 회담 관계자는 “비무장지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는 군사당국 간 합의사항으로 우리 당국에선 철저히 이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단체에서 전단 살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도 제한이 있어 북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언급함. 북측은 회담에서 한미 군사합동훈련과 남측의 무력증강 등을 거론하면서 남측이 한반도 정세를 대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짐.
- 국방부 관계자는 “8개월여 간 회담이 열리지 않았고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회담이어서 어떤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라기보다는 쌍방이 시급히 제기해야 할 문제를 전달하고 협의하는 성격의 회담이었다”며 “다음 회담 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설명함.

● 北미사일 발사시설, 개보수 정황 포착(10/2, 연합뉴스)

- 군 소식통은 2일 “북한의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기지 움직임에 대해 미국 측과 정보를 공유해 왔다”면서 “최근 북한이 무수단리의 대포동미사일 발사 시설을 교체하는 등 대폭적인 개보수작업을 벌이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힘. 소식통은 “현재 발사대를 지지하는 타워크레인을 교체하고 미사일 지지대를 보강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발사 직전 미사일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건물도 증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언급함.
- 그러나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대북 첩보 활동은 잘하고 있지만 군사적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면서도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현재까지 특이동향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발표
- ※ 무수단리의 옛 지명은 대포동으로, 북한은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에서 1998년 8월 31일 대포동1호 미사일을, 2006년 7월 5일 대포동2호 미사일을 각각 발사했었음.

● 北, 한미 상호방위조약 55주년 비난 논평(10/1, 노동신문; 조선평화옹호전국 민족위원회)

- 노동신문은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아 이 조약의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되풀이함. 신문은 이날 ‘침략과 전쟁을 합법화한 범 죄적 조약’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미국은 냉전이 종식되고 6·15통일 시대가 펼쳐진 오늘에 와서도 이 조약을 걸고 남조선 강점 정책과 반공화국 대결전쟁 책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추구
- 북한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도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가 계속되는 한 “남조선 인민들이 불행과 고통을 면할 수 없고 온 민족이 분열의 비극만이 아니라 핵전쟁의 참화까지 입을 수 있다”고 주장

● 北,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10/2, 연합뉴스)

- 북한이 2년 전 핵실험을 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복구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짐. 정부의 한 소식통은 1일 “최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여러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장을 복구하려는

- 의도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 소식통은 “특히 핵실험장 인근에서 포착되고 있는 연기는 복구 작업에 사용됐던 의복이나 장비 등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징후가 영변 핵시설을 복구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

※ 북한은 길주군 풍계리의 한 야산에 동쪽과 서쪽으로 갱도를 뚫고 2006년 10월 9일 동쪽 갱도에서 핵실험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김정일 은둔 속 당·정 간부들 량강도 참관(9/30,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이상설 속에 공개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9월 30일 노동당과 내각 간부들이 대거 북한의 대표적인 감자 주산지인 량강도 대흥단군을 방문
- 조선중앙방송은 1일 “성·중앙기관, 량강도내 일꾼들이 9월 30일 대흥단군의 여러 곳을 참관했다”며 “창평농장 제2작업반과 홍암농장 제4작업반 포전들,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 백산퇴지목장, 대흥단감자가공공장 등을 참관했다”고 소개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논문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 데 대하여’ 발표 10주년을 맞아 이뤄진 참관에는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 비서,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곽범기 내각 부총리, 박남기 당 중앙위원회 부장 등이 참가
-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손호인 교수에게 생일상을 전달하는 등 ‘얼굴없는 통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마. 사회·문화 관련

● 北평양중심부 청년동맹 청사, 전소(10/5, 연합)

- 북한의 평양 중심부에 있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청사가 9월 추석 때 방화 용의가 있는 대형화재로 인해 전소되다시피 함으로써 북한 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짐. 대북 소식통은 “이번 화재가 누전 등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방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 당국은 추석날 불이 난 점 등을 이유로 치밀한 방화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알려짐.

● 중국산 ‘멜라민’ 최대 피해국은 북한(10/4, 조선일보;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입국한 탈북자들은 멜라민이 잔뜩 든 중국산 식품으로 북한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당국의 통제로 소비자들의 입이 봉쇄됐다고 주장, 최근 입국한 평양 출신 여성은 “최근 수년간 평양 등 주요 도시에 10~20kg짜리 중국산 저가 분유가 대량 유통됐다”고 함. 그는 “주로 서민들이 많이 소비한 이 분유로 인해 평양과 함흥에서 아기들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북한 부유층은 아예 중국산 분유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
- 이런데도 서민들이 중국산 분유를 아기들에게 먹이는 것은 그나마 없으면 아예 아기를 굶겨 죽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임. 또한 분유 외에 중국산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도 급증 추세, 유통기한 지난 항생제와 검증 안된 의약품들이 시장에 대량 유통되고 있기 때문임.
- 신의주 출신의 탈북자는 “중국산 항생제를 맞고 부작용에 시달리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아 중국산 의약품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함. 소비자들이 중국산 의약품을 겁내자 최근에는 유엔 등 외국 지원 의약품인 것처럼 둔갑해 시장에 유통되기도 함.
- 의사 출신의 탈북자는 “의약품이 절대 부족한 북한에서 중국산을 믿지 못하는 간부들과 부유층은 서방국가에서 지원된 의약품을 가장 선호한다”고 말하면서 대외지원 각종 의약품들을 간부들이 독차지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
- “남한 것을 먹고 죽거나 아픈 사람은 없었다”는 소문이 북한 내부에 퍼지면서 한국산에 대한 고위층이나 부유층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고 전언
- 특히 유엔의 세계보건기구(WHO)와 식량농업기구(FAO)가 9월 26일 멜라민 파문과 관련,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식품시장을 면밀히 감독할 것과 인체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된 불량 식품을 수거, 폐기할 것을 공동 성명을 통해 촉구했으나 북한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 WHO 베이징사무소의 알렉산더 공보관은 “북한에서 중국산 멜라민 첨가 유제품이 발견됐는지 여부는 북한 당국이 보고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 “멜라민 제품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책임은 북한 당국 스스로에게 있다”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북, 亞여자복싱 금4·은2·동3(10/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9월 23~28일 인도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 여자복싱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의 성적을 거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기초식품 전시회 개최(10/2, 조선중앙통신)

- 전국 기초식품 전시·발표회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평양시 인민대학습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 전시회에서는 장(醬) 생산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과정에서 터득한 200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와 경험들이 소개됨.

● 북한 전역 나무종자 채취 한창(10/2, 조선신보)

- 북한에서는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맞아 나무종자 채취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각 도·시·군과 공장·기업소 별 양묘장 조성과 상록수 종류의 종자 채취가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의 중점목표라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장려되는 것은 경제적 효과성이 큰 창성이깔나무 종자 채취사업”이라고 밝힘. 이깔나무는 건축재, 전주, 침목 등으로 쓰이고, 결이 곱으며 생장이 빠른 것이 장점

● 北, 식량 낭비 이유로 음식장사 금지(제223호, 오늘의 북한소식; 10/2, 연합)

- 북한 노동당이 “식량 낭비를 없애자면 먹자판을 비롯해 우리 격식에 맞지 않게 결혼식과 같은 각종 집안 대사를 진행하는 것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는 방침을 내림에 따라 북한 전역의 주요 도시에선 9월 20일부터 시장에서 음식장사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일 보도
- 소식지에 따르면 시장에서 두부밥은 개당 200원, 까만 밀가루 빵은 1kg당 1천300원, 옥수수국수는 그릇당 1천300~1천500원이며 떡과 순대는 kg당 각각 2천300원, 2천600원으로 비싼 편이며, 북한의 쌀값은 현재 kg당 2천500원인 것으로 알려짐.
- 소식지는 북한의 군대도 식량난을 겪고 있다면서 평남 강서군 태성리에 주둔한 91훈련소 보병구분대의 경우 100명의 군인 중 70명이 영양실조에 걸린 중대가 있을 정도이고, 군인들이 허약해져 “12월부터 시작될 동기(冬期)

훈련의 강도를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임.

● 北, 가을철 조류독감 방역에 총력(10/2, 조선신보)

- 북한의 방역기관들은 가을철 동물 방역기간을 맞아 조류독감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일 보도

● 北주도 태권도세계대회 2011년 평양 개최(10/2, 조선신보)

-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이 2011년 주최하는 제11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의 개최지로 평양이 결정됐다고 조선신보가 2일 보도

- 신문은 9월 19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제18차 ITF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하고 “이번 총회에 참가한 ITF인사들과 60개 나라 대표들은 17번째 연례를 새기며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를 태권도의 모국인 조선(북)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하는 데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열렬한 지지와 찬성을 표시했다”고 소개

※ 평양에서는 1992년 제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와 2000년 제5차 청소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음.

● 묘향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연내 등록 추진(2008년 10월호, 조국)

- 북한은 묘향산의 역사유적과 명승지를 연내 유네스코(UNESCO) 세계복합유산으로 등록하고 2009년부터 칠보산과 구월산, 용문대굴 등 명승지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북한 문화보존지도국의 리의하 부국장이 밝힘.

- 그는 또 “지금 개성지구에 있는 고려시기의 유적들인 만월대와 개성성, 고려성균관과 표충비, 선죽교와 왕건왕릉, 공민왕릉 등 10여 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

● 北 발명·신기술 전람회 개막(10/2, 조선중앙통신)

- 제10차 전국 발명 및 신기술 전람회가 1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전람회에는 사회단체, 성(省), 중앙기관과 각도(道)에서 선발된 1천500여 건의 발명과 신기술 자료들이 실물과 모형, 도해, 다매체(멀티미디어) 편집물 등으로 출품됐으며, 전람회 기간에 발표회,

기술교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기술 보급사업이 진행되고 과학기술 성과들을 생산과 건설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통신은 보도 - 개막식에는 로두철 내각 부총리를 비롯해 리광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용진 교육상, 관계부문 과학자와 근로자들이 참석

● 北 전역에서 ‘미용성형’ 유행(9/30, 연합)

- 극심한 식량난을 겪는 북한에서도 여성들 사이에 쌍꺼풀, 눈썹 문신, 입술 선 살리기, 얼굴 주름 펴기, 주근깨 없애기 등 ‘미용 성형’이 유행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30일 보도, 좋은벗들은 북한 여성들이 일반 병원이나 개인 시술업자로부터 간단한 성형수술을 받는 것은 도시와 농촌 가릴 것 없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언급

● 9·9절 계기, 80여개 문화시설 건설(9/30, 조선중앙방송)

- 북한에서 정권수립 60주년(9.9)을 계기로 공장·기업소와 문화시설 80여 개가 건설되고 60여 개가 개건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30일 보도, 방송은 ‘선군으로 더욱 굳건해진 나라의 경제력’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성과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혁명 영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걸음 걸음 손잡아 이끌어 줌으로써” 이룩된 것이라고 주장
- 또 김정일 위원장이 “올해 정초부터 사나운 눈보라와 삼복의 무더위도 가리지 않고 발전소 건설장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도 하면서 우리 인민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 일으켰다”고 방송은 선전

● 北김책공대, 80여 개 학과 30여 개로 통폐합(9/30, 조선신보)

- 북한의 이공계열 종합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종전의 80여 개 학과를 30여개로 통폐합했으며 정보·나노교육 등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고 조선신보가 30일 보도, 신문은 박길호(67) 김책공대 교무부 부부장의 말을 인용, “학생들이 자기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학과를 대폭 통폐합했다고 언급

● 北, 평양영화제 유럽영화가 절반 차지(9/30, 조선신보)

- 9월 17~26일 열린 제11차 평양 국제영화제 출품작 중 절반 가량이 유럽 영화였으며, 인간문제를 다룬 작품이 많이 출품됐다고 조선신보가 30일 보도
- 신문은 이번 영화제 출품작 수는 110편으로 제10차(2006.9) 때의 70여 편보다 대폭 늘었다면서 “총 50편의 유럽 영화들이 출품돼 총 작품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소개
- 신문은 이번 영화제의 특징으로 ‘반전평화’, ‘가정의 행복’, ‘여성의 권리옹호’ 등 “인간문제를 깊이있게 파고 든 작품들이 수많이 출품된 것”을 꼽으며 “올해 2월에 진행된 제11차 상하이영화축전 최우수 연출가상을 받은 러시아영화 ‘장거리 운전수 무하’, 2006년 아카데미수상작인 독일·오스트리아 합작영화 ‘화폐 위조자들’, 영국영화 ‘엘리자베스 1세’ 등 7편의 작품이 호평 속에 상영됐다”고 보도

● 평양에서도 디지털방송 수신 가능(9/30, 자유아시아방송)

- 일본의 고화질(HD)급 디지털방송이 최근 송출력을 높임에 따라 서울은 물론 평양 등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방송의 수신이 가능하게 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 ※ 일본이 자국의 난시청 문제 해소와 지상파 방송의 무료 서비스를 위해 방송위성 디지털방송을 도입한 뒤 송출력을 높이면서 최근 서울 지역에서 NHK1, NHK2, 후지TV, 아사히TV 등 일본 위성방송 채널이 10개 이상 수신되기 시작

● 北, 내일부터 인구센서스 실시(9/30, 연합)

- 북한이 유엔인구기금(UNFPA)의 후원 아래 14년만에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인구센서스)가 10월 1일부터 시작됨.
- 북한은 15일까지 전역에서 현장조사 요원 3만5천200명과 지도요원 7천 500명을 동원해 가가호호를 방문, 나이, 성별, 결혼여부, 가족수, 가족 구성원의 직업, 개인소득, 가구와 가전제품 목록, 교육수준, 국가내 이동, 장애 유무, 출생률, 사망률, 화장실 유무, 난방과 상하수도 유무 등 총 53개 문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UNFPA 요원 12명도 이 조사에 참여, 북

한 전역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60개 군을 직접 방문, 질의와 조사표 작성 과정을 지켜보고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며 일부 응답자에 대해선 직접 재조사해 북한 요원의 조사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도 비교

- 이번 조사 비용 550만 달러 가운데 400만 달러는 한국 정부가 지원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北, 美, 제2 조선전쟁 도발 노려(10/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최근 정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이 그 출로를 “제2의 조선전쟁 도발”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이날 ‘날로 노골화되는 제2 조선전쟁 도발책동’이라는 글에서 대테러전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안팎의 반발과 최근의 금융위기 등을 상세히 전하고 “미국의 호전계층은 지금 극도의 정치, 경제적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바로 제2의 조선전쟁 도발에서 찾으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이는 “오산”이라고 강조

● 북·미, 핵 ‘분리검증안’ 의견접근한 듯(10/4, 연합)

-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미가 그동안 첨예하게 맞서왔던 핵 검증체계 구축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중단에 이은 핵시설 복구 움직임, 재처리시설 재가동 통보 등으로 한껏 높아지던 위기감이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도 감지됨. 북한이 이르면 1일 단행하겠다고 밝혔던 재처리시설 재가동도 아직 실행에 옮겨졌다는 징후도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힐 차관보는 2박 3일간의 평양방문을 마치고 3일 서울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이며 길고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하면서도 본국 보고와 중국, 러시아 등 다른 참가국들과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음.

-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협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10월에 6자회담 차원의 협의를 있어야겠다고 하리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해 협의에 일정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
- 힐 차관보는 이번 방북에서 정식 신고서에 담긴 영변 핵시설을 먼저 검증한 뒤 북·미 간 비공개이사록에 담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핵확산 문제는 추후 검증한다는 내용의 ‘분리 검증안’을 북한에 제안해 어느 정도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은 미국이 주장해 온 ‘샘플 채취’와 ‘미신고시설 방문’ 등 두 가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힐 차관보가 이번에 건넨 방안은 양측이 한걸음씩 물러나 북한이 ‘샘플 채취’를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은 ‘미신고시설 방문’에 대해서는 당장은 고집하지 않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임.
- 특히 한·미 수석대표가 동시에 고위층 간 협의를 필요하다는 점을 내비쳐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음. 김 숙 본부장은 “한·미 간 외교장관 또는 그 이상인 정상 간 협의도 필요하다면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고 힐 차관보도 “외교장관들이 계속 연락을 주고 받을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하는 지를 지켜보자”고 언급

● 美, 北 영변핵 검증만으로 테러지원국 해제(10/3, 요미우리신문)

- 북한의 핵계획 신고 검증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 양국의 협의에서 검증 대상을 영변 핵시설 등 지난 6월 신고한 시설·활동을 핵무기와 농축우라늄 계획, 확산 활동 등의 미신고 시설·활동과 분리하는 ‘검증 패키지’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일 보도
- 신문이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 등 제한적인 검증 계획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며, 그와 동시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지정을 잠정적으로 해제, 그런 다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무기 등의 포괄적인 검증에 대해 북한이 협력한다는 의향을 표하게 된다고 신문은 보도

● 평양 간 힐, 더 머물기로(10/2, 연합)

- 핵 검증 협의를 위해 1일 방북했던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Hill) 국무부 차관보가 당초 2일 서울로 돌아오려던 일정을 바꿔 평

양에 더 머물기로 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2일 보도, 이 소식통은 “미국측으로부터 힐 차관보가 2일 서울로 오기 어렵다는 연락이 왔다”며 “현재로서는 3일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발표

- 힐 차관보는 이번 방북에서 검증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유연해진 입장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라이스, 北에서 힐 차관보 초청(9/30, 미국무부)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세번째 북한 방문과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이 힐 차관보를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고 미 국무부가 30일 보도
- 라이스 장관은 또 “검증의정서 문제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북한이 어떤 말을 할 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임. 힐 차관보는 방북에 앞서 30일 서울에 도착했으며 1일째 세 번째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

나. 북·중 관계

● 北, 평양에 주부교육센터 개소(10/3, 조선신보)

- 북한이 중국과 협력해 평양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센터를 설립, 북한의 조선민주여성동맹과 중국의 전국부녀연합회는 “조(북)중 두 나라 여성들 사이의 친선교류를 넓히고 두 나라 여성사업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9월 17일 ‘조(북)중 여성양성센터’를 개관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이 센터는 2007년 4월 평양에서 조인된 ‘조중 여성합작 의향서’에 의해 설립됐으며 컴퓨터, 요리, 미용, 안마, 의류가공, 건강스포츠 등 가정주부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센터는 컴퓨터기술전습실, 요리기술강의실 및 실습장, 건강치료체육보급실, 미안(피부미용) 및 안마 보급실 등 각종 교육시설과 함께 식당과 상점, 한증막과 같은 부대 편의시설도 갖췄으며 강사진은 대학 강의 경험자나 우수 대학졸업생을 중심으로 내실을 다짐.
- 신문은 “무상 기술전습과 봉사(서비스)교육”을 받기 위해 30~50대 주부들이 센터를 방문, 현재 40여 명의 여성이 제1기 컴퓨터, 요리실습반에서 교

육받고 있다고 소개, 수장기간은 20일로 1년에 20기를 운영하고 내년에는 평양시내 곳곳에 피복가공, 수예, 악기연주 등을 위한 센터 부속건물도 설립할 계획이라 밝힘.

● **건강이상설 김정일, 후진타오에 축전(9/30, 조선중앙통신)**

- ‘건강이상설’ 속에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0일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우방귀(吳邦國) 전 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게 중국 건국 59주년 축하전문을 보냄.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내각 총리와 공동명의 축전에서 “우리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59돌에 즈음해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그리고 당신들을 통해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낸다”고 표현

● **북한 경비정, 중국 어선에 기관포 발포(9/29, 연합)**

- 인천해양경찰서는 9월 27일 오전 9시 40분쯤 백령도 서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요동운 146호가 북한 경비정이 쏜 것으로 보이는 20mm 기관포탄 2발을 맞았다고 29일 발표,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해군의 20mm 포탄은 외피가 노란색이지만, 중국 어선이 맞은 포탄의 외피는 노란색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북한측이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이로 인해 중국 어선 선장 쿵판성(孔凡生·44)씨가 머리와 오른쪽 다리에 포탄 파편이 박히는 등 크게 다치자 선원들이 국제 공용 통신망을 통해 해경에 구호를 요청했고, 해경이 해군 2함대에 다시 연락해 해군 고속정이 백령도 서북쪽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가서 이날 오전 11시쯤 부상한 쿵씨와 선원 1명을 태워 백령도로 후송
- 군 소식통은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에 총격을 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문제의 중국 어선은 북한측에 돈을 주지 않고 조업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북한 군 당국은 NLL 인근에서 돈을 낸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만 사실상의 허가증을 내주고 조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 북·러 관계

● 北 나진-러 하산 철도 개건 착공식(10/4,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연해주 남부의 하산을 잇는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의 개건 착공식이 4일 나선시 두만강역 지구의 조·러(북한-러시아) 친선각 앞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 착공식에는 북한의 전길수 철도상, 궁석웅 외무성 부상, 리명산 무역성 부상과 러시아의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 차관, 발레리 수히닌 주북 대사, 블라디미르 야쿠닌 사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철도주식회사 대표단, 세르게이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 등이 참석
- 착공식에선 혼합선 철길 부설작업이 진행됐으며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 개건 착공을 기념하는 표식비가 제막됐다고 통신은 보도

라. 북·일 관계

● 조선청년동맹 간부대표단 방북(10/1, 조선중앙통신)

- 고덕우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최성영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재일본 조선청년동맹 간부대표단이 1일 각각 평양에 도착했으며, 방북했던 서정인 부학장을 단장으로 한 조총련 조선대학교학생 조국방문단은 1일 평양을 떠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총련 '조선통신' 창립 60돌(10/1, 민주조선)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일본에서 운영하는 뉴스통신사인 조선통신사가 1일로 창립 60돌을 맞이함. 조선통신은 북한 정권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1일 '건설통신'으로 창간된 뒤 1953년 3월 1일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지난 60년간 북한 노동당과 정부의 노선, 정책, 입장을 외부 세계에 소개하는 '대변자' 역할을 수행해 북한으로부터 '김일성 훈장'을 받기도 함.
- 민주조선은 1일 조선통신의 창립기념 논설을 통해 조선통신이 "공화국(북한)의 유일한 해외 통신보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다"며 "전후 잿더미를 털고 일어서는 조선(북한)의 투쟁 모습, 전설 속의 천리마

를 현실로 불러내 사회주의 공업화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의 위용을 널리 소개”했다고 언급

※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조선통신은 창립 이후 미 군정 당국 등에 의해 1950년 9월 30일부터 2년여 간 발간이 중단됐다가 1952년 12월 20일에 복간됨. 조선통신은 북한의 관영통신인 조선중앙통신의 국문기사를 받아 일본어로 번역해 발간하는 역할로 출발했지만 1961년 5월 국문판을 창간하고 1964년 5월부터 영문판 ‘코리안 데일리뉴스’도 발행을 개시함. 조선통신은 일본의 각 언론사 및 세계적인 외신사들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한에서는 연합뉴스가 조선통신과 계약을 맺고 중앙통신 기사를 수신하고 있음.

● 北, 총독부 설치 98주년 日에 과거 청산 촉구(10/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일제의 조선총독부 설치 98주년을 맞아 일본에 “과거청산 용단”을 촉구
- 신문은 “오늘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나라들이 그에 대해 성근(성실)하게 인정, 반성하고 배상하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로, 도덕적·역사적 의무로 되고 있다”며 “이로부터 세계적으로 과거청산을 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고 그것은 국제사회계의 공감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일본도 하루빨리 과거 청산의 용단을 내리는 게 “일본 자신에게도 유익하다”고 주장

마. 기타 외교 관계

● 김영남, 통독 18주년 축전(10/3,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독일 통일 18주년을 맞아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고 “두 나라 사이 협조적인 유대가 호상(상호) 이익에 맞게 확대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나이지리아 독립 48돌 즈음 기념 연회 개최(10/2, 조선중앙통신)

- 유수프 아무다 아부바카르 북한 주재 나이지리아 대사가 1일 박의춘 외무상, 문재철 대외문화연학위원회 위원장대리, 김형준 외무성 부상, 리명산 무역성 부상 등을 초청해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 북한

과 나이지리아는 1976년 5월 25일 수교

● 시리아 군 대표단 방북(10/2, 조선중앙통신)

- 나지브 바라카트 훈련총국장을 단장으로 한 '시리아 군대 훈련·교육 일꾼 대표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을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하고 주체사상탑과 국제친선전람관, 대성산 혁명열사릉 등 평양시 일원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군 대표단은 9월 27일 평양에 도착했으나, 북한 군부 인물들과 면담에 관한 보도는 나오지 않음.

● 태국 외무부 대표단 방북(10/2, 조선중앙통신)

- 29일 방북한 타리트 차룽바트 총국장을 단장으로 한 태국 외교부 보도총국 대표단이 1일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과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싱가포르 대사에 정성일 임명 (10/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싱가포르 주재 대사에 정성일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싱가포르 주재 특별전권대사로 정성일이 임명됐다”고 밝힘.
- ※ 정성일 대사는 북한 외무성 군축과 과장을 거쳐 아주국 부국장을 지냈음.

3 대남정세

● 경수로사업 이자만 6천억(10/3, 연합뉴스)

- 정부가 대북 경수로 사업에 따른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차관을 ‘국채 돌려막기’식으로 부담함에 따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남. 통일부가 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이범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경수로 사업 관련 국채 발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 5월 종료된 대북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KEDO 차관은 1조3천743억 원이지만, 2008년 8월 현재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상황에 총 5천971억 원이 지출됨.

- 이는 KEDO 차관을 국채 발행으로 감당해온 정부가 만기 도래 국채를 또 다시 국채를 발행해 막아온 데 따른 것에 기인, 이같은 이자 상환액은 전체 경수로 차관액의 44%에 해당하며, 대북 경수로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부담하는 실제 채무는 1조9천714억 원에 달하게 됨. 또한 그동안 ‘국채 돌려막기’로 인해 발행된 국채의 총 규모는 4조3천370억 원에 이룸.

● **개성공단 기업 애로 1위, 남북관계 불안감(10/3, 연합)**

-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남북관계 악화를 기업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음.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개성공단에 입주한 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34.5%가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불안감’이라고 답했다고 3일 보도, 이어 ‘3통(통행·통관·통신)문제의 어려움’이 28.9%,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인력조달의 어려움’이 각각 17.1% 순임.

● **남북 거래말큰사전 편찬회의 개성 개최 예정(10/2, 연합)**

- 남북한 언어학자가 공동 집필하는 ‘거래말큰사전’ 15차 편찬회의가 10월 29~30일 개성에서 개최될 예정
-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4차 편찬회의 후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양측 편찬위원장인 권재일 서울대 교수와 문영호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장을 포함해 편찬위원 4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 남북 공동편찬위는 2011년까지 기본적인 집필을 마무리하고 2013년 약 30만 어휘의 사전을 펴낼 계획임.

● **통일부, 남북 간 모든 합의 정신 존중(10/2, 통일부)**

- 정부는 2일 작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10·4선언의 채택 1주년에 즈음해 기존 남북 간 모든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북 간 합의들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정신에 기초한 것들”이라며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던 남북 간 모든 합의들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힘.
- 김 대변인은 이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실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가능한 이행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정부는 10·4선언 1주년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은 별도 성명이나 논평 발표 없이 이날 김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으로 갈음키로 했으며 당국 차원의 별도 기념행사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발표

10.6-10.12

10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김정일, 창당 축전 외국정상들에 답전(10/11,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권 수립 60주년(9.9) 축전을 보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외국의 정상급 인사들과 정당 지도자들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1일 보도

- **北김정일 군 시찰 사진, '정상 통치' 확인(10/11,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 외병설 속에 모습을 감췄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대를 시찰하는 자신의 사진을 11일 오전 북한 TV방송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내외에 건재를 과시, 북한 매체들이 9월 4일 김 위원장의 축구경기 관람 소식을 전하고 노동당 창당 기념일인 10일엔 그의 행사참석 보도없이 한달여 전 노동신문 등에 보냈던 '담화'를 밤늦게 전문소개할 때만 해도, 외부 관측통은 그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조치들로 보면서도 '증빙'자료가 없는 점 때문에 판단에 일말의 유보를 뒀었음.
 - 북한 매체들은 조선중앙통신이 새벽 1시 42분께 김 위원장이 821군부대 산하 여성포병중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7시간만인 오전 9시께 조선중앙TV가 관련 사진 10장을 신속히 공개하고 오후 2시 20분께는 조선중앙통신이 더 또렷한 사진 2장을 보도

- **김정일, 노동당 창건행사 불참(10/10, 연합)**
 - 뇌혈관 계통 이상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66) 북한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창건기념일인 10일에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지난 8월 14일 군부대 시찰 보도 이후 이날로 57일째 은둔
 - 정부 당국자는 "10일 밤까지 김 위원장의 모습이나 동향을 보도한 북한 매체는 없다"며 "모습을 공개할 만큼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것 같다"고 언급, 김 위원장이 9월 9일 정권 창건 60주년에 이어 노동당 창건일에도 등장하지 못함에 따라 '건강 이상'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증폭될 전망

나. 정치 관련

- 北, 김정일 군 시찰·담화 반복 보도(10/11,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북한 언론매체들은 11일 와병설이 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부대 시찰과 담화 발표 소식을 반복 보도
- 김정일, 담화 발표 10·4 이행 강조(10/10,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며 “누구나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
 - 이들 방송은 김 위원장이 한달여 전 북한정권 수립 60주년(9월9일)을 앞둔 9월 5일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는 장문의 담화를 썼다며 담화 전문을 보도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같은 김 위원장의 입장은 이미 북한 고위 인물들과 언론매체들에 의해 반복 주장돼 온 것이지만 담화 형식을 통한 김 위원장의 직접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
 - 김정일은 담화에서 두 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이라고 규정하고 “반통일 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기어이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
 - 담화에서 그는 북한 정권 60년사를 개관하고 앞으로도 자신의 ‘선군정치’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밝히고 “무엇보다 사회주의 조국의 정치사상 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교육의 강화를 강조
 - 김 위원장의 담화는 1만9천여 자 분량으로 방송 아나운서가 50여 분에 걸쳐 내용을 소개

● 北, 노동당 창당 기념일...김정일 보도 없어(10/10, 연합)

-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당 63주년을 맞아 이렇다 할 기념행사는 열지 않은 채, 언론매체를 통해 노동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력’을 찬양하고 “일심단결”과 “절대적 충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
- 10일 오후 현재 노동당 창당 63주년 관련 행사는 당·군·정 간부들의 고 김일성 주석 묘소인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주민들의 만수대언덕 김일성 동상 참배와 김일성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 제76권 출판, 그리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촌말리 사야손 라오스 국가주석,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각 수반 등의 꽃바구니 전달 소식이 전부
- 노동신문은 ‘일심단결의 기치 높이 전진하는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는 제목의 기념사설을 통해 노동당은 “선군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라며 당의 ‘영도적 역할’ 강화를 촉구하고, 전체 주민들에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를 삶과 투쟁의 제 1 차적 요구로, 확고부동한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 보위”할 것을 강조

● 北, 노동당 창당일 맞아 사상교육 주력(10/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노동당 창당 63주년(10.10)을 맞아 당조직의 주관 아래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대성 교양’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화, 조선중앙방송은 7일 “당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각지 당조직들에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통한 위대성 교양을 활발히 벌여 그 실효를 높이고 있다”며 우상도서에 대한 독보(讀報)와 연구발표 모임, 사적관 참관 사업 등을 예시함.
- 또 당 창건 사적관, 조선혁명박물관, 김일성종합대학 혁명사적관을 비롯해 김일성 부자가 시찰한 단위도 집단으로 참관 진행

● 北, 신임 철도상에 전길수 씨(10/4,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내각의 김용삼 철도상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후임에 이 부처 참모장인 전길수 씨가 기용된 것으로 확인, 조선중앙통신은 10월 4일 라진-하산 철도 및 라진항 개건 착공식을 전하는 가운데 이 행사에 참석한 전씨를 철도상이라고 언급, 이 같은 사실을 확인

※ 전길수 철도상은 수송지휘국 1부국장, 수송지휘국장, 참모장 등을 지냄.

다. 경제 관련

● 北 노동당 창당 기념사설, 경제 총공격전 독려(10/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노동당 창당 63주년(10.10)을 맞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총공격전을 벌여 당이 제시한 경제강국 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빛나게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신문은 이날 ‘일심단결의 기치 높이 전진하는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 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이룩되고 있고 정권 수립 60주년(9.9)을 계기로 “경제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진격의 돌파구가 열렸다”면서 이같이 촉구
- 신문은 특히 “강성대국의 미래에 대한 신심과 낙관을 갖고 드세찬 공격전을 벌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야 한다”며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인민경제의 기술개선 사업을 적극 다그치며 천리마 대고조 시기처럼 내부예비(유휴자재)를 남김없이 동원하기 위한 투쟁을 전 사회적으로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주문

● 北, 비료·비닐 적게 쓰는 종자 개량 주력(10/10, 조선중앙방송)

- 농자재 부족으로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영농관련 연구·교육기관들이 비료나 모내기용 비닐을 적게 쓰면서도 소출을 높일 수 있는 종자개량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0일 보도
- 방송은 농업과학원 산하 벼연구소, 작물재배연구소, 농업기계화연구소와 농업과학분원들에서는 “불리한 자연조건에 대한 견딤성이 강하고 적은 비료를 가지고도 많은 소출을 낼 수 있는 새로운 벼 품종을 확대 도입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가고 있다”고 보도

● 4년 연속 풍수해 北들녘 오랜만에 ‘풍년’ 기대(10/8, 연합)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연속 각종 풍수해에 시달린 북한이 올해 여름과 초가을은 ‘무사히’ 넘김으로써 만성적인 식량난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 9월 방북했던 대북지원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관계자로부터 “올

해는 대풍”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하기도 함.

- 북한 매체들은 올해 작황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북한 당국이 연일 노동당 조직을 “총동원”해 “가을걷이 전투”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임.

● 유럽기업인투자단, 北과 IT사업 여러 건 계약(10/8,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방북한 유럽과 중국기업 투자단이 북한측과 상담을 통해 휴대전화 게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투자단을 인솔한 네덜란드 정보기술자문회사인 GPI컨설팅사의 폴 치아 대표가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
- 치아 대표는 “이번 산업시찰 이후 벌써부터 (북한과) 사업을 전개하려는 기업이 있다. 유럽기업들이 북한의 정보기술(IT)분야에서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한다”며 “곧 여러 개의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
- RFA는 이번에 방북한 스페인과 스위스, 네덜란드, 중국 기업들은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평양에서 투자 상담을 벌였다고 설명

● 北, 강성대국건설 동원에 ‘태천의 기상’ 강조(10/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초 “선군시대의 새로운 투쟁 정신”이라고 제시했던 ‘태천의 기상’을 발휘해 ‘강성대국’을 실현할 것을 주민들에게 강력히 촉구
- 신문은 ‘창조하라, 공화국의 번영을 위하여’라는 장문의 ‘정론’을 통해 “태천의 기상”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창조정신”이라며 ‘태천의 기상’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 ‘태천의 기상’이란 김정일 위원장이 2007년 1월 하순 새로 건설된 평안북도 태천4호발전소를 시찰한 자리에서 청년 돌격대원들이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했다며 그 ‘투쟁정신’을 명명한 것으로, 그 이후 북한 매체들은 “태천의 기상은 조선의 기상”이라고 주장
- 신문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려고 내세웠던 ‘강계정신’이 “사회주의 수호정신”이었다면 ‘태천의 기상’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창조정신, 제 힘으로 자기식으로 창조하며 비약하는 기상, 창조를 해도 통이 크고 대담하게 모든 것을 변혁해가는 기상”이라고 선전
- 신문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진군의 앞장에서 용감하게 돌진하고 있는

평안북도 인민들의 백절불굴의 강행군은 장군님의 뜻을 따르는 결사옹위의 대행진, 장군님의 구상을 실천하는 결사관철의 대행진”이라며 평안북도를 “강성대국 건설의 선구자”로 규정

● UNICEF, 北지원 식품서 멜라민 미검출(10/7,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자신들이 북한 어린이와 산모들에게 지원하는 땅콩 영양식품 등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7일 발표, UNICEF 뉴욕본부의 매킨 맥코맥 공보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UNICEF가 영양실조 치료제로 북한 어린이들에게 공급한 땅콩영양식품(RUTF)에서 “현재까지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보고는 없다”며 이 식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고 설명
- UNICEF는 올 상반기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개선사업의 하나로 함경북도와 량강도 지역의 5살 미만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 약 8천900명에게 땅콩영양식품을 제공했으며 6-11살 초등학교 어린이와 임산모 수만명에게 각각 영양과자와 영양보충제를 공급
- 매킨 맥코맥 공보관은 “UNICEF가 국제적으로 모유수유 권장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분유를 직접 공급한 실적은 없다”고 말하고 “다만 북한에 공급되는 영양식품의 재료 가운데 일부가 중국산 유제품일 가능성을 고려해 앞으로 북한에 공급되는 영양식품에 대해 더욱 철저한 식품 안전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
- UNICEF에 따르면 북한에서 6개월 미만 영아들에 대한 모유 수유율은 2006년 기준 약 65%로 주변국들에 비하면 높지만, 전체 산모의 3분의 1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빈혈을 앓고 있어 모유를 먹은 영아들이라고 해도 영양실조와 저체중 등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 매킨 맥코맥 공보관은 “북한 어린이들의 높은 영양실조율과 저체중율, 그리고 개선되지 않는 임산모들의 영양상태, 식수사업과 교육 등을 위해 올해 1천 5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6일 현재까지 3분의 1수준인 500만 달러가 걸쳐 북한 어린이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더 많은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고 RFA는 보도

● 北외채 180억 달러...GDP 육박(10/6, 연합뉴스)

- 북한의 외채 규모가 180억 달러에 달한다는 추정이 제기됨. 국회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권영세(한나라당) 의원은 7일 정보 당국으로부터 파악한 결과, 북한의 대외채무 규모는 러시아, 중국 등 30여 개국에 180억 달러(달러 당 1천200원 기준환산시 21조6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언급
- 이는 작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24조7천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며 이중 한국의 대북 차관은 1조1천9억 원으로, 북한 외채의 5%에 해당

● 北, '휴대용 노래반주기' 제작(10/6, 조선신보)

- 북한의 음향기기 생산업체인 메아리회사(전 메아리음향사)는 TV수상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화면과 반주를 즐길 수 있는 휴대용 노래반주기를 제작했다고 조선신보가 6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무선 마이크 중간에 숫자 버튼이 붙은 모양의 '마이크식 화면자료 반주기'에는 1천500여 곡의 화면반주 음악이 저장돼 있으며 노래에 대한 점수 평가, 녹음에 의한 2중창 등의 기능도 갖춰져 있음.

● 北예술단, 생산현장 경제선동 강화(10/6, 노동신문)

- 북한은 중앙예술단체는 물론 각 지역의 모든 예술선전대, 기동예술선동대 들을 주요 산업시설에 파견해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경제선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
- 이 신문 9월 29일자는 '경제선동의 북소리 높이 총공격전을 힘있게 추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예술선전·선동대를 통해 "총 3만 832개 단위에서 11만 7천315회에 걸쳐 1천31만 5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제선동이 진행됐다"고 언급

라. 군사 관련

● 北, 9월 서해상서 사격·對地공격훈련 실시(9/12, 연합뉴스)

-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연이어 '위기지수'를 높이고 있어 군 당국이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정부의 한 소식통은 12일 "북한은 9월 중순과 하순 백령도 위쪽의 장산곶 근해

에서 경비정의 실사격훈련과 가상 대지(對地) 공격훈련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힘.

- 이들 훈련에는 서해 초도 등에 전개된 서해함대사령부 소속 8전대의 경비정 수척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은 이들 훈련에 이어 10월 7일에는 서해 상공에서 공대함 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으며 9일에는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 함정이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해상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됐다”고 주장
- 이와 함께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 횟수도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7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北해군사령부, 서해 무력충돌 경고(10/9, 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

-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9일 우리 해군이 북한 영해를 잇따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수역에서 “해상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됐다”고 말하고 “우리(북한)의 자주권을 건드리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하여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북한 해군사령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국군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NLL 고수책동”으로 인해 “서해상에서는 언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의 불씨가 될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해군은 아무런 법적 기초도 우리와의 사전협의도 없이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을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만들려는 남조선 괴뢰군당국의 처사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해군, 南함정 서해 NLL 넘은적 없다(10/9, 연합)**

- 해군 관계자는 9일 우리 해군 함정이 북측 영해를 잇달아 침범하고 있다는 북한 해군사령부의 주장과 관련, “남측 함정은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적이 없다”고 발표, 이 관계자는 “우리 함정은 NLL 이남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실태를 감시하고 있다”면서 “NLL을 월선하거나 북측에 군사적으로 위협을 줄만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

● 北, 국군의 날 행사 비난(10/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건군 60주년 ‘국군의 날’(10.1) 행사에 대해 “군사적 대결을 고취하는 불순한 소동”이라고 8일 비난, 신문은 ‘분별없는 군사적 대결 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북남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는 첨예한 정세속에서” 정부가 국군의 날 행사에서 “도발적인 놀음을 요란하게 벌인 것은 스쳐지날 수 없다”고 언급
- 신문은 특히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같은 날 열린 ‘10·4선언’ 발표 1주년 기념행사엔 불참한 채 국군의 날 행사에만 참석한 점을 들어, 국군의 날 행사의 “대결적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주장
- 이어 신문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다시 거론, “이것이 우리를 자극하고 적대감을 고취하며 나아가서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속셈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뻔하다”고 주장

● 北, 소형 핵탄두 개발 추진 중(10/8, 연합)

- 김태영 합참의장은 8일 “북한은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
- 김 의장은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같이 답변한 뒤 “(북한이 현재 소형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언급

●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10/8, 조선일보)

- 북한이 오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7일 오후 서해안에서 단거리 지대함(地對艦) 또는 함대함(艦對艦)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
- 정부의 대북 정보 소식통은 “북한군이 해군 9전대 기지가 있는 황해북도 초도에서 7일 오후 KN-01 지대함 미사일 또는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하고 발사한 미사일 발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KN-01은 중국제 실크웍 지대함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최대 사정거리는 110~120km이고,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46~50km임.
- 정보 당국은 북한이 최근 초도 지역 해안에 미사일들을 가져다 놓은 데다, 서해안에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하고 선박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정부 소식통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북한 군부의 견재함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北, 참여정부 기간 6천500만 달러 무기 도입(10/6, 연합뉴스)

- 북한이 참여정부 5년동안 모두 6천5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해외로부터 도입한 것으로 드러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권영세(한나라당) 의원이 6일 정보 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중국, 러시아, 슬로바키아, 독일 등지로부터 연평균 1천3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류를 도입함.
- 특히 중국으로부터는 중고 군용 차량과 군복 등 군 후방물자를 지원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권 의원은 밝힘.
- 이 기간 북한은 육·해·공군 군사력을 상당부분 증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보 당국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상군은 스커드 및 노동 등 각종 지대지 미사일과 장사정포, 야포 등 포병 군력 위주로 증강됐으며, 해군은 소형잠수함 및 해상정비용 소형함정 중심으로 보강됐다. 공군의 경우 기존 항공기 수리정비를 통해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마. 사회·문화 관련

● 美시판 평양소주, “인기 시들”(10/11,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4월 미국에 상륙한 북한의 평양소주가 처음엔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현재는 소주맛과 통신·통행·통관의 어려움 때문에 외면받고 있다고 평양소주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당씨 주류도매(Tang’s Liquor Wholesales)’ 대표 당갑정 씨가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
- 당갑정 씨는 평양소주는 주문을 해도 제때에 공급되지 않고, 특히 특별관세가 붙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국 소주에 비해 원가가 한 박스당 10달러 가까이 더 비싸다고 설명, 그러나 식당측은 서민 술인 소주 값을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원가에 가까운 가격에 팔고 있어 수익을 볼 수 없음. 평양소주는 좋은 술이긴 하지만 냄새도 안 나고 부드러운 한국 소주와 달리

냄새가 나서 젊은 층으로부터 독하고 쓰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고 당씨는 설명

● 北, 평양 홍보 사이트 ‘류경’ 개설(10/11, 우리민족끼리)

- 해외동포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등을 위한 북한측 창구인 ‘해외동포원호위원회’가 최근 평양을 홍보하고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류경(www.ryugyongclip.com)’을 개설
- 중국 선양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이 사이트에는 특히 남한 검찰의 ‘여간첩 사건’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반박한 9월 2일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영변 핵시설의 원상복구를 경고한 9월 19일자 외무성 대변인 답변 등 북한의 기관·단체가 발표한 입장도 실려 있음.

● 北김일성대, 건강식품 ‘푸코이단’ 개발(10/10, 조선신보)

- 김일성종합대학 생물정보연구실이 최근 동해의 다시마와 미역귀 등 해초를 이용해 피를 맑게 하는 건강식품인 ‘푸코이단(Fucoidan)’을 개발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평양 창광종합전문식당가 산뜻하게 새단장(10/9, 연합)

- 평양시내 중심지인 창광거리가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2009년 4월까지 대대적인 개선공사를 통해 새롭게 단장, 9일 인천시와 북한측 관계자에 따르면 평양시 중구역 창광거리는 종합전문식당가 조성을 위해 곳곳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왕복 8차선인 도로 양측을 따라 한창 진행 중임.
- ※ 창광거리는 1985년 건설된 15~39층짜리 고층아파트 30여 개 동과 각종 공공시설들이 밀집한 평양시내 최대의 도심이며 인근엔 44층인 고려호텔 등이 자리잡고 있어 내·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지역

● 발명·새기술 전람회 폐막(10/8, 조선중앙방송)

- 10월 1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된 제10차 전국 발명 및 새기술 전람회가 8일 폐막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로두철 내각 부총리와 김용진 교육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놓은 107명에게 금메달이 수여됐다고 방송은 보도

● 北, 대형 대중목욕탕 '문수원' 새단장(10/8, 조선신보)

- 북한은 평양의 대표적인 대형 대중 목욕탕인 문수원을 20여 년만에 대대적으로 보수, 정권 수립 60돌(9.9)을 계기로 면모를 일신했다고 조선신보가 8일 보도

● 北 인구조사 순조롭게 진행(10/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10월 1일 시작된 인구주택총조사에 북한 당국과 주민들이 적극 협조하고 있어 조사가 “무척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유엔 인구기금(UNFPA)의 오마 가제딘 아시아 담당관이 밝힘.
- 그는 8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인구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평양 인근의 몇몇 도시에서는 텔레비전, 신문, 거리의 포스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인구조사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모습이 목격”됐고, 주민들도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
- 이번 조사에 참여한 UNFPA 요원 10명이 2명씩 총 5개조로 나뉘어 표본으로 선정된 60개 군을 방문 조사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들 국제요원은 북한 요원들의 인구조사표 작성 과정을 지켜보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부 응답자에 대해선 직접 재조사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는 그럴 필요도 없을 만큼 북한 요원들의 업무 수행은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가제딘 담당관은 언급
- ※ 인구조사 중간 결과는 오는 12월, 최종 결과는 내년 3·4분기에 나올 예정

● 김정일, 평양 조명 위해 기술자 해외 연수 실시(2008년 10월호, 조국)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근 평양의 밤을 밝히는 주요 기념물과 거리 등의 조명을 위해 2000년 1월 1일 ‘평양시 조명사업’을 지시하면서 ‘없는 살림’에 조명 기술자들을 외국에 연수도 보낸 것으로 알려짐.
- 월간지는 김일성광장과 만수대의사당, 주체사상탑 등 주요 건물과 거리, 광장의 조명을 2007년 10월 설립된 ‘불장식연구센터’가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北, 영변 핵시설에 IAEA 검증팀 접근 차단(10/9, 연합뉴스 로이터 통신)
 - 북한 당국이 9일 모든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검증팀 활동에 정통한 외교관이 주장, 이 외교관은 검증팀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이날부터 영변의 모든 핵시설에 접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언급, 검증팀은 현재 영변의 숙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 ※ 북한은 2주 전인 9월 24일 IAEA 검증팀이 영변의 재처리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며 재처리 시설의 가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통보했으나 그 외 시설에 대해선 검증팀의 접근이나 활동을 허용해 왔음.

나. 북·미 관계

- 美, 北 테러지원국서 해제(10/12,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1일 (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며, 이에 따라 북한은 핵불능화 작업에 복귀했다고 발표,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에서 성 김 북핵특사, 폴라 드서터 검증·준수·이행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핵검증 패키지에 포함됐다”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발표
 - 이번 합의는 북한이 과거에 추출했던 플루토늄 양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및 핵확산 활동 등에 대한 검증도 포함됐으며, 이를 위해 북한이 신고한 시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방문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음. 다만 북한의 미신고 핵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하에 검증이 이뤄지도록 함.
 - 이와 함께 6자회담 당사국 전문가들의 검증 과정 참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문·지원 역할 이행, 시료(샘플) 채취 및 과학적 입증 활동 보장 등이 검증 패키지에 포함
 - 이번 합의는 지난주 사흘간 북한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사이에 이뤄진 것이며, 조지 부시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은 것임.

- 매킨맥 대변인은 그간 미국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일본측과도 밀도있는 협의를 가졌고, 일본 정부도 테러지원국 해제에 동의했다고 언급
- 또 매킨맥 대변인은 북미 합의사항을 6자회담에서 공식화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혀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될 것임을 시사

※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1988년 1월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뒤 20년 9개월만에 테러지원국의 굴레를 벗게 되었음.

● 北, 美대선은 “돈 뿌리기 경쟁” 매도(9/25,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돈 뿌리기 경쟁”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의 ‘부패’를 집중 부각, ‘달러(달러)에 의해 좌우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전’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내달 치러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열기 띤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 경쟁이란 누가 선거자금을 더 많이 긁어모아 돈주머니를 불룩하게 채우는가 하는 경쟁”이라고 주장

다. 북·중 관계

● 北·中, 철도화차 반환 놓고 해묵은 갈등 재연(10/6, 연합뉴스)

- 북중 양국이 국경을 오가며 물자수송에 사용되는 철도화차 반환문제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대북 소식통은 6일 “중국이 올해 7월부터 북한의 화차가 들어와 물자를 싣고 나가는 경우가 아니면 국경 통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북중 철도 당국이 앞으로 열릴 국경철도회의에서 화차반환 등 철도합의 개정을 놓고 논의를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언
- 중국 선양(瀋陽)의 한 대북 무역업자도 “중국에서 북한 화차에만 물건을 싣어 내보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바람에 이후 북한으로 물자수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철도화물 수송에서 중국의 민간회사 소유화차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북한에서 화차를 돌려받지 못한 중국 기업들의 민

원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

- 북중 양국은 1959년 체결, 1973년에 개정한 북중철도협정과 매년 10월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는 정례 국경철로회의 의정서를 통해 베이징(北京)-평양 국제열차운행과 양국간 철도화물 수송을 뒷받침하고 있음.
- 양국은 매년 10월 국경철로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전년 7월1일부터 당해 6월30일까지 양국에 남아 있는 자국 철도화차 숫자를 확정, 의정서에 기록함. 2001년 6월 30일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중국 화차는 무려 1천933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작년 7월에는 북한의 철도화차 미반환을 이유로 중국이 화물수송에 난색을 표명,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원조가 차질을 빚기도 했었음.
- 중국은 북한의 철도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그간 대북 원조 형식으로 북한에 디젤기관차 및 화차를 지원해왔음. 중국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올해 7월 북한 화차로만 화물을 수송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대신 북한에 화차 1천 대를 지원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최근 단둥에 들어오는 북한 화차들이 신형 유개화차로 바뀐 점으로 미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라. 북·러 관계

● 北박의춘 외무상, 15일 러시아 방문(10/10, 리아노보스티 통신)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10월 15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10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러시아 외교 소식통을 인용·보도, 이 소식통은 “박 외상이 1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
- 이번 회담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와 북한과 러시아 간 철도 연결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짐.

● 北주재 러 대사관, 북·러 수교 60돌 연회 개최(10/10, 평양방송)

-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9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러 수교 60주년(10.12)을 앞두고 북한 내각 고위 인물들을 초청, 연회를 열고 친선관계 증진을 강조했다고 평양방송이 10일 보도
- 연회에는 북측에서 박의춘 외무상과 궁석웅 외무성 부상, 김 철 철도성 부

상, 리명산 무역성 부상 등이 참석

● **北철도상, 아시아·유럽 국제수송로에 중요한 고리(10/9, 조선신보)**

- 북한의 전길수 신임 철도상은 북한과 러시아가 라진-하산 철도 및 라진항의 개선 공사에 실제 착수한 것을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계속 심화”돼 온 양자 간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새로운 단계에서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신보가 9일 보도
- 그는 특히 54km에 달하는 라진-하산 간 철도구간의 개선은 길지 않은 노선이지만 북한과 러시아 간 육상수송로를 새로 정비하는 것을 벗어나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대륙 간 수송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국제수송 통로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된다”고 언급
- 라진항 개선공사는 라진항 3개 부두 가운데 제3부두에서 낡은 설비들을 제거하고 크레인 등 새 설비를 설치하며 부두를 확장·보강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당면하여 1단계 공사는 2010년 10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언급

마. 북·일 관계

● **日, 北, 테러지원국 명단서 제외는 시기상조(10/10, 연합)**

-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조치는 북핵 검증작업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이 10일 주장
-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즉각 제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이와 관련해 일본과 좀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北, 日 무력증강에 “국방력 강화”로 답할 것(10/8,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8일 일본의 잇따른 요격미사일 실험 계획은 “미사일 선제공격 능력을 보유해 재침의 포성을 열려는” 것이라고 하며 북한은 일본의 “무력증강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대담해 나설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어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합동훈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 및 항구법 개정 움직임 등을 거론하고 “선제타격 권리는 일본에만 있지 않다”고 주장

바. 기타 외교 관계

● 北종교인 대표단, 필리핀 향발(10/11, 조선중앙통신)

- 장재언 회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의 종교인협의회 대표단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종교평화대회 제7차 총회 참석차 11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한·이집트軍 친선 외교(10/7, 조선중앙통신)

- 아흐메드 아보 세리 아우프 모하메드 북한 주재 이집트 대사관 무관이 이집트 ‘군대절’(군 창설일)에 즈음해 7일 평양시내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연회에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비롯한 북한군 장성 및 장교들, 북한 주재 각국 외교 대표와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됐으며, 이스마일 압둘라흐만 고네임 후세인 북한 주재 이집트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도 참석

● 탈북경로 동남아국들과 공안협력(10/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주상성 인민보안상과 방북 중인 베트남의 레 홍 아잉 공안장관(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 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을 갖고 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양 기관 간 체결된 상호협조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베트남이 태국, 라오스 등과 함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주요 경로인 점을 감안할 때, 탈북자 관련 협력사항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있음.
※ 주상성 보안상은 지난 6월 베트남과 라오스를 차례로 방문, 농 득 마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촘말리 사야손 라오스 국가 주석을 각각 면담했으며, 통반 센가폰 라오스 내무장관과는 상호 사회안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음.

3) 대남정세

● 남북 음악인 평양서 윤이상 작품 첫 협연(10/11, 연합)

- 윤이상평화재단(이사장 박재규)은 15-17일 평양 윤이상음악당에서 열리는 제27차 '윤이상 음악회'에 남측 첼리스트인 고봉인 씨가 참가해 평양 윤이상관현악단과 협연할 예정이라고 11일 발표, 남북 음악인이 한 무대에서 윤이상(1917~1995)의 작품을 연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윤이상평화재단은 설명

● 통일부, 비핵화 진전시 대북사업 조정될 것(10/10, 통일부)

- 통일부는 10일 북한 핵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비핵·개방·3000' 구상에 따라 각종 대북 사업에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미간 핵검증 협상이 타결되면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비핵·개방·3000' 구상을 갖고 있다고 소개한 뒤 "핵문제에 진전이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각 분야 사업들이 검토가 되고 우리가 천명한 입장에 맞춰서 조정돼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언급

● 내년 남북기금에 쌀 40만t·비료 30만t 반영(10/9, 통일부)

-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 계획에서 북한에 현 시세를 기준으로 쌀 40만t, 비료 30만t을 각각 지원할 수 있는 액수를 반영했다고 통일부가 9일 발표

- 정부가 마련한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에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을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쌀 지원 예산 3천520억 원, 비료지원 예산 2천917억 원을 각각 편성

※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대북 지원 규모와 같은 양이지만 쌀·비료의 국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액수 기준으로는 쌀 50만t, 비료 40만t을 반영했던 올해 예산(3천485억 원)보다 46% 늘어났음.

- 반면 대북 경제사업 예산은 북핵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이른바 '경협 4원칙'을 적용한다는 정부기조에 따라 올해의 6천 101억 원에서 약 51% 감소한 3천6억 원이 편성, 그러나 개성공단 2단계 조

성을 포함한 10·4선언(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 비용과 개성공단 숙소 건설비용 등은 이번 협력기금 사용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음.

- 다만 남북 간 관련 논의가 진행돼 사용 수요가 생길 경우 예비비 형식으로 책정한 여유자금 2천530억 원을 사용한다는 복안이라고 통일부는 보도
-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내실있게 진행한다는 방침 아래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2차) 착공(109억원) 및 소방서 건립(57억원) 비용을 반영하고 교역 및 경험자금 대출 예산을 올해 300억 원에서 352억 원으로 증액
- 이런 조정을 거쳐 도출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 운용규모는 1조5천86억 원으로 올해 당초 사용계획에 반영된 1조3천887억 원에 비해 8.6% 증가

● 평양에 현대식 치과병동 첫 준공(10/9, 연합)

- 인천시와 우리겨레하나되기(이하 우리겨레) 인천운동본부 등이 협력해 현대화 사업을 마친 평양 제1인민병원 부설 치과병동이 10월 7일 준공식을 개최
- 이 치과병동은 우리겨레 인천운동본부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2007년 체결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현대화사업이 추진됐음. 인천시는 총 10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1억 원 가량의 건축자재와 2억 원 규모의 의료장비 등 모두 3억 원을 지원했으며 우리겨레 인천운동본부가 7억 원을 부담
- 시와 우리겨레 대표단 79명은 지난 6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치과병동 준공식에 참석하고 나서 8일 귀국

● 통일부, 개성공단 40대 근로자 증가 추세(10/8, 통일부)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공단 입주기업들의 근로자 고용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한 뒤 “4월 이후에 20~30대 근로자의 증가는 정체가 되고 있지만 40대 근로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4월 말 13.7%였던 40대 근로자 비율이 8월 말 기준으로 16.5%로 증가했다”고 소개
- 이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20~30대 여성을 개성 시내에서 더 이상 데려오기가 어려워지고 작년 남북이 합의한 숙소 건설도 진척이 없음에 따라 공단 업체들이 대응책 차원에서 근로자 연령대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통일부는 8월 말 기준으로 개성공단 생산직 근로자 3만3천여 명 중 여성 비율이 약 86%이며, 연령별로는 20~30대의 비율이 80%를 상회한다고 발표

● **金통일, 연내 대북 식량지원 노력 중(10/6, 통일부)**

-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6일 연내 대북 식량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 시기를 묻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내부적으로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인데, 시간의 문제이며 꼭 지원할 것”이라고 답한 뒤 “올해 안에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
- 김 장관은 또 “정부는 북의 요청이 없더라도 식량사정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방법.규모.시기를 검토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적절한 계기에 대북 식량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

● **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자제 요청(10/8, 통일부)**

- 통일부는 최근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이 중지를 요구한 민간단체의 대북 선전물(빠라) 살포 문제와 관련, 8일 “관련 단체들에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힘.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2004년 6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한 남북 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 준수한다는 입장 하에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

● **金통일, 기념행사 불참 불구 10·4입장 불변(10/6, 통일부)**

-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0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 산물인 10·4선언 채택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10·4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6일 밝힘.

별첨: 美-북한, 핵검증 합의 全文(10/11, 미국무부)

미국 국무부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를 발표하면서 그간의 협의진행 상황과 핵검증에 관한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국무부의 발표 내용 전문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신뢰성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검증수단의 중요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올해 7월 만나 검증수단에 관해 협의하고 당사국들간에 문서 초안을 교환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7월 12일 검증방안에는 북한 내 시설방문과 문서검토, 기술진을 상대로 한 인터뷰, 6자회담 당사국들 간에 만장일치로 합의된 여타 방안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의 언론발표문을 내놓았다.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을 대표해 미국의 협상팀이 10월 1~3일 평양을 방문, 검증방안에 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의를 토대로 미국과 북한 협상팀은 중요한 검증수단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6자회담 당사국의 전문가들이 검증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전문가도 포함된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검증에 중요한 자문과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 전문가들은 신고된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에 의해 접근한다.
- 샘플링과 실증적으로 규명해내는 과학적인 절차의 이용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 검증체계에 포함된 모든 조치들은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모든 우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 등에 적용된다. 여기에 6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 이미 합의된 감시체계는 핵확산과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적용된다.

이러한 검증수단에 관한 미국과 북한의 합의는 양국간 공동 문서와 여타 약정으로 성문화됐으며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재확인됐다.

합의내용과 부수된 양해사항은 여타 당사국들에게도 전달됐다.

검증수단들은 가까운 미래에 6자회담 당사국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채택될 검증의 정서의 기준선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이 6월 26일 제출한 핵신고서의 검증은 5월 8일 제출된 영변 핵시설의 가동 기록에 관한 1만8천 쪽이 넘는 문서의 검토작업과 함께 이미 시작됐다.”

10.13-10.19

10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증조모 기일에 화환 전달(10/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8일 증조모인 리보익 사망 49돌(10·18)을 맞아 만경대에 있는 묘에 화환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행사장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했으며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의 성, 중앙기관, 평양시내 당·정 기관과 협동농장 명의를 화환도 진정, 통신은 김 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으로 호칭함.

- 김정일, 영농물자 전달 보도(10/17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측 강원도 고산군에 있는 고산과수농장에 영농물자들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보도, 이 농장은 지난 5월 초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하면서 농장을 대규모 과일 생산기지로 꾸리고 과일 생산도 늘리도록 지시하고 영농물자를 전달했던 곳임. 이번엔 현지지도 없이 16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리철봉 강원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철호 과수연합총회사 총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짐.
 - 조선중앙방송은 또 김 위원장이 최근 평양시내 인민대학습당에도 여러 차례 100종에 달하는 도서와 CD자료를 보내줬다고 보도

- 北, 김정일 군 시찰 관련 해외 보도 주시(10/15,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821군부대 예하 여성포중대를 시찰한 소식을 "11일과 12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했다"고 전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동정에 대한 해외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이 반응을 주민들에 대한 선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내비침.

나. 정치 관련

● 자주권 침해, 내정간섭 불용(10/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우리 공화국의 대외정책 이념은 확고부동하다’ 제목의 논설에서 “현 국제정세는 의연히 복잡다단하다”며 북한은 “자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을 간섭하며 지배 통제하려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신문은 이어 “제국주의 반동들”은 북한에 대해 “폐쇄니, ‘고립’이니 하고 험담하고 있다”면서 이는 “어처구니없기 짝이 없는 비방 중상”이라고 지적한 후 북한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식대로 정책을 작성하고 집행해 나가며 자주정치, 선군정치로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쳐 나가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자주, 평화, 친선은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 위업을 추동하는 우리 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근본이념”이라고 강조
 - ※ 이 논설은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9월 9일)을 앞두고 9월 5일 발표했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는 담화에서 대외관계와 관련한 언급을 해설한 논설

● 北, 외교관들에 ‘중대 발표’ 대기 명령(10/18, 요미우리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대 발표”를 앞두고 해외 주재 외교관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 신문은 북한 당국이 세계 전역의 자국 외교관들에게 여행을 자제하고 한 장소에 머물러 있을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

● 南단체 뼈라 살포 비난(10/1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8일 ‘노골적인 동족대결선언’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의 대북인권단체가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63주년(10.10)에 맞춰 ‘대북선전물(뼈라)’을 북측으로 날려보낸 데 대해 이명박 정부의 “우리(북한) 체제에 대한 악랄한 도발”이라고 비난

● 北, 남북관계 전면 차단할 수도… 협박(10/16,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노동신문은 16일 '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反)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논평원은 이날 "(남측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는 극우분자들이 들어앉아 있는 이상 북남관계가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이명박 패당의 반공화국 모략 소동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 그 누구도 역적 패당을 구원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 北, 정치적 안정과 단결 강조(10/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빛나는 역사를 창조하신 불세출의 위인'이란 제목의 장문의 논설에서 "아무리 방대한 군사·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사회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단결돼 있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은(성과)을 낼 수 없고 결국에는 강국의 지위를 잃게 된다는 것을 역사는 한두번만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을 강조
- 신문은 김 위원장의 9월 5일자 '담화'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면서 "영도자의 두리에 뭉친 군대와 인민의 단결의 위력만 있으면" 어떤 정치·군사적 압력과 경제적 봉쇄와 사상문화적 공세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주장
- 특히 '강성대국'의 개념을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신문은 설명

● 北방송들, 테러지원국 해제 주민들에게 보도(10/13,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 평양방송 등 북한 방송매체들은 13일 '10·3 합의'에 따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사실과 6자회담 참가국들이 지금까지 중유 35만과 설비자재 6천여만 달러어치를 북한에 제공한 사실을 보도
- 조선중앙방송은 "앞으로 10·3합의의 이행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5자의 경제보상이 완료되는 데 달려 있다”며 “5자는 10·3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100만의 중유에 해당하는 대용 에너지를 제공하고 그중 70만은 중유 현물로, 나머지 30만분은 발전용 설비자재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며 지원 현황을 소개

- 방송은 또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평양에서 조(북)·미회담이 열려 회담에서는 10·3합의에 따르는 정치·경제적 보상 의무 이행 과정에 제기된 장애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진지하고 유익한 토의가 진행됐고 일련의 합의가 이룩됐다”며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10월 11일 우리나라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마감조치를 취했다”고 발표
- 이어 방송은 “미국이 정치보상 의무 이행을 끝내고 조·미 쌍방사이에 무력화 단계에 부합되는 공정한 검증절차가 합의된 데 따라 우리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서 10·3합의에 따르는 자기의 의무를 계속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

● 北, '김정일 담화' 관철 정국 조성(10/13, 노동신문)

- 북한 매체들은 담화 발표 이전부터 김 위원장의 담화 하달에 관해선 언급없이 담화 내용에 따른 보도물을 쏟아냈지만, 10일 발표 이후엔 연 나흘째 이 담화를 거론하며 사설 등을 통해 그 실천운동을 독려
- 노동신문은 13일 ‘당의 영도따라 우리 공화국을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끝없이 빛내이자’는 제목의 장문의 사설을 싣고 이 담화를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으며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에게 하신 역사적인 시정연설”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노작에 제시된 사상이론을 구현해 사회주의 조국의 존엄과 위력을 만대에 떨쳐나갈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보도

● 노동신문, 10·4선언 부정 평가는 정면대결 선언(10/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하늘에 대고 주먹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북남관계를 더욱 더 헤어나기 어려운 파국으로 몰아가는 분별없는 망동”이라고 비난

다. 경제 관련

● 가을걷이로 분주한 北농촌(10/17, 조선중앙방송)

- 북한 농촌이 벼와 옥수수, 감자의 가을걷이로 분주, 조선중앙방송은 17일 “온 나라 협동벌이 가을걷이로 세차게 들끓고 있다”며 “서해 곡창지대에서 벼 가을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다”고 보도
- 방송은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 농업 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으로 매일 벼 베기 실적을 높이고 있으며, 북부지대인 함경남·북도와 자강도에서는 벼와 옥수수 가을을 기본적으로 마치고 탈곡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도
- ‘감자의 고향인 대흥단군 등 량강도에서는 감자 수확이 마무리 단계이고, 콩 농사도 70% 이상 완료, 또한 북한은 옥수수 수확을 마침과 동시에 이모작을 위해 가을밀과 보리 파종을 하는데, 10월 중순 파종을 모두 완료함.
- 가을걷이를 위해 주민 노력 동원과 농민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경제선동도 강화, 신문·방송들은 최근 연일 ‘모두 다 가을걷이 전투예로’라는 제목으로 추수를 독려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고, 노동당 출판사에서는 ‘귀중한 낱알을 허실하지 말고 제때에 말끔히 가둬 들이지’는 선전화(포스터)를 제작·보급, 또 중앙 예술단체는 물론 각 도 예술단과 시, 군 기동예술선동대를 협동농장에 파견해 공연과 화술 등 다양한 방법의 정치선전과 경제선동을 집중적으로 진행

● 北, 시멘트, 작년보다 30% 증산(10/9,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생산한 시멘트 총량이 2007년 생산량보다 30%나 증가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건설건설공업성 박영수 부국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
- 방송은 특히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평남 순천시), 천내리시멘트공장(강원도 천내군), 대안천선유리공장(평남 대안군) 등의 시멘트 생산과 유리생산이 혁신적으로 증가해 “최근 년간에 가장 높은 생산실적으로 기록됐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음.

라. 사회·문화 관련

- **北평양의대, 4개국어 등재 의학사전 출판(10/18, 조선신보)**
 - 북한 보건의료의 '메카'인 평양의학대학은 최근 한글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국어 용어를 함께 표기한 의학대사전을 새로 편찬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제11차 인민체육대회 개최(10/17, 조선중앙통신)**
 - 제11차 인민체육대회 개최가 17일 김일성경기장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축구, 농구, 배구, 탁구, 육상 등 30여 개 종목의 경기가 열리는 이번 대회 개막식에는 김중린 당 중앙위 비서, 광범기 내각 총리,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 등이 참석
- **北, 싱가포르 청소년올림픽 선수 선발중(10/16, 조선신보)**
 - 조선민족올림픽위원회는 각각 2010년 8월과 2009년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제1회 청소년올림픽경기대회와 제1회 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선발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6일 보도, 신문은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우선 참가 종목을 확정했다며 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축구, 탁구, 송구(핸드볼), 권투, 유술(유도), 레슬링, 기계체조, 예술체조(리듬체조), 육상, 물에 뛰어들기(다이빙), 수중발레 등임.
- **평양의대병원, '안경'으로 두통치료(10/16, 조선신보)**
 - 평양의대병원이 최근 안경처럼 생긴 '뇌파울동조종기구'를 이용해 두통을 치료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작은 장치가 달려있는 이 색안경을 끼고 20~30분간 눈을 감고 있노라면 눈시울에 번쩍번쩍하는 빛자극이 가해지고, 점차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아픔이 사라지고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치료 과정을 소개
- **평양서 윤이상음악회 개막(10/15, 조선중앙통신)**
 - 제27차 윤이상음악회가 15일 평양시 윤이상음악당에서 개막돼 10월 17일 까지 열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개막 공연에는 북한의 중앙예술단체

와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관현악단 예술인들이 출연

- 강능수 문화상과 문화예술부문 창작가 등 북측 관계자와 윤이상 선생의 부인과 딸, 신계륜 이사를 단장으로 한 남측 '윤이상평화재단' 참관단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통신은 보도

● 北평양안과병원, '유리체-망막 수술' 성공(10/14, 조선신보)

- 국제라이온스협회가 건립을 지원한 북한의 '평양안과병원'이 안구에서 이상이 있는 유리체를 떼어내고 인공 유리체를 끼워넣는 '유리체-망막 외과수술'에 성공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김일성대, 식용 참나무목초액으로 특허(10/14, 조선신보)

- 김일성종합대학이 식용 약물로 개발한 참나무목초액으로 북한의 특허를 따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北, 20년간 기아지수 악화 세계 2위(10/1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1990년부터 2008년 사이 기아지수가 악화된 순서로 콩고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의 '2008 세계 기아지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
-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대 기아지수(GHI) 악화국 가운데 나머지는 모두 스와질랜드,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함으로써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선 북한이 유일하게 포함, GHI는 총인구 대비 영양부족률, 5살 미만 아동의 저체중률, 사망률을 종합한 수치로, 2008보고서에서 북한은 18.8을 기록해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
- 보고서를 작성한 IFPRI의 요하네스 연구원과 클라우스 그렙머 박사는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인데다 식량생산도 감소되는 경향이 지속된 결과 영양실조율이 높아지고 아동들의 저체중이 늘어나 GHI가 가파르게 악화됐다고 설명하고 특히 이 보고서 작성 당시 정확한 통계자료가 부족해 올해 급등했던 국제 곡물가격과 그 파급 영향은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을 포함해 기아 수준이 심각한 나라들의 서민이 올해 더욱 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RFA는 보도

※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IFPRI는 북한의 농업개발을 지원하는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 '컨선 (Concern)', 독일의 '저먼 애그로 액션(German Agro Action)'과 함께 세계 기아를 퇴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해마다 '세계기아지수'를 발표

● 김일성大, 갑문관리시스템 개발(10/13, 조선중앙통신)

-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는 대동강 유역의 갑문과 저수지를 과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동강유역 갑문관리 지원체계'를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美, 北 핵시설 불능화 재개(10/17, 美 국무부)

-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활동을 재개했다고 미 국무부가 17일 밝힘.

● 中, 차기 6자회담 일정 조율 중(10/16, 중국 외교부)

- 중국 외교부는 16일 차기 북핵 6자회담의 일정과 관련, 참가국 간에 협상과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밝힘.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4~25일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이전에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언급
- 그는 “모두가 적절하고 편리한 시간에 조속히 차기 6자 수석대표 회담을 개최하자는 것은 참가국의 공통된 인식”이라면서 “일정이 확정되면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

● 북핵 폐기 비용, 한국 등 관련국이 나눠 분담해야(10/1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핵 폐기물과 핵시설 처리에 '천문화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한국을 비롯해 6자회담 당사국들이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프랭크 자누

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이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

- 미국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선 후보 진영에서 한반도 정책 등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자누지 의원은 15일 미 하원 레이번빌딩에서 열린 한반도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영변 핵시설에서 핵폐기물을 청소하고 안전하게 제거하는 등의 일에 많은 돈이 든다며 “처음에는 미국이 비용을 댈 수 있고 국제 원자력기구(IAEA)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한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비용을 나눠 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

● IAEA, 北폐연료봉 제거작업 개시(10/14, 국제원자력기구)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4일 “북한이 14일부터 IAEA요원이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제거하는 작업을 개시함으로써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회원국들에 배포한 문서를 통해 밝힘. 문서는 또 북한이 13일 IAEA 검증팀의 핵시설 복귀를 허용했다면서 이에 따라 재처리시설의 폐쇄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봉인과 카메라를 다시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

나. 북·미 관계

● 美 대북 지원식량 5차분 출항(10/1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이 북한에 1년간 지원키로 한 식량 50만t 가운데 5차분인 2만 5천60t의 옥수수과 콩을 실은 미 선박이 17일 오전 북한을 향해 버지니아주 노퍽항을 출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미국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의 제랄드 크루즈 공보담당은 “미 국적선 메리앤 허드슨호가 기상이변이 없는 한 11월 18일경 북한 남포항에 도착할 것”이라고 답변, 그는 “11월에 선적될 6차분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당분간 미국 구호단체들이 대북 지원 식량의 구매, 선적, 분배를 맡게 될 것”이라고 언급
- 미국 정부가 9월까지 보낸 11만 8천여t의 식량은 대부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함경도와 량강도 등 8개 지역에 배급됐지만, 이번 선적분은 월드비전, 머시코,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크리스

천 프렌즈 오브 코리아 등 5개 구호단체가 맡아 자강도와 평안북도에 분배할 예정

● 미국, 5차 대북 식량원조 선적 예정(10/17, 연합)

- 미국이 대북 5차 식량 지원 물자를 선적할 예정이라고 구호단체 관계자들이 16일(현지시간) 밝힘. 머시 코어와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크리스천 프렌즈 오브 코리아 등 미국의 5개 구호단체들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2만5천60t 규모의 옥수수과 콩이 금주 중 선적돼 11월 하순 북한 남포항에 도착한다고 발표
- 미국이 보내는 식량은 자강도와 평안북도의 공공 배급소와 고아원, 학교, 병원, 탁아소를 통해 어린이와 임신부, 수유부,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89만4천 명에게 배급될 예정, 이번 식량 지원은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자금을 제공하고 구호단체들이 배급을 맡는 형식으로 미국의 대북 식량 원조는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임.
- 미국의 5개 구호단체들은 1년간 총 10만t의 식량을 북한의 취약계층에 제공한다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유엔 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도 미국의 기여금으로 구입한 40만t의 식량을 보낼 계획임.

● 北, 적대시 정책 철회돼야 비핵화 실현(10/16, 민족통신)

- 신선호 유엔 대표부 대사는 유엔 총회 제63차회의에서 “조선(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자면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종식되고 ‘제도 전복’을 노린 적대시 정책이 결정적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민족통신이 16일 보도
- 신 대사는 10월 13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본질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 종식과 핵위협 제거와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
- 그는 북한은 “초대국의 위협을 항시적으로 받고 있는 나라”라며 “우리가 핵 억제력을 소유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은 바로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 그러나 북한은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을 갖고 “핵신고서 제출과 핵시설 폐기단계에 들어가서 해야 할

조치들까지 앞당겨 취했다”고 그는 말하고 “앞으로도 철저히 ‘행동 대 행동’ 원칙에서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신 대사는 북한은 이미 수차례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며 “조선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

● 北, 유엔서 美반테러전을 “국가테러”라고 비난(10/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정부 대표는 유엔 총회 제63차 회의에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 이들 나라에서의 반테러전을 “국가군대에 의한 테러행위의 전형”이라며 “국가테러행위를 시급히 근절하는 데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주러 북한 대사, 테러지원국 해제 환영(10/13, 리아 노보스티 통신)

-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고 13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 김영재 주러 북한 대사는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의 조치를 환영하며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언급
- 그는 또 “북한은 모든 6자회담 당사국들이 각자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의 공통 관심사는 한반도에서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

다. 북·중 관계

● 中창바이현, 北 관광코스 개통(10/16, 길림신문)

- 중국 지린(吉林)성의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의 장백산국제관광유한회사가 백두산을 비롯한 북한의 관광사업에 나서기로 함. 길림신문은 16일 “일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국제총여행사 백두산여행사와 장백조선족자치현 장백산국제관광유한회사가 장백호텔에서 관광업 합작항목 체결식을 가졌다”고 보도, 체결식에는 조선국제총여행사 백두산여행사 송일범

사장, 최금철 책임서기, 중국북경박시금삼투자유한회사 하검 총재, 장백박시금삼투자유한회사 고가기 리사장, 장백박시금삼투자유한회사 진국중 총재, 장백현 장백산국제관광유한회사 전명숙 총경리 및 장백현 당위와 정부의 책임자들이 참석

- 신문은 “쌍방은 조선(북한)과의 이국풍정을 위주로 1일, 2일, 3일 관광사업을 벌이게 된다”며 “주로 백두산 천지와 조선 삼지연, 리명수 폭포와 보천보 혁명 전투사적지, 김정숙 사범대학, 혜산 소년회관 관광과 혜산극장 공연 관람 종목이다”라고 언급

※ 지린성 남부의 백두산 남쪽, 압록강 상류에 위치한 중국 유일의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은 북한의 량강도 혜산시, 삼지연군, 보천군, 삼수군, 김정숙군, 김형직군과 인접

● 북·중, 경제무역과학기술촉 개최(10/14,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은 14일 북한의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경제무역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양측의 경제, 과학기술 협조 및 무역관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소개하지 않은 채 북한에선 구본태 무역성 부상이, 중국에서는 왕차오(王超) 상무부 부장조리가 참석했다고 보도
- ※ 북한과 중국은 2005년 3월 베이징에서 이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매년 한 차례 회의를 개최, 2007년 9월에는 베이징 제3차 회의에서 중국 훈춘(琿春)과 북한의 라선시를 도로로 연결하고 라진항에 공단 및 보세구역을 건설하는 ‘훈춘-라선 일체화’ 계획을 논의했음.

라. 북·러 관계

● 북·러, 수교 60주년 친선 과시(10/17, 조선중앙방송)

- 북한과 러시아가 수교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축하 행사와 고위급 방문 등으로 전통적인 친선관계의 복원을 과시, 북한과 러시아는 수교 60주년에 즈음해 특히 라진-하산 철도와 라진항 개선 공동사업에 착수함으로써 앞으로 양자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주요한 기반을 마련
-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북·러 친선협회,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16일 평

양 룡라도유원지에서 친선모임을 열어 예술공연과 체육오락경기를 갖고 양국 간 우의를 다졌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보도,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대리, 북·러친선협회위원장인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발레리 수히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를 비롯한 양국 외교 관계자들이 모임에 참석

- 10월 13일에는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러시아의 외무부, 연방평의회, 국방부, 경제발전부, 러·북 정부 간 경제협조위원회, 모스크바시 정부, 모스크바시 내무총국, 러·북 친선문화협조협회 등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연을 개최
- 10월 14일에는 북·러 수교 60주년 기념 사진전시회가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주북 러시아 대사관 공동주최로 평양 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했으며, 영화감상회도 평양 시내 천리마문화회관에서 개막
- 10월 15일 러시아를 방문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모스크바 외무부 영빈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정치·경제·문화 교류를 강화키로 합의했으며, 라브로프 장관은 박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례로 내년 북한을 방문할 예정

※ 북한은 1948년 10월 12일 옛 소련과 수교했으며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1991년 12월 옛 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는 소련의 대북관계를 승계

● 北, 라진항과 철도 통해 ‘국제물류허브’ 꿈꿔(10/1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4일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의 말을 인용해 라진-하산 철도는 2011년 3만5천 개, 2012년 7만 개, 2013년 10만 개의 컨테이너를 수송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 라진항의 관리·운영 책임자인 배호철 항장은 3단계로 나뉘어 개선되는 라진항의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0년 10월 말이면 20만 개의 컨테이너를, 2단계 공사가 끝나면 40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음. 북러 양측은 항구의 바닥 준설을 통해 대형 선박의 정박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았음.
- 신문은 라진항은 러시아의 항구들과 달리 연중 얼지 않는 부동항이고 항의 동쪽으로 뻗은 라진반도와 앞 바다에 있는 대초도와 소초도라는 크고 작은 2개의 섬이 방파제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간만의 차도 20cm정도에 불과하

- 다며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곳은 ‘천연의 양항’이라고 불려왔다”고 소개
- 북한은 라진-하산 간 철도의 TSR과 연결을 염두에 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먼저 남측에 동해선 남북 연결 철도를 통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연결을 제안하는 등 동해지역을 통해 연결된 남북 철도를 TSR과 연결하는 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음. 이때문에 북러간 라진항 및 라진-하산 철도 개선 사업에는 특히 한국철도공사와 국내 물류회사도 컨소시엄으로 참여, 러시아의 지분 중 40%를 투자기로 했으나, 러시아측과 라진항 운영 참여 문제 등으로 세부 미결사안이 남아 있어 아직 출자는 이뤄지지 않았음.
 - 북한과 러시아가 라진-하산 철도 복원과 라진항 개선을 위해 10월 10일까지 1억4천만 유로의 출자를 완료했다고 조선신보가 14일 보도

마. 북·일 관계

● 北, 日총리 ‘대동아전쟁’ 발언 비난(10/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군국주의 괴수의 얼빠진 수작’ 제목의 논평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2차대전 중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으로 표현한 데 대해 “군국주의적 망발”이라고 비난

바. 기타 외교 관계

● 北·폴란드 수교 60주년 행사(10/17,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폴란드 수교 60주년을 맞아 로만 이바슈케비츠 폴란드 대사가 16일 연회를 주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연회에는 북측에서 궁석웅 외무성 부상, 리명산 무역성 부상, 한철 문화성 부상,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폴란드측에서는 방북 중인 외교부 대표단과 왕실 현악4중주단 등이 참석
- 현악4중주단은 16일 연회에 앞서 김원균명칭평양음악대학 음악당에서 공연을 가졌으며 외교부 대표단은 17일 평양을 떠나 귀환

● 북한 주재 캄보디아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 친선노동(10/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주재 캄보디아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17일 황해남도 신천군 백석

협동농장에서 친선노동활동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대사관 관계자들은 농사일을 마치고 준비해 간 지원물자도 전달

● **북한 주재 라오스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 친선노동(10/17, 조선중앙통신)**

- 차런 와린타라삭 대사를 비롯해 북한 주재 라오스 대사관 직원들이 16일 평양시 사동구역 북-라오스 친선 대원협동농장의 가을걷이 지원

● **獨, 평양서 평화·관용 상징 ‘버디베어’ 전시회(10/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주재 독일대사관이 독일 통일 18주년과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을 기념해 10월 14일부터 평양 모란봉 공원에서 베를린의 상징인 ‘버디 베어(Buddy bear)’상 18개를 전시

● **北, 외국학생 평양 연수 초청 돌연 취소(10/1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체제선전을 위해 계획했던 외국인 학생들의 평양 연수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5일 보도, 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사회과학자협회(KASS)가 북한의 문화와 역사를 해외에 알린다는 명목으로 유럽과 아시아권 학생들을 모집해 호주 학생 3명, 네덜란드와 일본 학생 각 1명 등 총 5명이 15일부터 3주간 개성과 황북 사리원 및 황남 신천을 방문하고 남북 합작기업인 평화자동차 공장도 견학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사회과학자협회측은 갑자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여러 사정 때문에 이번 방문단을 받을 수 없다”며 초청 계획의 취소를 통보했다고 이번 연수생 모집의 해외창구인 호주 내셔널대학의 레오니드 페트로브 교수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힘.

- 그는 북한 당국이 연수생들의 체류비까지 대면서 2007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초청한 것이기 때문에 초청 취소가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평양의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추측하고 “평양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고 덧붙임.

- 몽골과 '2009-2011년도 문화교류계획서'를 체결(10/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0월 8일 울란바토르에서 몽골과 '2009-2011년도 문화교류계획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전영진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과 오토공바야르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계획서에 서명

3 대남정세

- 남북 단체, 日 독도영유권 규탄 공동성명(10/18, 연합)
 -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남한 한일불교복지협회, 북관대첩비기념사업회는 18일 일본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 문제와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난, 성명은 이어 "북과 남의 온 민족은 앞으로 일본이 저지른 과거죄행을 끝까지 따질 것이며 우리 민족끼리 더욱 굳게 뭉쳐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실천행동을 줄기 차게 벌어나갈 것"이라고 강조
- 개성공단관리위 창립 4주년 기념식 개최(10/17, 연합)
 -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창립 4주년 기념식이 17일 개성공단 현장에서 개최, 기념식에는 문무홍 위원장과 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대아산,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과 입주기업인 코튼클럽, 성화개성, 부천공업 등에 대한 통일부 장관 표창 수여도 진행
 - ※ 2004년 10월 20일 출범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북측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과 협력해 개성공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공단 관련 인·허가와 운영지원 등 업무를 수행
- 김숙, 북한이 도움받을 준비되면 돕겠다(10/17, 연합)
 -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7일 "북한이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김 본부장은 17일 제주 중문관광단지 제주평화연구원에서 열린 '세계 식량위기: 동북아에서의 사회적·경제적 위협과 도전'이란 주제

의 워크숍에서 기초연설을 통해 이같이 언급

- 김 본부장은 “북한의 만성적 식량부족을 해결하는 길은, 근본적 변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한 뒤 “그러나 북한이 아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조짐은 거의 없다”고 주장
- 식량 원조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즉시 지원할 것이고, 심각한 식량위기나 자연재해가 닥쳤을 경우에는 북한의 공식 요청이 없더라도 식량지원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

● 통일부, 금강산 관광 조기재개 기대(10/17, 통일부)

-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 발생 100일(18일)을 즈음해 북한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재차 촉구,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 사건이 해결돼서 관광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뒤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진상 조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

● 조선적십자회, 유종하 한적 총재 임명 비난(10/16, 조선적십자회 대변인담화)

- 조선적십자회는 16일 유종하 신임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극우 보수분자”라고 비난하면서 “북남 사이에 적십자 사업이란 기대할 수 없고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한 그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
- 조선적십자회는 유종하 총재가 김영삼 정부 시절 유엔 주재 대사와 외무장관을 지내면서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앞장”섰으며, “오늘날엔 친미보수 정권과 한쪽이 돼 반민족적인 대북정책 작성에 적극 가담하고, 동족사이의 대결을 부추기는 언동을 일삼고” 있다고 전력을 문제삼음.

● 제주 흑돼지·양돈기술 북한 이전(10/16, 연합뉴스)

- 제주특별자치도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고성준 도민운동본부 사무총장과 송중용 제주도 축정과장 등 관계자 8명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회의 초청으로 15일 북한에 가 18일까지 머물 예정이라고 16일 발표
- 이들의 북한 방문은 2007년 민화협 측에서 북한을 방문한 김태환 제주지

사에게 돼지 협력사업을 먼저 제안하면서 이뤄짐. 제주도 방북단은 민화협의 요청으로 9월 말 북한 개성에서 접촉을 가져 '흑돼지 협력사업'에 대해 1차 협의했으며, 이번에는 흑돼지를 사육할 북한 내 양돈장의 입지를 살펴 보고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짐.

- 제주도와 도민운동본부는 흑돼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북한에 300마리 정도의 흑돼지를 보내 청정 양돈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

● 남북 역사학자들, 고려왕궁터 발굴재개 협의(10/16, 연합)

- 남북한의 역사학자들이 10월 23일 개성에서 만나 고려왕궁터인 '만월대(滿月臺) 발굴 작업의 재개 문제를 협의할 예정, 협의에 북측에선 중앙역사박물관, 민족화해협의회 실무진이 나오며 남측은 땅이 얼면 발굴이 어려운 점을 감안, 11월 초 발굴을 재개할 것을 제안할 예정
- 남측 역사학자 10명, 북측 40명으로 구성된 공동 발굴단은 2007년 5~6월 만월대 서부 건축군 가운데 1만 평에 대한 시굴을 거쳐 2007년 9~11월 1천 평을 본격 발굴한 결과 11동의 건축물 기초와 회랑, 배수구 등을 찾아냄. 고려청자와 청자기와, 명문기와 등 고려시대 왕궁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유물도 대거 출토됐음.

● 北 올해 식량 필요량, 20% 부족(10/14, 주중 한국대사관)

-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4일, "2008년 북한의 식량수급량 평가결과 수용량 540만t 중 2008년 9월 현재 441만t이 확보돼 99만t이 부족한 상태로 파악된다"고 언급
- 북한이 현재 확보한 441만t은 전체 필요량의 81%에 해당하는 양이어서 전체 필요량의 19% 정도가 모자라는 셈, 북한이 올해 확보한 식량은 2007년부터 이월된 양이 401만t이며 2008년 각국으로부터 도입된 40만t을 포함한 것임.
- 올해 도입된 식량 40만t은 중국으로부터 전달 받은 23만t을 비롯해 미국(11.8만t), 세계식량계획(WFP, 4.2만t), 러시아(0.3만t), 기타(1.5만t) 등으로 구성
- 중국이 올해 공급한 식량은 해관 통관 기준으로 대북 금수조치로 올해 4~5월에는 식량공급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6~7월 두 달 동안 옥수수 5만t이 공

급되는 등 이후에 재개, 한국 정부는 북한에 옥수수 5만t 지원을 제안하며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올해 우리 정부로부터 지원된 식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

● 어린이어깨동무, 평양에 새 소아병동 준공(10/14, 연합)

- (사)어린이어깨동무(공동대표 권근술 정명훈 조 형)가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의 협력을 얻어 북한 평양시 중구역에 있는 평양의학대학병원 내에 신축한 ‘어깨동무소아병동’이 완공돼 10월 24일 준공식을 갖음. 어깨동무 측은 준공식 참석을 위해 130명의 방북단을 구성,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23일 방북

● 정부, 김태호 지사 방북 “시기 부적절” 불허

- 김 지사는 당초 10월 4~6일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소학교 준공식과 협동농장 운영상황 점검 등을 위해 방북할 계획이던 ‘경남도민 대표단’의 일원으로 북한 방문을 신청했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며 연기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김 지사를 비롯한 경남도 관계자와 남북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해 온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관계자, 소학교 지원모금운동 헌금자 등 140여 명으로 구성된 방북단 모두 방북 계획을 취소

10.20-10.26

10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증병설 급속 확산... '입 단속' 특별감찰(10/26, 조선일보)

-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최근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문이 내부에 급격히 확산돼 체제가 불안해지자 이를 단속하기 위한 대대적인 감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최근 국경을 넘은 인민군 군관(장교) 출신의 한 탈북자는 “김정일 건강이상설은 이미 7월 경부터 군대 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고 언급, 공화국 창건 60돌(9월 9일)을 기념해 인민군에서 차출된 수만 명의 군인이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다가 9월 9일을 두 달 앞둔 시점에 전격 취소되면서 건강이상설이 나돌기 시작했다고 함.

● 김정일, 하사품으로 건재 과시(10/17; 10/13,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이상설 속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각종 ‘하사품’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건재’를 확인시키고 있음.
- 김 위원장의 ‘하사’에 대한 북한 매체들의 보도는 특히 김 위원장이 여성포 증대를 시찰했다는 10월 1일자 보도 이후 빈번, 조선중앙방송은 13일 보도에서 김 위원장이 80세를 맞은 주민 2명에게 생일상을 보냈다고 전했고, 17일 보도에선 김 위원장이 북측 강원도 고산군에 있는 고산과수농장에 영농물자들을 보내고 인민대학습당에 도서와 CD를 보냈다고 보도
- 21일엔 김 위원장이 100항차 무사고 운항을 달성한 화물선 ‘주작봉 5호’ 선원들에게 ‘감사’를 전달하고, 24일엔 고 김일성 주석 동상과 당창건 사적관, 혁명전적지와 사적지의 관리에 기여한 주민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소개, 그러나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는 하사품을 보낸 시기를 “최근”, “얼마 전” 등으로만 밝히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음.

● 김정일, 평양시내 병원서 요양중(10/22, 자유아시아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의 한 병원에서 요양 중이며 김 위원장이 그동안 행사해왔던 결정권은 노동당과 군부에 위임된 상태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미 동부시간) 보도

- RFA는 중국 내 북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두 달 가까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김 위원장은 거처를 평양의 한 병원으로 옮겼으며 북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와 군부가 북한의 정책 결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전언,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후계구도에서 거론됐던 매제 장성택 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에 대해 “언론에 알려진 것만큼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당과 군부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다”며 “(사실상 네 번째 부인인 것으로 알려진) 김옥 국방위원회 과장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 들었다”고 언급
- RFA는 이어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지난 1년 가까이 치매로 고생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김 위원장의 잠적이 두 달 이상 지속되면서 북한 내각과 국가보위부, 보안성 등 권력기관에서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언

나. 정치 관련

- 北, ‘배달’민족 어원론을 김정일 선전에 활용(10/25,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한민족을 일컫는 ‘배달민족’의 ‘배달’이라는 말이 “인류문화의 발상지의 하나인 대동강 일대에서 고조선을 세운 종족의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주장하고 이를 은연 중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 강조로 연결시킴.
- 北, 대북 전단 살포 거둬 비난(10/25, 노동신문; 통일신보)
 - 노동신문은 25일 남한의 납북자 단체나 탈북자 단체들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는 남한 정부의 “전면적인 배후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단 살포 문제를 거둬 제기
 - 신문은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통일부가 이들 단체에 전단 살포의 자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요청’하는 놀음을 벌였다”고 불신감을 표시하고, 촛불시위에 대한 진압을 가리켜 “‘체제상 특성’을 운운하며 극우보수 단체들의 반공화국 뼈라 살포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이라고 주장
 - 통일신보도 25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뼈라 살포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남한 단체들이 날린 전단이 “강원도와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군사분계선 일대”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및 그 주변 구역과 개성시 중심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밝힘.

● 남북, 27일 군사실무자 접촉 합의(10/27, 연합)

- 남북은 27일 오전 10시 남북관리구역 서해지구 내에서 중령급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을하기로 합의, 국방부는 25일 “남과 북은 북측의 제의로 남북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을 27일 오전 10시 갖기로 했다”며 “이번 접촉에서는 군 통신 정상화 문제를 비롯한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현안이 협의될 예정”이라고 밝힘.
- 우리측에서는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인 김정배 육군중령 등 4명이, 북측은 상좌(중령과 대령사이 계급)급 장교 3~4명이 참석, 북측은 전날 오전 남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27일 오전 접촉을 하자고 제의했으며, 우리측이 북측 제의에 동의해 접촉이 성사
- 군 일각에서는 북측이 군 통신망 현대화 문제를 의제로 내세웠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빠라) 살포 행위에 대해 비난을 하기 위해 군사실무자 접촉을 제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

● 한미 안보협의회 “대결선포” 비난(10/2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한국과 미국이 10월 17일 미국에서 제40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열고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와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을 논의한 데 대해 “우리(북한)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며 전면 대결선포”라고 24일 비난
- 조평통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의 이런 행보는 “무모한 북침 핵전쟁 책동이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며 “무분별한 침략야망이 실천에 옮겨지는 경우 조선반도는 물론 주변 지역까지 참혹한 핵재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
- 성명은 또 이상희 국방장관을 “극악한 대결분자”, “전쟁광신자” 등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모독하고 침해하는 도발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필요한 조치들을 강력히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음.

- **北에선 지금 김정일 ‘담화’ 학습중(10/23, 평양방송; 10/21, 조선중앙방송)**
 - 북한에서 ‘건강이상설’로 장기간 공개활동을 앓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월 5일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에 보냈다는 ‘담화’에 대한 주민들의 학습이 대대적으로 전개
 -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9.9)을 앞둔 9월 5일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는 장문의 담화를 썼다며 한달 뒤인 10월 10일 뒤늦게 담화 전문을 소개
 - 담화는 북한 정권 60년사를 개관하고 ‘선군정치’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국방력 강화와 경제 건설을 강조하고 개혁·개방에 대한 거부 입장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는 등 구성과 내용면에서 신년 공동사설(신년사)과 유사하며 ‘담화’ 발표 이후 북한 매체들은 보름이 지난 10월 24일까지도 계속 반복 보도하면서 각 계층의 반응을 내보내고 있음.

- **北, 한국전 납북자 문제도 “대결소동” 주장(10/24,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24일 한국전쟁 중 민간인 납북이 북한의 군사적 필요에 조직적으로 저질러졌다는 한 연구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전면 차단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신문은 ‘대결 미치광이들의 불순한 날조품’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KWARI) 주최 학술모임에서 허만호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6·25전쟁중 납북사건은 북한의 전쟁 정책의 일환이었다”며 조직적 민간인 납북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북에 의한 그 무슨 민간인 납북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본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파국상태에 놓인 북남관계를 극한점으로 몰아가는 동시에 남조선 사회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넣고 불신을 야기시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전면 차단하자는 데 있다”고 비약

- **北, 김정일이 혁명의 진두에 있다고 사상 교양(10/2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얼굴없는 통치’가 70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조선(북한) 인민이 지닌 필승의 신심과 낙관의 원천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있는 데 있다”고 강조

- 통신은 '조선인민이 지닌 필승의 신심과 낙관의 원천'이라는 제목의 보도 물에서 또 “앞으로도 조선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혁명의 진두에 서” 있는 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반드시 건설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해 억세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주장

● 北, 잇따라 金통일 국감발언 비난(10/22, 노동신문: 10/23, 민주조선)

- 북한은 22일 노동신문에 이어 23일 민주조선을 통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10·4선언 이행요구로 남북관계가 어려워졌다”고 발언한 것을 “흑백을 전도한 궤변”이라거나 “남북관계 파탄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비난
- 민주조선은 ‘대결 광신자의 황당무계한 뉘뜨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핵 문제가 해결 안되면 개성공업지구 확대는 없다”는 김 장관의 발언과 10·4선언 1주년 행사 불참 및 국군의 날 행사 참석 등 김 장관의 행적도 다시 거론해 “동족대결 의식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잘 말해준다”고 비난

● 北, 혁명1,2세의 전통 계승 강조(10/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21일 ‘백두의 혁명전통은 새세기 진군의 보검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에 “우리 혁명정세는 의연히 복잡하고 첨예하다”며 “혁명의 1세들이 개척하고 2세들이 굳건히 고수해온 주체혁명 위업의 성패는 3,4세의 준비 정도와 역할에 달려있다”고 ‘혁명전통의 계승’을 역설
- 신문은 특히 “혁명의 1세들을 몰라보고 그들의 공적을 무시하려는 사람들”, “환경의 변화와 시대의 추세를 운운하며 혁명 선배들이 목숨바쳐 개척한 투쟁의 길에서 탈선하려는 사람들”,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선배들의 업적에 먹칠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혁명가 자격이 없는 배신자와 변절자들과 비교 배척함으로써 현재 북한의 주축을 이루는 3,4세대의 의식상태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냄.

※ 앞서 2006년 노동신문은 1,2세는 혁명을 개척해 온 세대로 고 김일성 주석이 대표세대라면, 3,4세는 “광복 후와 6.25전쟁 시기 그리고 전후에 태어났거나 책보를 끼고 다니던 세대”라며 김정일 위원장이 이들 세대를 대표한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혁명의 계승은 사상의 계승, 원칙의 계승”이라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구체적인 전술과 정책들은 변할 수 있어도 혁명의 근본바탕에 놓여있는 사상과 원칙들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앞으로도 기존 사상과 노선에서의 이탈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

● 北, 작계5029 등은 흡수통일론 반발(10/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대결관념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출로가 없다’ 제목의 논평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이후 남한에서 거론된 ‘작전 계획 5029’와 ‘급변사태 대비 계획’ 등을 “반민족적인 흡수통일 야망”이라고 비난

다. 경제 관련

● 北, 프로그램 경연·전시회 개막(10/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과학자와 기술자, 학생들이 참가한 제19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를 23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 행사장에는 컴퓨터 조작체계용 응용프로그램 수백건과 내각의 성, 중앙기관들이 생산, 기술, 경영관리에 정보기술(IT)을 적용했던 자료들이 전시되었으며 음성·문자 인식 프로그램과 기계 번역 프로그램 경연, 정보 기술분야 발전 동향에 대한 강연 등이 행사 기간 동안 진행된다고 통신은 소개

- 개막식에는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로두철 부총리, 변영립 국가 과학원장 등이 참석

● 원자재 부족 과학기술로 극복 강조(10/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경제건설에서 당의 과학기술 중시 노선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여 북한이 원자재 부족 등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인 실정에서 ‘경제 강국’을 건설하려면 과학기술의 발전과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 **노동당, 추곡 균량미 우선확보 지시(제238호, 오늘의 북한소식; 10/23, 연합)**
 - 북한에서 추수가 한창인 가운데 노동당은 올해 농촌에서 농민들에게 곡식을 '결산분배'할 때 농장마다 1년치 가운데 3-5개월분만 분배하고 나머지는 균량미로 거두라는 지시를 전역의 시·군에 내렸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3일 보도, '오늘의 북한소식' 제238호에서 노동당이 10월 9일 농업성으로부터 올해 작황을,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으로부터 비축미 실태를 각각 보고받은 뒤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

- **유니세프 평양소장, 北 90년대 최악 상황 재연 중(10/23, 연합)**
 - 고팔란 발라고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북한사무소 대표는 23일 "북한에서 1990년대 말에 있었던 최악의 식량난 상황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 그는 "올해의 식량난은 지난해 있었던 흉수가 식량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면서 최근 북한에 대한 한국과 중국 등의 식량 원조가 많이 줄어든 점도 이유로 들.

- **WFP, 北동북부에 인도주의적 비상사태(10/22, WFP Operational Priorities 보고서; 10/23,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부족으로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긴급 지원이 없으면 북한 동북부의 함경북도와 양강도 전역 및 함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
 - WFP는 22일 발표한 월간 '사업 우선순위(Operational Priorities)' 보고서에서 대북 지원을 위해 보유한 자체 식량이 곧 동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
 - WFP는 보고서에서 "(약속된) 식량원조 선적분의 전달이 늦어지고, 다른 원조국들의 제한된 기부로 앞으로 6개월간 북한에 지원할 식량이 심각하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족분을 14만 7천t으로 추산, 보고서는 북한 "서부 지역의 2백70만 주민들에 대한 WFP 지원 식량은 10월 초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식량 상황이 취약한 동부 지역의 1백40만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량은 11월 중 모든 종류가 완전히 동날 것"이라고 설명
 - WFP는 함경북도와 양강도 전역 및 함경남도 일부 지역의 식량난 등급을

‘극심한 식량·생계 위기’로 분류했는데 이는 ‘만성적인 식량난’과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사이의 단계

- 한편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키로 한 식량 50만t 중 10만t의 분배를 책임진 미국의 5개 민간단체(NGO)들은 미국 정부의 예산으로 독자 구매한 옥수수 2만t과 콩 5천60t을 싣고 10월 17일 미국 버지니아 주 노포크항을 떠난 미국적선 메리 앤 허드슨호가 예정대로 11월 18일께 북한 남포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 이번 선적분은 머시 코어, 월드 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5개 단체가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25개군에 분배할 식량
- 이들 단체는 지난 8월 말 평양과 평북 신의주, 자강도 희천에 상주사무소를 연 뒤 지난주 컴퓨터 12대와 다목적 차량 등을 북한에 반입하는 등 식량분배와 감시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침. 한 NGO 관계자는 “현재 인공위성과 연결해 사용자들 간 음성과 화상 정보를 양방향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VSAT 위성통신망을 설치하기 위해 기술자들이 북한에 파견돼 있다”고 설명

● 8월 3일 인민소비품전시회 개최(10/22, 조선중앙방송)

- 8월 3일 전국 인민소비품전시회가 21일 평양에서 개막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 각지 공장, 기업소, 리(里)·읍·구의 간이 생산작업반, 시·군 직매점의 이용생산반과 가내편의봉사원들이 생산한 1만여종의 소비품이 전시

● 北, 먹거리만 많으면 두려울 것 없다(10/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우리 행복의 열매를 우리의 힘으로’라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을 통해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을 전하면서 “오늘의 이 엄중한 식량위기 앞에서 믿을 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힘, 우리의 땀, 우리의 피타는 헌신과 노력뿐”이라며 식량문제의 자체 해결을 강조
-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며 “오늘 우리나라에서 농업문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으로 풀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한 후 “쌀은 곧 사회주의이고 강성대국”이라고 역설

- 신문은 특히 “우리에게 생명선처럼 귀중한 것은 바로 쌀, 식량”이라거나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 군민이 철통같이 뭉친 강위력한 일심단결이 있으며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가 있는 우리에게 이제 먹을 것만 많으면 무서울 것,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라며 식량문제의 절박감을 드러냄. 또 비료와 농약, 기름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실정임을 실토하고 “농업생산에서도 기본은 물질적 조건이 아니라 정신력”이라고 ‘정신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함으로써 농업증산을 위한 물질적 수단들을 북한 당국이 공급해 줄 능력이 없음을 간접 시인

● 北, 여성용 귀금속 장식품 해외 판매(10/22, 조선신보)

- 북한 최고의 미술창작 단체인 만수대창작사의 금속공예창작단이 여성용 귀금속 장식품들을 만들어 산하의 대외판매 담당 만수대원드합작회사를 통해 해외 판매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조선신보 인터넷판이 22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1991년 여성 장식품을 만드는 전문집단으로 출범한 이 창작단에서는 목걸이와 반지, 귀걸이, 팔찌 등 여성용 장식품을 주로 제작하고 있으며 세쌍둥이에게 선물로 주는 은장도와 금반지는 물론 장식용 공예품과 축전 컵 등 귀금속 공예품들도 만들고 있음.
- 창작단에는 평양미술대학 출신들로 “시야가 넓고 박식”한 도안미술가들과 세공기술이 뛰어난 제작자들이 망라돼 있어 매년 20만~30만 점의 귀금속 장식품을 생산, 북한 전역의 상점들에서 판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에 관심을 갖고 이곳 디자이너와 기술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탈리아의 보석 및 귀금속 제작자들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도록 조치해줬으며, 외국 견습도 여러 차례 보내줬다고 신문은 보도

● 北 배급층 하루 세 끼는 10명중 2.5명만 가능(10/22, 연합)

- 장 피에르 드 마저리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에서 경작 외에 수렵이나 채집을 통해 식량을 얻는 인구가 공공배급 대상자의 경우 2003~2005년 평균 50% 선이었다가 2008년 70%를 넘어섰고, 협동농장원의 경우 60% 초반에서 70% 중반으로 크게 증가, 또 친지로부터 식량을 지원받는 도시민의 비율도 2003~2005년 60% 초반에서 올해 80%를 넘어섰으며 하루 세 끼를 먹는 비율은 협동농장원 10명중 6명 꼴인데 비해 공공

배급 의존층은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사무소의 보건의료 전문가인 아빈드 마서(Arvind Mathur) 박사는 ‘임산부 및 영유아 사망률 감소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표문 영양부족으로 인해 “북한의 산모들은 빈혈, 영양부족, 야맹증, 저체중 출산 등의 현상을, 아동들은 만성 또는 급성 영양장애, 저체중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
- 북한의 산모 사망률은 10만 명당 97명, 영아(생후 1년 미만) 사망률은 1천 명당 20.23명,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은 1천 명당 40.87명임.

● 北내각, 김정일 경제논문 실행 논의(10/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내각은 최근 확대회의를 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논문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데 대하여’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 중앙통신은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내각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 경제작전과 지휘를 정책적 대를 세워 박력있게 조직·진행해 나갈 데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됐다”고 보도

● 北경공업공장 지도 강화(10/15, 조선중앙방송)

- 북한 경공업성이 올해 신년공동시설에서 강조한 “전투목표”인 ‘인민생활 제일주의’에 따라 각 지역 경공업공장에 대한 경제지도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5일 보도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보신탕’ 신선로도 국가규정 추진(10/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당국이 각 산업분야에서 규격화와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특히 ‘국제 규격화’를 강조하고 있어 대내적으로 제품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앞으로 있을 대외 개방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보임. 북한의 규격화 사업을 총괄하는 국가품질감독국의 리호섭 국가규격제정연구소장은 ‘세계표준의 날’인 10월 14일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규격화 대상 영역을 계속 넓혀 나가며 국제 규격화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규격 제정사업

에 적극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계획규율, 노동행정규율을 강화하고 규격화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발언 시점이 분명치는 않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품의 규격을 바로 정해놓고 국규대로 생산하는 질서를 세우도록 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이 지난 2월 전언

※ 국규(KSP)는 한국산업규격(KS)에 해당하는 북한의 산업분야 ‘국가 규정’임.

● 北 내각, 식목 등 국토관리 규정 정비(10/19, 민주조선)

- 북한 내각이 “국토관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 강화해 자연과 생활환경을 적극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해 나갈 수 있게” ‘국토관리총동원 사업 규정에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고 민주조선 10월 19일자 보도
- 신문은 이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해마다 봄과 가을 나무심기철에 전국, 전민이 총동원돼 국토관리를 집중적으로 더욱 활발히 조직, 진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말하고, 이 규정에 따라 국토환경보호성을 비롯한 관련 기관이 규정의 집행대책을 세우게 된다고 덧붙임. 규정에 국토관리계획의 작성과 집행, 평가, 감독 및 통제 강화 항목들이 포함되었음.

● 北, 지적재산권 교육용 영화 제작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가 ‘지적소유권’이라는 제목의 과학영화를 제작했다고 전하고 이 영화는 “조선(북한)에서 채택된 지적소유권에 대한 법들과 지적소유권 보호활동을 소개하면서 지적소유권 체계가 과학과 경제발전에서 노는(작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설하고 있다”고 소개
- ※ 북한에선 ‘상표법’(1998.1 제정), ‘발명법’(1998.6), ‘저작권법’(2001.3),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2003.6), ‘원산지명법’(2003.8)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들이 시행중임.
- ※ 북한 당국은 지적소유권 업무를 과학기술지도기관과 품질감독기관, 저작권사무국, 출판·문화지도기관, 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 등에 분담시

키고 있으며, 최근 중장기 전략을 세워 지적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장려를 강화

● 北, 인구 300만 명 평양도 인구 감축 추진(10/22, 연합)

- 북한의 수도인 평양시가 최근 거주민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좋은벗들은 “10월 들어 평양시는 ‘지방에 내려가서 생활할 데 대한’ 지시를 내리고 인구 감축을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며 “지방에 내려가는 세대에는 각종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선전에도 시민들은 좀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
- 소식지는 “평양도 식량과 전기, 수도물, 가스, 석탄, 교통 등 모든 면에서 공급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방보다는 낫고, 죽물을 먹더라도 지방에서 풀죽 먹으면 평양에서는 옥수수죽이라도 먹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소개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러 6자회담 대표, 지금이 북핵 진전의 중요한 단계(10/23, 연합)

-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 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23일 “지금 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중요한 단계인 만큼 당사국간 협조가 절실하다”라고 주장, 보로다브킨 차관은 모스크바 외무부 영빈관에서 한국 측 수석 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한의 테러지원 해제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 불능화 프로세스와 6자회담 개최 시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 당국자, 대북 에너지 지원국 모색중(10/20, 연합)

- 정부 고위당국자는 20일 핵시설 불능화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되는 대북 에너지 지원에서 일본 몫(중유 환산 20만t)을 대신 부담할 나라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언급

- 당국자는 “일본인 납치문제로 대북 에너지 지원 참여를 거부하는 일본의 입장에 따라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유리한 대상이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언급, 앞서 북핵 6자회담의 미국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차관보는 19일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곧 일본 대신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여할 새 후원국을 얻게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음.
- 힐 차관보는 일본을 대신할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현재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이외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외교가에서는 호주나 유럽연합(EU) 등을 유력한 대상으로 추정

나. 북·미 관계

● 美, WMD물자 거래 남·북기업 등 제재(10/24, 미 연방관보 웹사이트)

- 미국 정부가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한 남·북한 기업을 비롯해 9개국 13개 업체에 대해 지난 8월 중순 제재를 가했던 것으로 나타남.
- 24일 미 연방관보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따르면 미 정부는 WMD관련 물자가 북한, 이란, 시리아로부터 반출 또는 이들 국가로 반입됐을 것이라는 믿을만한 정보를 토대로 제재를 가했음. 제재 대상 기업은 북한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KOMID)와 조선대성무역회사, 한국의 ‘Yolin/Yullin Tech, Inc.’, 러시아 국영 무기수출업체인 ‘로스보론엑스포트(Rosoboronexport)’ 등 13개 업체임.
- 이번 조치는 2010년 9월까지 유효하며, 이들 회사는 미국의 모든 정부 부처에서 실시되는 재화, 용역, 기술 관련 조달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

다. 북·중 관계

● 北·中 입업 협력 양해비망록 체결(10/23, 연합)

- 북한과 중국이 입업협정에 관한 양해비망록을 체결, 23일 중국 국무원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최상호 대외경제협력국 국장은 10월 12일 중국 국가입업국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해 다음날인 13일 북

중 입업 협력에 관한 양해비망록을 체결

- 양국은 양해비망록에서 앞으로 삼림정책, 법규, 기구 제정, 삼림경영, 자원 관리 및 산지종합개발, 방화, 조림기술, 병충해 방제, 야생동식물 및 습지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개시하기로 합의

라. 북·러 관계

● 北, 잇따라 러시아제 신형 여객기 구입(10/22, 자유아시아방송)

- 고려항공이 잇따라 러시아제 여객기를 새로 구입해 중국항공사인 에어차이나와 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
- 방송은 2007년 12월 TU-204 1대를 구입한 데 이어 2008년 1대를 추가 도입했고, 앞으로도 러시아의 일류신(IL)-96이나 수호이(Sukhoi) 슈퍼제트 100 등 신형 비행기로 노후한 기존 여객기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보도
- 방송은 '중국의 여행업계'를 인용해 북한이 여객기를 교체하는 것은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베이징에서 평양까지 1주일에 3번 정도 운항했던 고려항공이 최근엔 하루 3번 이상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는 경우도 있다고 보도
- 북한은 평양공항의 활주로에서 공항청사까지 승객을 이동시키는 공항버스도 러시아제 버스로 교체 중인 것으로 알려짐.

마. 북·일 관계

● 北, 日 6자회담 참가자격 박탈 주장(10/2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10/22,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10/21, 민주조선)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25일 북핵 6자회담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장이지 북한과 일본 간 현안인 일본인 납북문제를 논의하는 장소가 아니라며 "일본의 회담 참가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
- 방송은 일본이 "6자회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납치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6자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대북 "제재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북한은) 일본에게서 이제라도 회담 참가자격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주장

● 北, 日언론 중대 발표설 보도는 허위날조(10/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용서치 못할 무엄한 행위라는 제목의 보도물에서 “우리는 그러한 발표를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며 그와 관련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일본의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이 북한의 중대 발표설과 해외주재 외교관들에 대한 대기령설을 보도한 것은 “완전한 허위 날조”라고 23일 주장
- 통신은 특히 두 신문이 “우리 최고수뇌부(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을 운운하면서 공화국(북한)의 존엄에 대해 악랄하게 횡설수설한 것”은 “너절한 모략 행위”이고, “우리 체제의 공고성에 대해 배아파하면서 그에 먹칠을 해보려는 불순세력의 기도가 깔려있다”고 강하게 반발

● 北, 유엔서 日에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10/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표는 10월 14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63차 회의에서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바. 기타 외교 관계

● 北, 허리케인 피해 쿠바에 물자 지원(10/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잇단 허리케인 피해를 본 쿠바에 물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9월 2차례 태풍 피해로 쿠바에서는 인명 피해와 많은 물질적 손실이 있었다”며 북한은 “쿠바 인민이 하루빨리 피해 후과를 가시고 안착된 생활을 누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물자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9월 12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전문을 보내 허리케인 피해를 위로하기도 했음.

● 인도네시아 대사관 관계자들 친선노동(10/22, 조선중앙통신)

- 밤방 다라닌드라 대사를 비롯한 북한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이 22일 평안남도 강서군 약수협동농장에서 농장원들과 탈곡을 함께하며 지원활동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라오스, 黨 교류·협력 합의(10/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과 라오스 인민혁명당이 21일 평양에서 '2008~2010년 협조 및 대표단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 북한 측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라오스 측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 이자 대외관계위원장인 통룬 씨쑤릿 부수상 겸 외무장관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서 조인식에는 김태중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과 라오스인민혁명당 대표단 관계자, 짜런 와린타라썩 북한 주재 라오스 대사 등이 참석

● 박의춘, 나미비아 정부대표단 면담(10/20,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외무상이 2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을 방문한 마르코 하우시쿠 외무장관을 단장으로 한 나미비아 정부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쿠웨이트, 항공로 협정 체결(10/20, 조선중앙방송)

- 북한과 쿠웨이트 정부가 10월 15일 쿠웨이트에서 항공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20일 보도, 허종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와 파와즈 압둘 아지즈 알 파라흐 쿠웨이트 민용항공총회사회 위원장이 양국 정부를 대표해 이 협정문에 서명했다고 중앙방송은 보도

3 대남정세

● 부산서 北에 보낼 '통일쌀' 수확(10/26, 연합)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는 26일 오전 부산 사상구 삼락체육공원 내 논(9천900㎡)에서 통일쌀을 수확하는 행사를 연다고 25일 발표

● 통일부, 北, 식량 위기 상황 아니다(10/24, 통일부)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금년 북한의 작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식량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추수가 시작됐고 금년도 기상조건이 상당히 좋다고 하고 매년 오는 호우가 없었다”며 북한이 식량 위기 상황 아니라고 언급

- 김 대변인은 “벼나 감자는 잘됐고 옥수수는 비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비료가 부족해 작황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당국자 얘기라고 하면서 올해 생산량이 480만t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언

● 남북 언론, 기사·사진·동영상 교류 합의(10/23, 연합)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10월 18~22일 평양을 방문해 북측 언론분과위원회와 제4차 남북언론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통해 기사를 교류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발표
- 양측은 남측 ‘통일언론’과 북측 ‘우리민족끼리’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기사를 교환하기로 했으며, 전자우편을 통해 민족의 화합과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보도기사, 논평, 사진기사, 영상기사 등 다양한 형식의 기사를 교환하며 필요한 경우 언론단체들에서 보도하도록 합의

● 金통일, 북핵 진전시 10·4선언 사업 우선고려(10/23, 연합)

-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23일 영변 핵시설 불능화의 마무리 등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10·4선언에 포함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 김 장관은 또 지난 12일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음을 언급한 뒤 “불능화가 예정대로 완료되어 간다면 그 과정에서 남북간 사업을 적극 검토·추진할 것이며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등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의 경우 차관 방식에서 무상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향후 대북 지원시 보다 강화된 수준의 모니터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남북 화물열차 163회 중 150회 빈차 운행(10/23, 연합)

-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시작된 남북 간의 경의선 화물열차의 ‘빈차’ 운행률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권영세(한나라당) 의원이 23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2월부터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을 운행한 화물열차는 지난 8월까지 163회 운행했고, 이 중 화물을 수송한 횟수는 13차례에 불과, 권 의원은 이 같은 빈차 운행으로 모두 2억7천153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힘.

※ 남북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은 10·4합의에 따라 2007년 12월 11일부터 도라산역-판문역 구간 운행을 시작했으며,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차례 운행, 이 열차는 1월까지 총 12량이 운행됐으나, 수송 수요가 많지 않아 공여지책으로 2월부터는 화물이 없을 경우 기관차와 차장차 등 2량만으로 운행

● 柳외교부 장관, 北 핵무기 6~8개 추정(10/22, 연합)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외교통일통상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일반적으로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6~8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추정이 있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인지 확인이 된 것은 없다”고 언급, 또 “북한의 핵 재처리 정황으로 볼 때 현재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지 정확히 (핵무기 보유여부를) 검증했거나 확인한 것은 없다”고 답변
- 유 장관은 ‘외교장관이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송민순(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돼 있어 말했다”고 해명
- 또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다”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

● 金통일부 장관, 北 비난해도 정부 원칙 견지(10/22, 연합)

-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 회의’에서 ‘남북관계 현황과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을 소개하며 “북한이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
- 김 장관은 북한이 우리 정부에 10·4선언 합의사항의 무조건적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약속을 존중하지만 우선 만나서 무엇을 지금 할 수 있고 무엇을 나중에 할 수 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할 것 아니냐”며 “만나서 북한의 주장이 옳으면 우리가 14조3천 억원을 다 쓸 용의가 있지만 얘기도 해보지 않고 약속을 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

● 관계경색에도 남북합작 평양치킨집 호황(10/22, 연합)

- 남북 당국 간 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채 악화 양상이지만, 남한의 '맛대로촌닭'이 북한의 '락원무역총회사'와 합작해 지난 6월 평양시 모란봉구역 개선문동에 문을 연 '락원 닭고기 전문식당'이 연일 문전성시
- '맛대로촌닭' 서울 본점의 최원호(49) 사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평양 1호점의 한달 매출액은 1만8천 유로(약 3천180만 원)로 주민들이 매장 앞에 줄을 서서 먹을 정도이고, 특히 배달이 잘 된다"고 언급, 하루 매출이 남한돈으로 100만 원 정도로 하루 100마리 정도의 닭이 소비되는 수준

10.27-11.2

10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 김정일 축구 관람 사진 공개(11/2,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 TV; 노동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만경봉'팀과 '제비'팀 간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사진을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등이 2일 일제히 공개, 그러나 이들 언론은 사진 촬영 일시와 장소를 밝히지 않았으며, 경기 관람 동영상 역시 공개하지 않음.
 -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은 김 위원장이 앉아서 무언가를 보면서 웃는 모습과 축구경기 장면 각 1장임. 무언가를 관전하는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검은색 안경에 두툼한 갈색 반코트를 입고 소파에 앉은 채 오른손은 팔걸이에 얹고 다소 힘이 없어 보이는 듯한 왼손은 무릎 위에 늘어뜨린 모습이었음.
 - 조선중앙TV도 중앙통신이 내보낸 김 위원장의 앉아있는 사진 외에 선 채로 간부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사진 3장과 축구경기 장면 10장 등 도합 14장을 공개
 - 그러나 이들 사진 모두에서 김 위원장 모습을 배경으로 경기 장면이나 일반 관중석이 잡히지는 않은 채 김 위원장, 경기 장면 등이 각각 따로 촬영
 - 이날 김 위원장의 경기 관람 사진에는 현철해 군 대장 등이 포함됐으나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음.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수행 간부로 현철해, 리명수, 김명국 대장과 장성택 행정부장, 리제강, 리재일 당 제1부부장 등을 언급
- 佛의사, 난 모르는 일...평양 안 갔다(10/31, 연합뉴스)
 -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치료를 위해 최근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뇌신경외과 전문의 프랑수아 사비에 루(57)가 30일 이러한 보도 내용을 부인
 - 그러나 그는 자신이 최근 파리에서 북한 공관이 제공한 차량으로 공항에 갔으며, 앞서 2~3일 전 김 위원장의 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김(Kim)이라는 성을 가진 한국인이 자신을 찾아왔었다고 시인

- 파리 소재 생트 안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이뤄진 AP통신과의 통화에서 일본 후지TV가 루 과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평양 행 화면을 방송한 데 대해 “난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AP가 31일 보도
- 신경학·정신의학 전문의인 루 과장은 북한과의 인연이 10년도 넘으며, 지난 4월에도 강의와 실습을 위해 평양에 갔다면서 “그들이 왜 15년 전에 나를 접촉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다. 내게도 그것은 늘 약간의 미스터리였다”고 언급

● 김정남 접촉 프랑스 의사 평양 입국(10/29, 후지TV)

-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뇌신경외과 의사가 10월 24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갔다고 일본 후지TV가 29일 보도
- 방송은 이 의사가 프랑스 파리의 산타누 병원 뇌신경외과의 권위자인 프랑스와 구자비에 르 부장이라면서 그가 지난주 파리 주재 유네스코 대표부의 차량으로 샤를 드골 국제공항으로 이동, 10월 24일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보도
- 후지TV는 “르 부장은 지난 8월에도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며 “이번 방북도 김정일 위원장의 진료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

나. 정치 관련

● 北청년동맹, 평양서 ‘충성모임’(11/2, 조선중앙방송)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전국청년동맹 초급일꾼(간부) 열성자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조직 강화문제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일 보도
- 김중린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관련기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당의 영도를 받들고 청년동맹 초급조직들을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 선군청년전위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토의됐다”고 방송은 보도

- 北, 南정부 비난 공세 계속(11/1, 민화협 대변인성명;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방송매체들과 단체는 1일에도 남한 정부의 일부 통일·진보단체에 대한 수사 등에 비난 공세를 이어감.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가 “진보운동 단체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6·15시대의 전진을 가로막아 보려는 용납못할” 행위라고 비난
 - 평양방송도 ‘묵과할 수 없는 파쇼적이며 도발적인 망동’이라는 논평에서 “지금 남조선(남한)에서는 북남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이행을 요구하는 각계 단체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다 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몰려 탄압당하고 있다”면서 “과거 독재시기를 그대로 방불케하고 있다”고 비난
 - 조선중앙방송 역시 남한 정부가 “진보세력을 가차없이 탄압”하고, “급변사태”를 거론하며 “흡수통일 야망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며 “우리의 존엄이고 생명인 신성한 우리 체제를 감히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고도 무자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北, 호국훈련 비난(10/31, 조평통 서기국 보도;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1일 지상·공중·해상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익히기 위해 30일 시작된 국군의 ‘호국훈련’을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단호한 대응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이 훈련을 “우리(북)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이며 조선반도 정세를 군사적 충돌과 핵전쟁 국면으로 몰아가는 용납 못 할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특히 이 훈련에 포함된 미군 참여 상륙훈련과 관련, “미국이 운운하는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란 거짓”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임.
 - ※ 호국훈련은 11월 8일까지 수도권과 경북 포항 일대, 서해상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경기 여주와 이천 일대에서는 2개 군단이 참가하는 남한강 도하훈련, 수도권 전역에서는 중요시설과 지역에 대한 통합방호훈련, 포항 일대에서는 해병과 공군이 참가하는 상륙훈련과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 서해상에서는 해군의 기동훈련과 해상 사격훈련이 각각 진행

● 北, 박성철 장례식 진행(10/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박성철 노동당 정치국 위원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보도
- 북한의 국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총리,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최태복 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과 유가족 등이 참석했고,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이 ‘애도사’를 낭독, 통신은 ‘혁명 1세대’인 박성철의 시신이 추도곡과 조총이 울리는 가운데 묘지에 안치됐다고 전했다. 묘지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음.

● 노동신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비난(10/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우리의 힘을 오판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신속한 전개와 전쟁예비물자 양도 등을 약속한 것은 북한에 대한 “용납 못할 군사적 도전”이라며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바란다면 “그에 배치되는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우리 공화국(북한)은 전쟁 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질 것”이라며 “만일 적들이 한사코 선불질을 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위력한 선군의 총대로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

● 北청년단체, ‘강성대국 건설 돌격대’ 결의(10/29,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대표적 청년단체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28일 평양에서 제 38차 전원회의를 열고 ‘강성대국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29일 보도
- 참석자들은 “청년들이 강성대국 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선봉대, 돌격대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한 뒤 생산현장에서 ‘대중적 혁신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고 방송은 소개
- 회의에는 리용철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를 비롯해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일선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결정서’가 채택됐다고 방송은 보도, 청년동맹은 곧 평양에서 북한 전역의 초급 간부들이 참석하는 ‘열성자 회의’

를 개최할 예정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만 14~30세의 청년, 학생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단체로서 1946년 1월17일 창립됐으며 현재 맹원 수는 500만 명으로 추정

● 北, 임업상에 김광룡 임명(10/29, 연합뉴스)

- 북한 임업상이 석군수에서 김광영으로 교체된 것으로 29일 알려짐. 평양방송은 10월 10일 발표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담화'에 대한 임업성 반응을 소개하면서 "김광영 임업상과 부상 럽천범 동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해 2004년 10월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석군수 임업상이 김광영으로 바뀌었음을 확인

※ 김광영 임업상은 부상에서 승진 기용됐으며, 2007년 10월 임업성 부상으로 북한 임업성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제12차 회의에 참석한 바 있음.

● 北군부, "빼라살포 등에 軍 실천행동" 경고(10/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군부는 28일 남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이 계속될 경우 10월 2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밝힌 대로 북한 군대의 "단호한 실천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 대변인은 이어 "날이 갈수록 위협도수를 넘어서고 있는...반공화국 대결소동"과 관련해 "우리 군대의 단호한 입장"을 밝힌다며 3개항의 입장을 발표

- 첫 항에서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해 남한 당국이 남한 사회의 특수성과 민간단체들의 행동임을 내세우지만 "반공화국 심리전 책동에 계속 매달리려는 불순한 기도"임을 간파하고 있다며 이것이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 등에 대한 "실천행동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두번째 항에서 대변인은 북한의 선제타격은 "그 어떤 조기경보체계도 요격체계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모든 것을 잣더미로 만들고 그 위에 자주적인 통일조국을 세우는 정의의 타격전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제2의 '불바다' 위협을 강조

- 세번째 항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역사적인 북남선언들과 군사적 합의들”에 대한 남측의 “노골적인 파기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우리가 취하게 될 중대결단을 강력한 군사적 힘으로 담보해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 대변인은 “말로 외우는 두 선언에 대한 존중이나 합의이행을 위한 대화재개보다는 실제적인 실천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

● **北, 뼈라 살포 개성공단에 악영향(10/28, 연합)**

- 북한은 27일 경의선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MDL)상에서 열린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에서 남측의 전단(뼈라) 살포 행위 중단을 거듭 요구하면서 동시에 군 통신망용 자재·장비 제공을 요청
- 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북측은 남측의 전단 살포 행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단 살포 행위가 중단되도록 우리(남)측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힘.
- 북측은 이날 남측이 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후과(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짐. 이상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대령)은 “북측은 지난 2일 군사실무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공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 인원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으며, 개성 및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인원의 체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강조

● **김정일 관련 이(李)국방 발언 北 “용납 못할 도발행위”(10/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대결과 전쟁열에 들뜬 역적배’란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이상희 국방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 “(서방의) 지나친 관심은 (김 위원장의) 버릇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우리의 최고 존엄(김 위원장)과 자주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며 천추에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27일 보도

● **北, “당과 수령 업적 체득” 강조(10/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운 당과 수령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군인과 주민들에게 “당과 수령(김

일성)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자고 촉구

- 신문은 또 김 주석이 제시한 ‘주체사상’과 김 위원장이 내놓은 ‘선군사상’을 각각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지도사상, 지도적 지침”이라고 강조하며 두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 힘을 넣어야 한다”고 당부

다. 경제 관련

● 北 프로그램 전시회 질·양 수준 향상(11/1, 조선신보)

- 평양에서 10월 23~30일 열린 ‘제19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가 규모나 기술면에서 작년에 비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조선신보가 1일 보도
- 북한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관련 연구 발표장인 이번 경연 및 전시회에는 40여 개의 성(省), 중앙기관과 120여 개 기관, 기업소, 단체 등에서 600여 건의 프로그램을 출품,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늘었다고 보도, 신문은 이번 전시회와 병행해 전국 소프트웨어(S/W)제품 전시회도 열렸으며 우수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판매도 이뤄졌다고 소개

● 北천리마제강, 신형 전기로 완공(10/31, 조선중앙TV; 조선신보)

- 북한의 대표적 철강업체인 평안남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가 2008년 2월부터 제작에 들어간 ‘초고전력 전기로’를 완공했다고 조선중앙TV가 31일 보도
- 방송은 이날 현지에서 김영일 내각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업식이 열렸으며, 노동당 중앙위 명의로 현지 근로자들에게 ‘축하문’을 보냈다고 보도
- 조선신보는 신형 전기로에 대해 지난 6월 기존 전기로보다 용량은 3분의 2에 불과하지만 제강시간은 5분의 1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음.

● 北, 산림녹화 명목 폐기발 회수(제243호, 오늘의 북한소식; 10/30, 연합)

- 북한 당국은 산림 녹화를 위해 주민들이 산지를 개간해 곡물을 심던 폐기발 경작을 금지하고 이 밭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이’ 30일 보도
- ‘오늘의 북한소식’ 제243호에서 “지난 9월 29일 중앙당이 ‘2012년까지 조

국의 산과 들판을 황폐한 곳이 한 곳도 없도록 푸르게 단장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렸다"면서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개인들로부터 소토지를 회수해 나무를 심고 있다고 설명

- 소식지는 함북 부령군 주민들의 경우 폐기밭에 옥수수와 감자, 두부콩, 수수, 조를 심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분의 식량을 확보해 왔는데 이 방침으로 소토지 농사가 금지되자 "그러면 다 죽는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 한편 평양시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양정사업소에서만 식량이 판매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주민들은 양정사업소가 식량 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판매량이 충분할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도

● 北작황 조사 결과, “좋다-나쁘다” 전언 엇갈려(10/2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올해 작황에 대한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의 현지 실사 결과 “올해 수확량이 꽤 좋은 편”인 것으로 들었다고 로마 주재 한 아시아 대사관의 외교관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 그러나 방송은 WFP 아시아사무국의 폴 리슬리 대변인은 “올해 가을 수확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될 것 같다”고 엇갈린 말을 했다고 덧붙여 보도
- 익명을 요구한 아시아 대사관의 한 외교관은 WFP와 FAO가 북한의 올해 작황에 대한 최근의 예비조사 결과를 식량지원국에 제공했다며, 북한의 식량 사정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졌다고 할 정도로 괜찮다”고 주장
- 이에 대해 리슬리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 각 지역의 식량 생산 수준과 올해 식량 부족분을 정확히 파악했다면서, “올해 수확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될 것 같다”며 “한마디로 북한의 식량 상황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표명
- 현재 최종 보고서를 작성중인 FAO의 앙리 조세랑 세계정보·조기경보 국장도 10월 북한의 추수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연료와 비료의 태부족이 수확량에 악영향을 끼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RFA는 보도

● 北 올해 식량 부족분 50만~80만t 추정(10/2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은 최소 50만t에서 최대 80만t가량 될 것이라고

북한경제와 식량문제 전문가인 해거드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28일 인터뷰에서 강조

- 올해 북한에 흉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지적, 북한의 “올 가을 수확량은 2006년과 2007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추정
- 올해 초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을 166만t 정도로 봤으나 해거드 교수는 “만일 올해 북한이 100만t 이상의 식량이 부족했다면 올해 봄 춘궁기부터 이미 대량아사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

● 北농업성, 올해 농작물 수확 300만t 추정(제240호, 오늘의 북한소식; 10/27, 연합)

- 북한의 농업성은 올해 농작물 생산량이 2007년보다 나은 300만t가량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7일 주장
- ‘오늘의 북한소식’ 제240호에서 “아직 정확한 수확량은 산출되지 않았으나 작년보다 농작물 생산량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각 지역 보고서와 농업성에서 현장 검시한 결과를 분석해야 비교적 정확한 숫자가 파악 되겠지만, 농업성에서는 ‘아마도 300만t 선이 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고 보도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적십자대회’ 개최(10/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29~30일 평양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적십자대회’를 열고 2012년까지 발전전략과 사업계획을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
- 장애인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은 보고에서 “적십자회가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며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인도주의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 중심을 두고 보건위생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
- 그는 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해 인도주의 문제들을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며 국제적십자사연맹(IFRC)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각국 적십자 단체들과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행사에는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주북 IFRC 및 ICRC 관계자들이 초대되었음.

● 北, 국가 학위 학직 수여(10/29, 조선중앙통신)

-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는 28일 김책공업종합대학 로춘식 부장과 리병일 실장에게 교수학직을,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인 한성철, 박철해 등 16명에게 박사학위를, 63명에게 부교수 학직을 각각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 北, 흰범·황구렁이 인공번식 성공(10/28, 조선신보)

- 북한의 중앙동물원이 자연번식이 힘든 흰범과 황구렁이의 번식 방법을 찾아내 “인공번식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8일 보도

● 北, '질병 진단법 통일' 강습회 개최(10/28, 조선신보)

- 북한의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가 최근 평양에서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통일적인 질병 진단을 위한 강습회를 열었다고 조선신보가 28일 보도.
- 면역 능력을 높이는 뜸 치료 도입, 동맥경화에 대한 진단 등 최근 북한 의학 부문에서 견해의 일치를 봐야 할 일련의 문제들도 다뤄졌다고 신문은 소개

● 유니세프, 2009년 10월 北아동 영양실태 조사(10/27,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북한 어린이들의 만성적인 영양부족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10월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북한의 7개도와 1개 자치도시의 4천800가구를 대상으로 영양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고팔란 발라고팔 유니세프 평양사무소 대표가 발표, 발라고팔 대표는 2009년 조사 결과를 5년 전 조사와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2004년 조사기간과 동일한 10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10일간 평양과 양강도에 이르는 북한 전역에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
- 발라고팔 대표는 현재 북한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특히 심각해 이 지역 모든 병원은 영양 재활치료를 받는 어린이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황해북도 연탄군에서 시범적으로

별이고 있는 아동 영양실조 관리사업이 성공하면 이를 북한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 유니세프는 북한에서 1998년부터 2년에 한 차례씩 7세 미만 어린이와 24개월 이하 영아를 가진 여성의 영양상태를 조사하다 북한 당국의 비협조 때문에 2004년을 마지막으로 중단, 2009년 조사가 이뤄지면 5년만에 재개되는 영양실태 조사는 유엔인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15년만에 이뤄진 인구주택총조사, 유엔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의 주도로 4년만에 재개된 수확량 조사에 이어 3번째 재개되는 대규모 북한 현지 실태조사가 됨.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정부, '북핵검증의정서-철강재' 연계 검토(10/31, 연합)

- 정부가 북핵 6자회담 틀에서 북에 주기로 한 철강재 3천t 제공을 핵검증 의정서가 채택될 때까지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북·미 협상으로 이뤄진 최근 북핵 진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반영
- 철강재 3천t은 한·미·중·러 4개국이 북한의 핵 신고와 불능화 이행에 대한 상응조치 차원에서 북에 제공하고 있는 총 중유 95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 중 한국이 맡기로 한 물량의 일부로써 9~10월 중 철강재를 보내기로 하고 생산절차를 진행했지만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지연에 반발한 북한이 불능화를 중단하고 핵시설 원상복구에 들어가자 일단 생산이 완료될 때(10월 하순)까지 기다렸다가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음.
- 그럼에도 정부가 검증의정서 채택을 위한 차기 6자회담 결과를 본 뒤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현재 북핵 상황의 가변성을 감안한 포석으로 풀이

● 뉴질랜드, 대북 중유 지원 논의 중(10/30, 자유아시아방송)

- 뉴질랜드 정부가 대북 중유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북핵 6자회담 참여국들과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주재 뉴질랜드 대사관이 발표

- 대사관 대변인은 30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현재 6자회담 당사국들과 뉴질랜드 정부가 중유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논의단계’에 있다고만 밝힐 수 있다”고 밝힘. 뉴질랜드 대사관 대변인은 “(뉴질랜드가) 단독으로 참여할지, 아니면 현재 지원을 검토중인 호주와 공동으로 참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급
- 이와 관련, 제임스 편넬 뉴질랜드 외교장관 수석 비서는 “뉴질랜드가 내달 8일 총선을 앞둔 만큼 북한에 중유를 지원하는 문제는 새로 들어설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RFA는 보도
-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북 문제의 미해결을 이유로 2·13합의와 10·3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 지원 분담액 20만t의 집행을 거부함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 제3국의 대납 방안을 모색

● **힐, 6자회담 비참가국 北에 중유 제공 의사 밝혀(10/29, 연합)**

- 북핵 6자회담 당사국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이 일본 대신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8일 언급
- 힐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난 뒤 이같이 밝히고, 호주의 참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몇몇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는 방안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언급, 그러나 어떤 국가들이 중유 제공을 자원했는지는 밝히지 않음. 그는 이어 “이들과 협의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중유 제공을 끝마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 **6자회담 일러야 11월 중순 가능(10/27, 연합)**

-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을 시도할 차기 6자회담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은 27일 “차기 6자 수석대표 회담은 처음에는 제7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끝나는 이번 주에 개최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시기가 다소 늦춰졌다”면서 “10월 8일까지는 불가능하며 일러도 11월 10일 이후에나 개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표명

나. 북·미 관계

● 北·美 과학자 교류 추진…美대표단 방북(11/1,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정보기술(IT)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자 대표단이 북·미 양국 정부의 후원아래 이르면 2009년 1월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과학진흥협회와 시라큐스대, 민간연구개발재단, 코리아사이어티 등이 주축이 돼 구성된 '미국과 북한 간 과학교류를 위한 컨소시엄'이 이번 방북을 추진, 한 핵심 관계자는 "미국 과학자들은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 북한 과학 기술의 현황에 대해 북한 과학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미국과 북한 과학자들간 교류를 늘리는 방안에 관해 함께 토론을 벌일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또 "방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고 북한측의 승인만 남은 상태"이나 "미국과 북한간 핵협상과 같은 정치환경에 영향을 받을 변수는 있다"고 강조
- 앞서 10월 28일 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김책공대와 교류하는 시라큐스대의 스투어트 토슨 교수는 "컨소시엄 차원에서 북한의 유엔대표부와 미국 과학자들의 방북을 논의해 왔다"며 "북한도 양국 과학자 간 교류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미 국무부도 이번 방북에 매우 협조적이고,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이번 교류에 관여해 왔다"고 설명
- 2007년 5월 시라큐스대를 비롯한 미국 내 9개 대학과 비정부기구, 의회, 국무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토론회를 계기로 구성된 이 컨소시엄은 2008년 2월 보스턴에서 열린 2008 미국과학진흥협회 연차 총회에 김명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공사를 초청, 양국 과학자들 간 교류 활성화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음.

● 성김 내주 뉴욕서 리근 접촉(11/1, 연합)

- 미 국무부 손 매킨 맥 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북한 일행의 대표인 리 국장이 김계관(외무성 부상)의 차석자인 만큼 우리측에서는 김 특사가 그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 매킨 맥 대변인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동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제 힐 차관보와 마주칠 기회가 있어 그 문제를 물어 보았다. 아마 김 특사가 가게될 것"이라고 답변

- 이와 관련,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 국무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힐 차관보가 뉴욕으로 건너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
- 리 근 국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은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도널드 자고리아 헌터대 교수 등의 초청을 받아 11월 7일께 뉴욕을 방문, 학술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 리 국장의 방미는 북미 민간차원 교류인 이른바 ‘트랙 투’ 형식을 띠게 되며, 학술회의에는 에번스 리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이 참석하게 될 것으로 알려짐.

● 北주민들, 美의회대표단에 식량 지원 사의(10/29, 자유아시아방송)

- 미 의회대표단이 20~24일 북한 평양을 방문해 미국의 대북 지원 식량 분배 현황을 살펴봤으며, 북한 주민들은 이들에게 “매우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
- 방송은 미 의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상원 세출위원회 산하 농업소위원회에 소속한 민주당과 공화당 전문위원 5명으로 구성된 의회대표단이 평양 북동부 지역의 탁아소와 학교, 병원 인근에 설치된 식량배급소를 둘러봤으며 분배 현황을 담은 기록도 살펴봤다고 보도, 의회 관계자는 대표단이 북한 주민들을 직접 만날 수도 있었다면서 북한 관리들이 “협조적”이었다고 말하고 “식량을 분배받은 북한 주민들이 미 의회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통역을 통해 미국의 식량 지원에 대해 매우 고맙다는 뜻을 전하는 것을 보고 매우 좋은 조짐이라고 느꼈다”고 언급
- 그는 또 ‘사건’임을 전제로 “미 의회 대표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절실하고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의 가치를 알 수 있었다”고 밝힘.
- 대표단의 방북 실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께 보고서 형태로 의회에 제출된 뒤 향후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예산 배정 여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방송은 보도

다. 북·중 관계

- 북한군 친선 참관단 1일 귀환(11/1, 조선중앙방송)
 - 김춘삼 상장(중장급)을 단장으로 한 북한군 친선 참관단이 1일 귀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北·中, 압록강·두만강 수리 협력 회의록 조인(10/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기상수문국 대표단과 중국 수리부 대표단 사이에 압록강·두만강의 수문사업협조에 관한 회담록이 29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조인식에선 북한측에서 고일훈 기상수문국장이, 중국측에서 방북중인 류녕 수리부 총정공사가 서명
- 中, 김정일 입원 소식 모른다고 언급(10/28,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 외교부는 28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입원설과 관련해 아는 바 없다고 답변,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김정일 위원장이 입원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런 소식을 들은 바 없다”면서 “어떤 논평도 할 수 없다”고 답변

라. 북·러 관계

- 2009년 4월 평양에 러시아문화센터 개설(10/30, 러시아의 소리방송)
 - 러시아 말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러시아문화센터가 2009년 4월 평양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이 30일 보도
 - 러시아세계기금의 게오르기 톨로라야 지역국장은 평양외국어대학 행정부와 센터 개설에 합의했다면서 문학서적과 컴퓨터, 영화 교재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는 또 중학교(중고교)용 러시아 교과서를 출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을 북측에 접수했다고 밝힘.
 - 방송은 “러시아세계기금은 외국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화 전파를 위해 지난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직됐다”고 설명

마. 북·일 관계

● 北, 납치 재조사 거부 입장 전달한 적 없어(10/3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1일 북한이 중국에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재조사 거부 입장을 전달했다는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를 부인, 조선신보는 ‘언론을 통해 보는 조선의 대일 관점’ 제목의 기사에서 조(북)일관계 소식통을 인용, “조중사이에 그러한 이야기가 오고간 적이 없다”며 “교착상태의 책임을 조선측에 들씌우고 조선에 대한 압력 강화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보조작의 성격이 짙다”고 주장
- 산케이 신문은 이날 북일관계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합의한 납치문제 재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
- 조선신보는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조·일 현안 해결에서 진전이 없는 것은 일본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일본에서 정권이 어지럽게 교체된 최근 몇년간의 정부간 협상은 시간낭비 밖에 되지 않았다”고 교착상태의 일본 책임론을 강조
- 조선신보는 북한과 일본 간 이뤄진 “선양 합의는 조일간에 상정·토의된 문제들을 이행하겠다는 후쿠다 수상의 의향을 전제로 했을테지만 그는 손도 안댈채 돌연히 사임했다”며 “9월 이후 조선측은 후임자인 아소 수상의 언동을 지켜보았을 것인데 정책계승의 뚜렷한 신호는 일본측에서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北, 日 납치문제 제기예 ‘과거청산’ 대응(10/28, 노동신문: 민주조선)

- 노동신문은 28일 ‘정치 사기꾼들의 잔망스러운 흥정 놀음’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북일 국교정상화 조건으로 납치문제를 계속 내세우면 북일관계가 “악화의 길만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신문은 “조일(북일) 국교정상화 실현에 앞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바로 과거 청산”이라고 강조
- 민주조선도 ‘부질없는 대결 소동으로 차려질 것은 자멸뿐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납치문제를 이유로 대북 제재조치를 연장한 것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파탄시키고 조일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킴으로써 저들의 군사 대국화, 해외 침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바. 기타 외교 관계

- **北 모리셔스 대사에 안희정 임명(11/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일 안 대사가 10월 23일 아니루드 쥬그노스 모리셔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인사를 전달했다고 보도, 안 대사는 나미비아, 잠비아, 보츠와나 대사도 겸임
 - ※ 북한과 모리셔스는 1973년 3월 수교

- **유럽국가 수교 60돌 친선모임(10/31,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30일 동유럽 국가들과 외교관계 설정 60주년을 기념해 주북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대사관원과 슬로바키아, 헝가리 외무부 대표단을 초대한 가운데 친선모임을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앞서 박 외무상은 10월 26일 루마니아와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축전을 라자르 코마네스쿠 외무장관에게 보냈다고 통신은 보도

- **北 평양서 ‘유엔의 날’ 기념연회 개최(10/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양에서 29일 장 피에르 드 마저리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장이 ‘유엔 임시대리상주조정자’ 자격으로 ‘유엔의 날’(10.24) 기념연회를 주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연회에는 북한 외무성에서 국제기구를 담당하는 박길연 부상과 북한 주재 각국 대사관 관계자와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
 - 유엔의 날인 10월 24일 조선중앙방송은 “우리나라는 유엔 성원국으로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맞게 공정한 국제관계를 수립하는 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보도
 - 한편 마저리 소장은 곧 WFP 평양사무소장에서 이임하고 토빈 듀 신임 사무소장이 부임할 예정

- **김영남, 미얀마 외무장관 면담(10/29,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니

얀 윈 미얀마 외무장관을 만나 환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니안 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을 전달

● 브라질, 북한에 대사관 개설 추진(10/27, 연합)

- 브라질 정부가 평양에 대사관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가 27일 보도, 브라질 외무부는 구체적 시기를 밝히지는 않은 채 평양 주재 대사관 개설 추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번 결정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적극 합류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발표

※ 북한과 브라질은 지난 2001년 3월 수교 이후 2004년 9월부터 상주 대사관 개설을 추진해 왔으며, 브라질 정부가 대사 파견을 위한 아그레망 을 승인한 뒤인 2005년 6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박혁을 브라질 대사로 임명하고 대사관을 공식 개설

3 대남정세

● 金통일, '남남갈등' 방지가 가장 중요(10/31, 연합)

-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31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화여대 북한학과 10주년 기념 특강에서 대북 대화 제의와 남북 간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남갈등의 방지”라고 주장, 김 장관은 “지금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남(南南)갈등으로 인한 국론분열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에는 남북관계 때문에 남남갈등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강조

● 구호단체 JTS, 北에 밀가루 500t 지원(10/31, 연합)

- 국제구호단체인 JTS(이사장 법륜 스님)는 북한의 강원도 주민에게 긴급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31일 오전 인천항을 통해 밀가루 500t(4억원 상당)을 북한의 남포항으로 보냄

- 2만5천 포대에 나뉘어 담긴 밀가루는 이튿날 남포항에 도착해 강원도 원산시의 육아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어린이와 양로원 노인들에게 100t, 법동

군과 고산군, 통천군, 세포군 주민들에게 각 100t이 전달될 예정

● 평양대마방직 참관단 대규모 방북(10/29, 연합)

- 남한 기업과 북한측이 공동 투자·경영하는 평양대마방직의 준공식 참석을 위한 남측의 대규모 참관단이 29일 오전 아시아나 전세기편으로 북한을 방문, 방북단은 남북경협 관련 기업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 등 관계자들과 천주교 작은형제회원 등 257명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이 포함
- 평양대마방직은 안동대마방직(회장 김정태)과 북측 새별총회사(총회장 리명준)가 절반씩, 총 3천만 달러의 자본금을 공동 투자해 평양 선교구역 영제동에 세운 섬유 및 물류회사로 부지 4만7천㎡에 1천 명 내외의 북한 근로자가 일할 예정

● 北 개성서 남·북 강원도 교육교류 실무회담(10/29, 연합)

- 강원도 교육청은 29일 북한 개성을 방문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등과 남·북 강원도 교육분야의 교류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 이날 회담에는 도교육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남북 강원도협력협회 등 남측 관계자 5명이 참석, 북측과 교사 및 학생의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

● 北단체, 전공노 방북 불허 비난(10/28, 조선직업총동맹 대변인 담화)

-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은 28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관계자들의 방북을 불허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비정상적인 사태”라고 비난, 그는 촛불시위를 주도한 단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 움직임을 “북남관계 파탄과 민생도탄의 책임을 떠 데로 돌리고 통치위기를 수습해보려는데 그 검은 속셈이 있다”면서 남한 주민들의 ‘반정부 투쟁’을 선동
- ※ 정부는 최근 남북노동교류협력사업차 방북신청을 한 민주노총 대표단 30명 가운데 전공노 소속 3명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의 방북이 자제되고 있다는 점과 신변안전 문제를 고려해 방북을 불허

● 金국정원장, 김정일, 업무에 큰 지장없어(10/28, 연합)

- 지난 8월 뇌 수술 후 회복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

강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짐.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28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신체적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처리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전언

- 김 원장은 최근 김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지난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뇌신경외과 전문의를 만났고 이후 이 의사가 평양으로 향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김정남의 프랑스 방문은 사실이라고 본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
- 북한이 문제삼고 있는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와 관련, 그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며 통일부도 자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제한 뒤 “삐라로 (북한 내부에) 큰 변화가 감지된 것은 없으나 (삐라 내용은) 북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으로, 북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답변

● 통일부, 남북합의 감안, 삐라 살포 자제 요청(10/28, 통일부)

- 정부는 28일 북한이 거둬 문제삼고 있는 민간 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에 대해 “남북 간 여러 합의를 감안할 때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삐라 살포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이같이 말하고 27일 오후 관계 부처 국장급 회의를 갖고 이런 기본 인식에 뜻을 같이 했다고 소개

※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고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 합의서에는 그해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 부산·경남NGO, 北에 ‘햇빛발전소’ 건립 추진(10/28, 연합)

-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내년 상반기 중에 북한 평양에 500kW급 햇빛발전소(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발표, 500kW급 발전소는 최근 북한의 전력사용 상황을 고려하면 6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

● '통일문학' 2호도 진통 끝에 남측 반입(10/28, 연합뉴스)

- 올해 창간된 남북 첫 공동문학잡지 '통일문학'이 창간호에 이어 제2호도 일부 문구 수정의 진통 끝에 발간 3개월 만에야 남측으로 들어옴.
- 남과 북, 해외의 문인들이 결성한 6·15민족문학인협회의 남측협회(회장 염무웅)는 남북 문인들이 공동 집필해 지난 7월 31일 북측에서 발행된 '통일문학' 2호가 10월 초 당국의 승인을 받고 국내 반입됐다고 28일 발표
- 8월 7일 개성에서 북측협회로부터 전달받은 '통일문학' 2호 1천 부는 잡지 속 일부 문구를 이유로 통일부의 반입 승인을 받지 못해 그동안 도라산 세관에 압류돼 왔는데 최근 문제의 문구를 종이 테이프로 가리는 조건으로 반입이 승인

일시	내용	보도일자
09월 01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방북 라오스 수상과 담화, 아리랑 및 평양시내 참관	중통, 중방(9/1)
	제22차 평양국제탁구초경경기대회(청춘거리 탁구경기관, 8/28-9/1)	중통(9/1), 중방(9/2)
	독일 조선의원단 일행, 평양 도착	중방(9/1)
	김일성종합대학 혁명사적관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중방(9/2)
09월 02일	원산농업대학 창립 60돌 및 조선체육대학 창립 50돌 기념 보고회	중방(9/2)
	김정일의 혁명연극 '성황당'지도 30돌 기념보고회	중방(9/3)
09월 03일	정권 창건 60돌 경축 국가미술전람회 개막	중방(9/3)
	총중앙노동자예술선전대, 정권 창건 60돌 경축 공연	중방(9/3)
	평양시 근로자들의 정권 창건 60돌 예술소조종합공연(인민문화궁전)	중방(9/4)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장 및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 등 평양 도착	중통(9/3)
09월 0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정일에게 북한 정권 창건일 맞아 축전	평방(9/22)
	항일혁명열사추모비 준공식	중통(9/4)
09월 05일	전국 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종합공연(학생소년궁전)	중통(9/5)
09월 05일	김일성화.김정일화 전시회, 조선우표전시회 개막	중방(9/5)
09월 06일	전국청년학생독창독주경연(평성), 중앙사진전람회(인민문화궁전) 개막	중방(9/6)
	백두산 3대장군 위대성 도서 및 흠모작품 전시회	중방(9/7)
09월 07일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 동지 약전' 증보판 출판	중방(9/7)
09월 08일	최고인민회의, 정권 창건 60년 기념 금·은화 발행 '정령' 제2879호 발표	중방(9/8)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회 제18차 회의	중방(9/8)
09월 09일	정권 창건일 6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중방, 평방, 중앙TV(9/9)
	노동적위대 열병식(김일성광장)	중방, 평방, 중앙TV(9/9)
	당과 군대, 국가간부들,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중통(9/9)
	청년학생들의 햇불야회 '선군의 조국'	중통(9/9)
09월 10일	음악무용종합공연 '선진조국에 드리는 노래'(동평양대극장)	중통(9/10)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5월)일경기장)	중통(9/10)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지지 연대성 집회	중방(9/10)
	남북 축구대표팀의 2010년남아공 월드컵아시아 최종예선(중국 상해) 1:1 무승부	중방(9/11)
09월 11일	정권 창건 60돌 경축 건축설계작품전시회(강원도 미술전람회, 9/1-10)	중방(9/11)
	정권 창건 60돌 경축 제7차 전국농업근로자민족경기대 및 제5차 전국 농업근로자농악무경연(평양, 9/8-11)	중방(9/12)
09월 12일	김일성화.김정일화 전시회 폐막	중방(9/12)
09월 13일	총련조선대학교학생조국방문단(단장: 박정순 부학장) 북송 비전향장기수 김용수, 최선목과 상봉	평방(9/13)
09월 14일	대성산혁명열사능. 애국열사능에 화환 진정	중통(9/14)

북한 9·10월 동향 일지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9월 15일	주 방글라데시 북한 대사 신홍철 임명	중통(9/15)
	몽골 외무성 대표단(단장: 드 초그트바다르 국무비서), 베트남 공업상업성 대표단(단장: 부언 쉐언 쿠), 라오스 국가체육위원회 대표단(단장: 푸통 쎡아컴 위원장) 평양 도착	평방(9/15)
	제6차 대항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9/13-15)	중방(9/16)
09월 16일	덴마크-북 친선협회 결성 40돌 기념 모임	중방(9/16)
09월 17일	제11차 평양국제영화제 개막	중방(9/17)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 용단 촉구	중방(9/17)
09월 18일	황해남도 농촌, 버기을(추수) 시작	중방(9/18)
	제3차 9월10일상 전국무도선수권대회 개막	중방(9/18)
	북-라오스 '체육기관 협조에 관한 양해문' 조인	중통(9/18)
	일제강점 하의 피해 배상 요구	중통(9/18)
09월 19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북 스위스 대사 단떼 마르띠넬리와 담화	중방(9/19)
09월 20일	전국갑자부문 과학기술성과 발표회(9/18-19)	중방(9/20)
	조선노동당출판사, 회상실기집 '인민들 속에서' 75권 출판	중방(9/20)
09월 21일	美 '리먼 브러더스' 파산 신청 및 주식폭락 등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상세히 보도	평방(9/21)
09월 22일	김정숙 사망 59주기 관련 화환 진정 및 참관	중방, 중통(9/22)
	제4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3대혁명전시관,9/22-25)	중방(9/22)
09월 23일	제4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참가 대표단,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관람	평방(9/23)
	지하자원보호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중통(9/24)
	김책공업대학 창립 60돌 기념 과학토론회	중앙TV(9/24)
09월 24일	중앙역사박물관, 새로 발굴된 고려 시기 유물전시회	중통(9/24)
	북-쿠바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회 27차 회의(평양)	중방(9/24)
09월 25일	공화국 창건 60돌 기념 전국의학과학토론회(9/22-24)	중방(9/25)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일성 전집 제76권 출판	중방(9/25)
09월 26일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 개막	중통(9/26)
09월 27일	시리아 군대훈련 및 교육일꾼 대표단(단장: 나지브 바라카트 훈련총국장) 방북	평방(9/27)
09월 28일		
09월 29일	태국 외무성 보도총국 대표단(단장: 타리트 차룽바트 총국장) 방북	중통(9/29)
09월 30일		
10월 01일	미 국무성 차관보와 일행, 평양 도착	중방, 중통(10/1)
	제10차 전국발명 및 새기술전람회 개막	중통(10/1)
	박의춘 외무상, 태국 외무성 보도총국 대표단과 담화	중통(10/1)
	남 정부의 10.4선언 전면 이행 주장	조선신보(10/1)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10월 02일	10.4선언 발표 1돌 기념 연구토론회 전국 기초식품전시회 및 발표회(9/30-10/2)	중통(10/2) 중통(10/2)
10월 03일	김정일, 예성강청년1호발전소 준공 보고 받고 감사전달 미 국무성 차관보 일행, 평양 출발 10.4선언 발표 1돌 기념 중앙보고회 개천절기념행사(단군릉) 교육성 대변인, 남 정부의 역사교과서 개정 비난 담화 발표	중방(10/2) 중방,중통(10/3) 중방,중통(10/3) 중방, 평방, 중통(10/3) 중방,중통(10/3)
10월 04일	라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 개건 착공식(두만강역지구 조-러 친선각 앞) 김정일, 김일성종합대 창립 62돌 대학생축구경기 관람	중방, 평방, 중통(10/4) 중통(10/4)
10월 05일		
10월 06일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기록영화 '미래를 키워가는 선군시대 교육자들' 제작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일꾼대표단(단장: 최영성 위원장),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 지원 및 물자 전달 한적 총재 유종하 내정 관련 비난	중방(10/6) 중통(10/6) 우리민족끼리(10/6)
10월 07일	북 인민보안성-베트남 공안성 '호상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	중방(10/7)
10월 08일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기록영화 '일심단결로 승리 떨쳐온 내 조국' 제작 조선노동당출판사, 회상실기집 '인민들 속에서' 76권 출판	중방(10/8) 중방(10/8)
10월 09일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63돌 관련, 당·정·군 지휘성원들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김정일 담화를 통해 내부결속과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	중방(10/10) 중방, 평방, 중앙TV(10/10)
10월 11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821군부대 관하 여성포중대 시찰 조선노동당 창건 63돌 관련 경축 공연 종교인협의회 대표단(단장: 장재언 회장), 아시아종교평화대회 제7차 총회(필리핀) 참가 차 평양 출발	중통(10/11) 중방(10/11) 중통(10/11)
10월 12일	외무성 대변인,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관련 환영 표시	중통(10/12)
10월 13일		
10월 14일	북-중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위 제4차 회의 북 정권 창건 60돌 및 독일 국경절 관련 곰 조각 전시회 남 윤이상평화재단(단장: 신계륜이사) 참관단, 평양 도착 박의춘 외무상 일행, 러시아 방문 차 평양 출발	중방(10/14) 중통(10/14) 중방(10/14) 중방(10/14)
10월 15일	윤이상음악회(윤이상음악당, 10/15-17) 개막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기록영화 '소문없이 큰일을 하는 어랑천발전소 건설자들' 제작 전국적으로 가을 밀보리 심기 종료 '민주조선' 2만호 발행 기념보고회	중통(10/15) 평방(10/15) 중방(10/15) 중방(10/16)
10월 16일	편찬위원회, 김일성화-김정일화 전서 출판	중방(10/16)

북한 9·10월 동향 일지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10월 17일	김정일, 강원도 고산과수농장에 운전기재들과 영농물자 전달	중방(10/17)
	제11차 인민체육대회 개막	중통(10/17)
	제27차 윤이상 음악회 폐막 공연	중통(10/17)
10월 18일	'E·C' 결성 82돌 즈음 중앙과 지방 극장들에서 경축공연	중방(10/18)
	남북 단체들, 일본의 독도강탈 책동 규탄 공동성명 발표	중통(10/18)
10월 19일	남 정부의 진보단체 탄압책동 중단 성명 발표	중방, 중통(10/19)
10월 20일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중통(10/20)
	근로단체출판사, 청소년 위한 20여권의 사상 교양도서 출판	중앙TV(10/20)
10월 21일	북-리오스 당 대표단 회담	중방(10/21)
	남 정부에 대북 빠라 살포 중단 경고	민주조선(10/21)
	일본의 6자회담 참가 배제 제기	민주조선(10/21)
10월 22일	시리아 노동조합총연맹 대표단, 평양 도착	평방(10/22)
10월 23일	김정일 건강이상설과 중대 발표 보도 강력 부인	중통(10/23)
	북-미인마, '체육협조에 관한 양해문' 조인	중통(10/23)
10월 24일	북-나미비아 외무상 사이의 회담록 조인	중통(10/24)
10월 25일	대외문화연락회 친선대표단(단장: 문재철 위원장대리), 캄보디아, 리오스, 베트남 방문 차 평양 출발	중방(10/25)
	쿠바에 태풍피해 복구지원물자 전달 결정	중방(10/25)
10월 26일		
10월 27일	북 기상수문국-중 수리부 대표단 회담	중방(10/27)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단장: 장윤곤 소장), 중국 항발	중방(10/27)
10월 28일	당 정치국 위원 박성철 사망(95세), 당-정-최고인민회의-내각 명의 부고 발표	중방, 중앙TV(10/29)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 제38차 전원회의	중방(10/29)
10월 29일	조선노동당 출판사, 김일성전집 제77권 출판	중방(10/29)
	북-중, '압록강과 두만강 수문사업협조에 관한 회담록' 조인	중통(10/29)
	전국 정보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제20차 전국침구학 및 체질의학과학도론회, 제4차 전국경락학술도론회(10/27-29)	중방(10/30)
10월 30일	사회과학원 사회과학출판사, 선군사상 등을 담고 있는 8권의 '일꾼과 철학' 출판	중앙TV(10/30)
	전국 여맹모범초급단체위원장회의	중방(10/31)
10월 31일	제11차 인민체육대회 폐막	중통(10/31)
	제39차 예술인체육대회 개막	중통(10/31)
	제8차 무한교예축전(중국, 10/25-31)최고상 '황학금상' 수상	중방(11/4)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